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탱화 · 단청 · 조각 · 불교 건축 전문
원 장 김 영 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천토분이 무공해 오염되지 않는 피부 !
자연 속에 내기 속에서도 민족하고 싶은 신선한 피부
이제 새선 · 사워 하실에 인생은 한층 즐거워 진다는
천연 무공해 불교인삼피부미용비누를 소개드립니다.
(주)씨 · 티 · 에프 호서대학교 호서산기술센터 內
구입문의 현대불교신문사 영업부 (02)737-8881

영예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1년(서기 1997년) 3월 26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이렇게 들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지난 15일 2년 4개월만에 마침내 창립되었다. 재가신도공동체로서 중앙신도회는 앞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삼보를 외호하며 불자들의 바른 신행을 이끌 신행단체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중앙신도회가 명실상부한 신도들의 수행모임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신도(信徒)의 본분을 한시라도 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불교 신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지 다시 새겨야 할 때다. 〈편집자 주〉

법을 믿는 사람은…

부처님을 믿는 사람, 끝내 다른 천신(天神)을 믿지 말라. 법을 믿는 사람, 남을 해치고 미워하지 말라. 스님들을 믿는 사람, 외도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라. 이렇게 믿고 따르는 사람, 두려움 없으리라. 〈대반열반경〉

믿음과 실천이 있는 사람은 거룩한 분의 칭찬을 받고 해탈을 즐겨하는 사람은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느니라. 〈법구비유경〉

믿음을 가져야 하고, 깨끗한 계행을 가져야 하며, 법을 자주 들어야 할 것이며, 인색함을 버리고 항상 희사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하고, 지혜로써 법의 깊은 뜻을 살펴야 한다. 〈잡아함경〉

하늘도 생사를 면치 못하니 이 세상 무엇을 의지하리오. 불·법·승 삼보를 멀리하고는 능히 나를 구할 자 아무도 없네. 영원한 생명을 원하는 이는 삼보에 귀의하여 수행을 하세. 〈대승리취육바라밀다경〉

너희는 마땅히 법 가운데서 서로 화합하고 순종하여 서로 송사를 일으키지 말라. 한 스승에게 배우고 있으니 우유와 물이 잘 혼합되듯 화합하라. 〈유행경〉

믿음이 있어야 거센 물결을 건너고 게으르지 않아야 바다를 건너며 수행에 힘써야 고통을 떠날 수 있고 지혜로워야 청정함을 얻느니라. 〈별역잡아함경〉

같이 배우는 사람을 공경하되 형제처럼 생각하고, 겉으로는 몸과 입의 허물을 단정히 하고, 안으로는 자신의 마음에 허물이 없도록 단속하라. 〈불반니원경〉

수행자여, 어리석은 사람들이 보물을 소중히 여기듯이 수행자는 경전을 소중히 여겨 부모 섬기듯 해야 한다. 〈장아함경〉

선남자, 선여인들이여, 모든 사람을 만나거든 먼저 합장하고 예배하며, 또한 사람들이 이유없이 때리거나 꾸짖더라도 마치 칭찬하는 말과 같이 여기도록 하라. 〈대불정수능엄경〉

스스로 자기 수행하고 법을 널리 전하는 자들이 바로 내 아들이다. 〈증일아함경〉

인도 성지순례 부실운영 15면
전통 영산재 지상중계 7면
우리절 알리기 寺誌 발간 12면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북한주민 접촉 신청

조계종, 통일원에 식량 직접전달 시사

불교계가 식량고갈로 기아위기에 처한 북한주민을 직접 접촉, 식량을 지원할 전망이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월주)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북식량 긴급지원에 따른 협조요청과 북한주민 접촉 승인신청'을 지난 18일 통일원에 냈다.

조계종은 북한 주민 접촉승인이 나면 북한 불교지도자들과 대화를 통해 구체적인 긴급 식량지원 대책을 마련 '한민족공동체를 위한 성금모금액' 중 일정액을 곡물(옥수수가루 등)로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조계종은 통일원에 대북 식량긴급지원에 따른 협조요청과 함께 3가지의 전달방법(안)도 제출했다. 제1안은 판문점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다. 이밖에 제3국을 경유 북한측에 직접전달, 제3국에서 조선불교도연맹(회장 박태호)측에 전달하는 복안을 제시했다.

조계종 사회부장 능관스님은 "그동안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대북한 식량지원을 해왔으나 전달자와 수급자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차칫 군용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북한주민들에게 식량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 북한주민 접촉 승인을 냈다"고 설명했다.

통일원의 한 담당자는 "식량을 지원한다는 뜻에는 공감하지만 지원방법인 북한주민 접촉사항은 민감한 부분"이라며 "신중히 검토해 20일내로 결과를 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신교는 한국기독교북한동포후원연합회(식량은행)를 창립해 첫 사업으로 조선기독교도연맹이 요청한 봄보리 종자를 보내기로 했다. 또 국제선명회는 지난해 12월부터 평남 평원군에 국수공장을 운영하는 등 구호활동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계가 북한주민 접촉신청을 통한 관문접 회동을 시도했던 것은 종단협의회가 지난 89년 부처님오신날 합동법회를 주선했던 것이 처음이었으나 북한측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이후 통일불교운동협의회(회장 지선)가 세차례 북한접촉신청을 낸 바 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김종근 기자〉



◇범인은 노시나불(보물 968호 · 조선 인조때 조성) 복장부분을 파다가 큰 통나무가 드러나자 목부위와 왼쪽 팔꿈치까지 뜯어내 섬뜩하게 한다

전사법 개정안 국회통과

불교계 자율권 강화

전통사찰 경내지 가운데 전통사찰의 보호와 존엄 및 풍치보존을 위한 전통사찰보존구역이 전통사찰보존법에 신설됐다. 이에따라 앞으로 사찰주변에서는 불교이외의 목적을 위한 건축물 설치 및 변경 · 영업행위가 금지된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내용 3면〉

개정 전통사찰보존법은 △주지가 취임후 15일이내 문체부장관에 신고했던 조항이 삭제 △경내지의 양도, 대여, 담보제공할 때 문체부장관 허가 이전에 소속종단 승인 등 불교의 자율성과 소속종단의 위상이 강화됐다.

개정 전통사찰보존법은 문화체육부에 이관돼 6개월 이내에 시행령을 마련하고 그로부터 6개월후 발효된다. 한편 농지법과 자연공원법은 차기회기로 자동 이월됐다.

종교지도자協 17일 창립

의식개혁 · 청소년 선도등 6개분과위 구성

불교 원불교 기독교 등 6개 종교 최고지도자들이 주축이 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가 창립됐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지난 17일 코리아나 호텔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회칙안 확정, 각 분과위원회 구성, 공동대표회의 의장에 월주스님 선출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에는 월주 조계종 총무원장, 최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최근덕 성균관장, 조정근 원불교 교정원장, 김재중 천도교 교령, 한향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등을 비롯 6개 종교 최고지도자들이 참여한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각 종교의 근본이념을 바탕으로 사회의 올바른 가치관과 방향을 제시, 정신적 도덕적 토대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법국민의식개혁 추진위, 청소년 선도위 등 6개분과위원회를 구성 △학술회의 △종교예술축전 △도덕성회복운동 △건전사회봉사 △청소년선도 △통일대비 여건조성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이날 공동대표회의 의장에 선출된 월주스님은 "급격한 산업화로 생명경시 풍조, 물질만능사상, 도덕성상실, 환경파괴 등에 대해 종교계가 화합해 올바른 가치관을 제시하기 위해 창립하게 됐다"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법인도 설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각 종교대표지도자들은 그동안 종교협의회(회장 이재석), 통일민족광복회의(공동대표의장 월주), 종교인협의회(공동대표 지선스님 함세웅 신부 김상근목사 김현교무),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회장 김몽은신부) 등을 통해 활동해 왔다.

"조계종스님 72% 의무교육 안받았다"

최근 2년간 대상자 조사

지난 95, 96년 2년간 조계종 사미(니)계 수지자는 모두 914명이었으나 이중 기본교육기관에 입교한 수는 2백60여명뿐이어서 기본교육 미이수자가 7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교육원(원장 원산스님)이 종단 의무교육 미이수자 대책마련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사미는 모두 486명이나 동국대와 해인사 승가대학을 제외한 기본교육기관 입교자는 1백46명인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3백여명(60%) 이상이 기본교육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미니의 경우는 이보다 더욱 심각해 같은 기간 사미니가 428명인 반면, 동국대를 제외한 기본교육기관 입교자는 56명에 불과해 80%이상이 기본교육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림사 복장유물 도난

목부위 · 팔꿈치 훼손…관리 대책 절실

경주 기림사(주지 법일스님) 대적광전의 좌측 노사나불(보물958호 · 높이 3.3m, 폭2.5m)의 복장유물이 도난당했다. 97문화유산의 해를 무색케하는 첫 성보도난사건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의 허점이 노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범인은 흙 · 나무 · 종이로 빚어진 소조에 금물을 입힌 불상의 복장부분을 파다 큰 통나무가 드러나자 목부위와 왼쪽 팔꿈치까지 뜯어냈다.

복장유물의 내용물을 볼라 피해상황은 알 수 없으나, 지난 86년 대적광전 주존불상의 복장에서 금 · 은사경 14권과 부처님 진신사리 4과 등이 나온 것으로 미루어 이에 상응하는 성보가 분실됐을 것으로 수사진은 보고 있다.

대적광전은 지난해 12월부터 보수공사를 실시, 보안장치가 해제된 채 일반인들의 출입이 금지돼 왔으며, 신존불상은 훼손방지를 위해 나무관으로 가려진 상태였다.

경찰수사와 문화재관리국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조계종 총무원도 조사단을 급파해 조사하고 있다. 〈경주=이윤호 기자〉

선암사 관음전 불상 훼손

부산 선암사(주지 혜민)의 관음전 내 불상이 훼손되고 단상의 공양물 및 의식법구들이 파손된 사건이 지난 14일 오후 6시경 발견됐다.

선암사는 14일 오후 1시경 과천년 5명이 관음전 건물을 부셔버려야 한다고 의논하는 것을 들었다는 신도 문모씨의 증언을 바탕으로 부산진경찰서에 사건을 신고했다.



東國大學校僧伽總同門會

'97 정기총회 및 초청강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일념으로 제방에서 노심초사 정진하시는 동문제위의 원력에 항상 감사드리며 우선 지면으로나마 인사를 드립니다.

참 승가상으로 출발한 본 회는 이제 새롭을 맞이 하였고 2,000 동국승가로 발전 하였기에 한걸음 더 나아가 보다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금년도 정기총회 및 정치지도자 초청강연을 개최하오니 동문 제위께서는 동국승가의 만남의 큰 자리가 되도록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일시 : 1997년 3월 31일 (월) 오후 3시
장소 : 서울 소피텔 엠베서더호텔 볼룸(☎02-275-1101)
내용 : 1부) 정치지도자 초청강연 2부) 정기총회 3부) 저녁공양

사무실) 서울 종로구 내수동 167 대우복합동 1507호 ☎(02)736-6203 723-5264

동국대학교승가총동문회 회장 월 탄 합장

사 설

태고종 새 총무원장의 과제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제2의 종단인 태고종의 신임 총무원장이 취임식을 갖고 새로운 출발을 다졌다. 개혁불사로 바쁜 조계종과는 달리 태고종은 비교적 조용한 행보를 계속해 온 것이 사실이다. 내부적인 역량을 키우고 힘을 축척시킴으로써 종단의 내실화를 기해 온 결과인가? 아니면 침체의 국면을 벗어나지 못했던가?

이제 인곡스님의 총무원장 취임을 계기로 교화종단, 대승종단으로 새롭게 태어나길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은 과제를 풀어나가기를 제시한다.

첫째, 종단의 모든 제도와 조직을 시대에 부합되고 적응할 수 있도록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 구태의연한 종헌, 종법을 새롭게 정비하고, 정법에 의한 원칙과 기준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좀 더 열린 종단으로서 명실공히 사부대중의 의사가 종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부패하고 병들어 있는 곳이 있으면 과감하게 도려내는 자체개혁을 통한 몸부림이 필요하다. 종단의 폐쇄적 운영, 총무원 중심의 독단적 운영, 재정의 불투명성 등을 과감히 청산해야 한다. 민주성, 자주성에 바탕을 둔 조직의 활성화를 기대해 본다.

둘째, 지난 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조계종과의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여 새로운 한민족 불교공동체를 건설하길 바란다. 부처님의 제자들이 수행도량인 절을 놓고 대립한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고질적인 조계·태고 양대종단의 사찰분규를 하루속히 종식시키는데 지도력을 발휘하자. 원력을 세워 실천한다면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제 그만 절싸움처럼 비춰지는 분규를 끝내고 모든 수행자와 신도들이 안심하고 수행·정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새 총무원장 인곡스님도 이에 관하여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였으니 서광이 비치는 듯하다. 양 종단이 진정한 부처님정신으로 돌아가 손에 손을 맞잡고, 대화와 이해로 묵은 매듭을 풀기 바란다.

셋째, 나라와 민족, 사회와 역사 그리고 인류를 위하여 보살도를 실천하자. 사회와 대중을 교화하고, 보살정신·대승정신을 발휘해야 할 때이다. 불교수행은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심을 기르는 공부라고 하는 의미를 새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세속의 이기주의와 물질만능사상이 불교계와 수행자들에게까지 깊이 스며들어 있다면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불평등문제, 민족분단문제, 환경문제, 비인간화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앞장서줄 것을 당부한다. 동체대비의 보살정신을 구현하고 실천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는 공존·공영·공생의 길을 닦아야 할 것이다.

넷째,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기관의 설립 등 회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복잡다양한 현대사회 속에서 대중을 이끌어 갈 교역자와 지도자 양성을 위한 정규대학 또는 대학원의 설립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 필요한 인재를 부처님사상에 바탕을 두어 길러내는 불사가 중요하다.

다섯째, 태고종의 특징을 살려 재정적인 물적 토대를 좀 더 견고히 해야 한다. 경영진단과 평가를 과학적, 체계적으로 하여 재정을 재정비하고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우리가 살고있는 이 땅은 시장경제에 바탕을 둔 자본주의사회이기 때문에 아무리 무소유를 이상으로 한다 하더라도 물적 구조의 견고성이 요구된다. 종단의 재정적 뒷받침이 확고할 때 각종 불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불국정토를 앞당길 수 있다.

이번 태고종의 새 총무원장 취임을 계기로 몇몇 분규사찰이 안고있는 조계종과의 갈등과 대립이 해소되어 화합된 모습으로 한국 불교중흥의 깃발을 힘차게 펄럭이길 바란다.

열 린 마 당

방생 이대로 좋은가

봄은 방생의 계절. 올해도 방생장으로 향하는 대형버스의 행렬이 이어질 것이다. 방생은 말 그대로 억압된 생명을 해방시켜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경전에서도 방생의 뜻과 정신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방생은 오히려 생명파괴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되고 있다. 생명존중 사상의 실천이라는 본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참다운 방생은 무엇인가 알아본다. 〈편집자 주〉

'자연과 인간은 하나' 기복 탈피하자

법현스님 〈前 태고종 총무부장〉



불교의 기본사상은 주체와 객체가 분리될 수 없다는 불이(不二)의 정신이다. 방생도 얼핏 보면 더 가지고 있는 존재(인간)가 덜가진 미물(물고기 등)에게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세상 모든 존재가 수없이 많은 그물코처럼 중중무진의 관계속에 놓여있어 물고기나 나무, 풀 등 미물까지도 내 몸과 마음을 구성하는 요소가 될 가능성을 지닌 한 몸(同體)이다. 따라서 방생은 시혜가 아닌 내 몸에 대한 치료행위이다.

문제는 이러한 방생의 불교사상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 있다. 단순히 물고기만 넣어주고 주위까지 어지럽힌 채 복이나 빌도록 방치한 스님이나 신도, 뭔가 새로운 것을 해보겠다는 의욕이 앞서 경전과 전통속에서 권장하고 있는 것을 금지했다가 방침을 바꾼 단체 모두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무튼 방생은 불이(不二)의 정신을 실천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좋은 프로그램이므로 적극 실천해야 한다. 다만 이제까지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불교계와 환경단체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생태계지도를 작성하고 보충해야 할 어종 및 그 지역에 적합한 방생방법 등을 제시해서 환경도 살리고 인성도 살리는 본래 의미의 방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아울러 방생법회의 신앙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법회장 준비, 의식의 간소화 및 한글화, 방생장으로 가는 도중과 돌아오는 차안의 프로그램을 보다 다양하게 연구해야 한다.

"어종별 서식지등 생태계 정보 필요"

문태영 〈고신대 교수·생물학〉



방생을 생태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연에 새로운 또는 부가적인 생물을 도입하는 실제적인 인간간섭으로 그 결과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다. 따라서 방생과 생태학적인 지식의 결합이 요구된다.

보존생물학적으로 방생이 바람직하게 적용될 수 있는 한 유형은, 멸종위기의 종을 인위적으로 증식시켜 재도입하는 경우이다. 남한에는 약 145종의 민물고기가 살고 있다. 이 가운데 약 30여종이 멸종위기에 처해있는데, 이 종류들에 대한 관심이 방생시에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종의 집단이 감소되는 초기에 적절한 수의 개체들을 인공사육하여 재도입한다면 일단 쇠약해져가는 유전자군을 보완하여 예상치 못한 급격한 지역적 멸종을 지연시키는 예방조치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멸종요인이 외적인 것이라면 서식지를 보호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적인 조사가 전국적으로 선행되어 복원시킬 대상과 지역에 대한 정보가 시급히 확보되어야 한다. 즉, 생물기록센터나 생물자원보존관 등이 생겨 그 역할을 해주고 방생시에 필요한 정보를 공급하는 등 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국가적인 대책도 필요하다.

불교계는 방생이 국토를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생명의 삶터로 만드는데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 과학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방생의 신앙적 의미

보광〈동국대 교수·선학과〉



불교의식 중에는 다른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의식들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방생의식(放生儀式)이다. 교리적인 근거는 불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불살생계(不殺生戒)에 있다. 소승불교에서는 소극적인 불살생을 말하고 있지만, 대승불교에서는 이 사상을 더욱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십선계(十善戒) 중 하나인 방생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범망경〉에서는 "불자여! 자비심으로 방생업(放生業)을 행하여라. 그들이 지금은 어류이지만 모두 전생의 너의 부모이니라"고 한다.

그러므로 방생은 적극적인 대승보살의 실천행이며, 깨달음의 지름길이다. 이러한 방생사상이 〈금광명경(金光明經)〉에서 신앙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으며, 중국의 천태지자대사(天台智者大師)는 방생지(放生池)까지 만들어 신앙화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방생법회가 있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보면, 599년 신라 법흥왕이 살생을 금지하는 명을 내리고 민가에서 기르는 날짐승을 놓아주게 하고 고기잡는 도구를 불태우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

불살생계 중시 생명존중 자비 가르쳐
삼국시대 때 시작 … 천도의식도 함께

생명을 살려준다는 것은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 방생의식에는 어류나 조류 등 대상물에게 삼귀의와 오계를 주는 수계의식과 보리심을 발하게 하는 법문과 이미 죽은 영혼들을 천도하는 의식이 함께 행해진다. 이는 모든 중생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생명존중사상이 깔려있다.

그러나 의식의 집행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를 시정하면 되는 것이다.

최근 문화체육부는 불교계에 '방생법회 관련 협조요청'을 했다. 마치 불교의 방생의식을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매도하는 것 같아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오히려 방생의식을 좀 더 보완하여 범종단적인 차원에서 여법하게 치루어야 하며, 자연과 인간이 하나되어 생명을 존중하는 국민축제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다.

목어

문화재 도굴·훼손죄

"세상에 이럴수가…."

불자들은 복장물을 도둑맞은 기림사 불상사진을 차마 볼 수 없어 눈을 감거나 고개를 돌렸다.

흙과 종이로 만든 불상의 왼쪽 옆구리는 뚫려 있었고 철사가 보였다. 금옷은 흉하게 벗겨졌다.

불상은 성물이다. 성물을 겁없이 파손한 자들은 그 업이 얼마나 지중한지 알까 모를까. "만약 사람이 佛寶를 외면하면 무간지옥에 떨어진다(대교왕경)"고 했다. 귀의는 못할망정 불상훼손이라니….

기림사 불상은 성물인 동시에 문화재, 즉 성보다. 문화재에는 조상들의 얼과 숨결이 담겨있다. 문화재는 우리 당대의 것만이 아니다. 자자손손 대물림하면서 그 정신을 전해야 하는 후손들의 몫도 들어있다. 그래서 보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올해는 '문화유산의 해'다. 국민 모두 문화유산을 잘 지키고 가꾸자는 취지가 성보도난 앞에서는 무색할 수 밖에 없다.

돈이되는 일이라면 기꺼이 양심을 저버리는 이들이 날로 늘어나는 오늘의 세태. 그래서 'TV쇼 진품명품' 프로그램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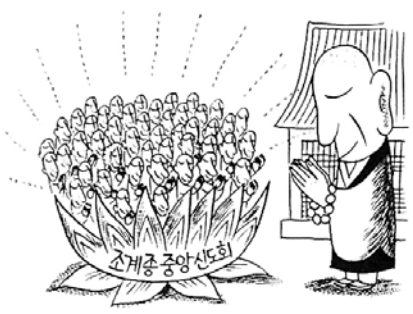
잘 지켜야 한다. 불상이 돈으로 보이게 되면 사찰의 문화재급 성보가 남아날리 없다. 잃어버리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지만 불교계는 수없이 성보도난을 당하고도 외양간 고치는 일에 소홀했다.

더구나 사찰의 성보는 예배물이기 때문에 누구나 접근이 쉽다. 도난방지에 무방비 상태라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불교의 성보는 불교만의 성보가 아니다. 국보이고 세계적인 문화유산도 있다. 물론 1차적인 보존책임은 그 주인인 불교계에 있지만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보존방법·예산 등을 함께 숙의해야 한다. 그리고 잃어버린 성보찾기에도 주력하자. 문화재 도굴·훼손범에게는 중벌을 내려야 한다. 지금 당장 '발등의 불'이 아니라고 문화유산의 값을 인식 못하고 그 보존을 뒤고 미루다 보면 우리는 문화전쟁에서 질지도 모른다. 문화가 국력이라는데 각성하자.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0691

현대만평

박구원



어려운 시기에 큰힘을…

봉선사 통신강원

통신강좌 전문의 불교공부

■ 스님을 위한 전문반
● 사미과 ● 사집과
● 사교과 ● 의전과

■ 재가불자를 위한 교양반
● 교리강좌 ● 경전강독
● 교양의식 ● 교양불교사

문의처 (0346) 68-1957
(교무과)

경기도 남양주군 진접읍 부평리 255

봉선사 불교전문통신강원
원장 金月雲

봉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융종 창종 16주년 기념법회
국가를 위한 기원대법회및 제3세 종정추대와 총무원장 취임법회

축

新春之節 高堂에 부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 종단에서는 창종 16주년 기념및 제3세 종정 靈山 一空 猊下 추대법회와 제 5대 총무원장 寶印 輔宇종사 就任法會를 아래와 같이 봉행케 되었기에 안내말씀 드립니다.

고 문 : 송산, 법목, 법신, 법운, 성운, 원영

봉행위원장 : 법륜
부위원장 : 성관, 보광, 체관
위 원 : 선식, 성도, 체의, 인담, 명허, 선덕, 진성, 성청, 체각, 풍원

준비위원장 : 화담
부위원장 : 선진, 정관
위 원 : 체원, 체도, 보각, 선혜, 묘정, 범수, 체혜, 체선, 선오, 세심, 청전, 현덕, 도혜, 연화, 진각, 진운, 정각, 천일, 보광, 진여, 진안, 보성, 법정, 보행, 보운, 진광, 보명, 법공, 진담, 천수, 세정, 원덕, 성옥, 청심, 도암, 혜명, 범행, 광혜, 원광, 일체, 선광, 도광, 정원, 진담, 불선, 법승, 삼매화

섭외위원장 : 운경
부위원장 : 성인, 무송
위 원 : 지화, 옥련, 경담, 명선, 정화, 진묵, 진월, 진향, 호일, 호범, 호선, 호산, 호인, 지운, 지성, 진선

후원회 위원장 : 정광
부위원장 : 원진, 체의
위 원 : 이용순, 최길례, 박용희, 원정희, 이인숙, 조금재, 김순혜, 김정애, 성덕화, 보현화, 최영순, 공덕심, 자혜원, 무량심, 묘원심, 안홍진

재무위원회 위원장 : 대월
부위원장 : 성도, 체인

■ 일 시 : 불기 2541년 3월 27일 오전 11시
■ 장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호텔 케피탈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융종 연락처 Tel)857-5094 Fax)859-1040

"사의표명 거둬주세요"

월하종정-총무원대표단 30분 면담 내용

조계종 종정사표와 관련 지난 17일 통도사 정변전에서 월하스님과 원로회의 총무원 증회 등 3기관 대표가 만났다. 이날 분위기를 관계자들의 전언을 통해 듣는다. 〈편집자 주〉



◇지난 10일 원로회의에 사표를 제출했던 월하스님을 17일 종단 대표단이 통도사로 방문 사의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17일 조계종 종정 월하스님이 주석하는 통도사 정변전. 면담 예정시간 5분을 앞두고 원로회의 부의장 벽암스님을 비롯 원로의원 도원, 도견, 청하 스님, 종회의장 설정, 기획실장 성광, 사회부장 능관, 호법부장 혜담 스님 등 10여명 스님이 정변전에 모습을 보였다. 스님들은 곧바로 월하스님을 친견했으며 긴장속에 면담이 30여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벽암스님(이하 스님생략): 어떠한 연유로 사표를 내셨습니까.

종정 "원로회의서 결정할 일"
총무원 원만해결 가능성 시사

월하: 내가 그만두려는 것은 현 집행부에 대한 불만때문이 아닙니다. 종정에 취임하면서 1년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표를 낸 것이지요.

벽암: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종단이 겨우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건강도 좋으시고 종도들 바람도 고려하셔서 사표를 거둬 주십시오.(종정사퇴서를 월하스님 책상위에 꺼내 놓음)

월하: 내 입장은 변함 없습니다. 사표는 이미 제출했습니다. 지금 현재 원로스님 가운데 종정할 스님들이 많습니다. 보다 많은 원로스님들이 종정 한번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설정: 종단의 안정을 위해서 사표를 철회해 주십시오. 이는 대중들의 뜻입니다.

월하: 내가 결재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종단의 안정에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혜담: 결재의 입장은 아니지만 종정스님의 위치는 한국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지대합니다. 이번 각 언론의 관심을 비추어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퇴서를 거두어 주십시오.

도견·도원: 대중의 뜻이 이러합니다. 사표를 거둬 주십시오.

월하: 사표를 수리하고 안하는 것은 원로의원스님들이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알았으니까 일어납시다.(일어나려고 하는데)

혜담: 종무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징계, 승려분한신고미필자에 대해 보고하자 종정스님은 사찰 땅은 절대로 팔면 안된다는 등 몇가지 사항을 지시했다)

성광: 발의된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 회기내에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월하: 꼭 통과되도록 해라.

월하스님은 이후 벽암부의장, 청하 부방장스님과 별도의 대화를 가졌다. 총무원은 종정스님이 "사퇴철회를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 불교관계법령 개정안의 국회통과 건으로 부득이 참석못한 것으로 알려진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금명간 통도사로 종정스님을 예방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앙종회 의장단·상임분과위원장들은 21일 오전 10시 종회차원에서 월하스님을 예방했다.

통도사=김중근 기자

국회통과 '전사법' 어떻게 달라지나

신설	제1조 6항: "전통사찰보존구역"이라 함은 전통사찰의 경내지 가운데 전통사찰의 보호와 존엄 및 풍치보존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9조의 2(전통사찰보존구역) 전통사찰보존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불교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불교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한 건조물 설치 및 변경행위 2. 영업행위 제12조의 2(청문) 문화체육부장관은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3조(전통사찰의 지정 및 등록) 1항: 문화체육부장관은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가진 사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사찰로 지정할 수 있다. 2항: 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사찰을 지정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당해 사찰의 주지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사찰의 주지는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전통사찰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항: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의 지정과 통지 및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허가사항) 1항: 전통사찰의 주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2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대표단체의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경내지에서의 건조물의 신축 증축 개축 또는 폐지 제9조(경내지의 보호) 1항: 전통사찰의 경내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수용·사용 또는 제한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문화체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항: 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전통사찰의 소속대표단체의 대표자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현행	제3조(전통사찰의 등록) 1항: 역사적 의의를 가진 사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찰은 문화체육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제6조(허가사항) 1항: 전통사찰의 주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경내지의 건조물 또는 경내지 사용의 폐지 제9조(경내지 보호) 전통사찰의 경내지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는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불교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제4조(주지의 신고등) 전통사찰의 주지는 그 취임하는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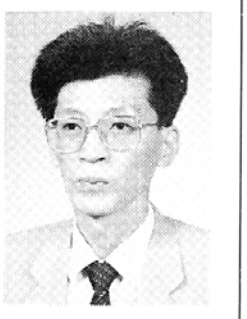
대통령의 아들

정치란 즐겁고도 값진 보살행인 줄 안다. 명리를 떠나서 중생의 안락처가 되며 중생의 귀의처가 될만한 보살의 보리심을 자비롭게 펼쳐 나간다면 얼마나 멋진 정치관이 될 것인가.

그런데 어찌된 셈인지 한국의 현주소는 정태수 한보 게이트와 김영삼대통령 차남 김현철 황태자 게이트로 청와대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고개를 들기조차 어렵게 돼 있다. 나라꼴을 궁지에 몰아넣기에 이른 현철문제는 대통령 가족만의 치욕으로 돌릴 수가 없다. 권력만능풍조가 빚은 사회세태의 자화상이다. 이처럼 일그러진 정치사회의 초상 앞에서 그 누구인들 자유로울 수 없다는데 비극의 심각성이 도사린다.

"적지않은 권력이 김현철로부터 나온다"는 여론이 한갓 요란스럽기만한 국회 청문회 개최나 김현철 사법처리 정도로 정상적인 해법(解法)을 기대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다.

앞으로 국회 조사특위에서 규명되리라 믿지만 김현철 게이트는 인사개입으로부터 축재에 이르기까지 의혹 투성이인데 이에 못지 않게 크게 우려할 일은 현철위에 그 누구도 있을 수 없었다는 특권남용의 국사범 혐의가 짙다는 점에 있다. 국정을 농락하며 무슨 일이든지 하면 되고, 또 짭짤한 위세를 부릴 수 있도록 부추긴 사회병폐가 '김현철 현상'을 초래한 것이 아닌가.



임 중 빈
〈인물연구소 대표〉

사회병폐 부추긴 사람들

권력만능은 황금만능으로 직통하고 가장 확실한 출세길이 여기에 의존해야 열리게 되는 이상 김현철 통로야말로 만능의 비상선이었을 법하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 결과 당정(黨政)의 정치역량을 뺨치는 '소통령 김현철'의 막후역할에 따라 소산인맥(小山人脈)이 각계에 형성됐을 것이며 "총리든 장관이든 문제가 있으면 말하시오. 내가 하루 이틀이면 해결할 수 있고 새 사람으로 갈아치울 수도 있으니까요"라는 투의 호기를 부리며까지 만능의 특권 그 몸체로 자못 화려한 시대를 누려왔다는 소리도 나올만하다.

결과적으로 김대통령은 불행한 역사의 주역이 되어 간다. 그래 아들 하나 단속을 제대로 못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막다른 벽 앞에 서게 될지도 모른다.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신분만으로 요직인사에 개입하고, 국가기관을 떡주무르듯 하며, 국고금이나 다름없는 거액의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민을 얼떨떨하게 하는 미시여구의 사과문으로 이제와서 의혹을 덮으려 한다면 너무도 분수를 모르는 처사다.

반야지혜로 해법 찾자

나라꼴이 말이 아닌 이 국가적 치욕을 씻으려면 장본인뿐만 아니라 권력지향 특혜지향의 주변부터 말끔히 청소되어야 하고, 이에 앞서 벼락출세나 꿈꾸는 떳떳지 못한 마음의 구름부터 걷어내는 반야의 지혜를 가다듬는데서 해법의 실마리가 찾아지리라 믿는다.

사조직을 운영하는 가운데 정계와 언론계, 관계와 재계를 막후에서 주름잡으며 기세등등 했다고 알려진 김현철 시대가 세상에 노출되면서 국민의 심판만 남게 되었다.

돌이켜볼때 역대 대통령의 자녀 그 누구도 해낼 수 없는 신출귀몰한 김현철씨의 등장은 대통령 후보였던 아버지의 득표활동에서 비롯되었다는 분석이다. 애당초 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아들이기에 지금까지 모든 암약이 묵인되어 올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소리들이다.

뒤늦게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임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과연 현체제에서 김현철 스캔들이 얼마나 추궁될지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그러함에도 전비(前非) 의혹에 대해 충분히 뉘우친 뒤에 평소 우수한 사고력과 뛰어난 순발력을 지닌 김현철에게도 국리민복을 위해서 크게 쓰여질 그릇으로 기회는 다시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때는 지난날 아버지 그늘아래 깃들여 살던 인물로서가 아니라 떳떳한 공직에서 역량을 아낌없이 발휘함으로써 국민 앞에 역사 앞에 진 빚을 보상하는 길이 열릴 수 있을지 모른다.

오늘에 와서 문민정부를 내세웠던 김영삼 정권은 민심에서 많이 일탈된 권력체제로 비쳐지고 있다. 여전히 사조에 사죄를 거듭하면서 심지어 아들을 국민심판대에 내놓기까지 해야하는 대통령의 정황이 나라의 앞날을 걱정스럽게 한다. 임기 1년을 앞두고 '유시유종'에 걸맞게 도덕성을 수범할 것인가 국민은 회향을 지켜보고 있다.

'참희의 삶'을 살자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인 환

연비하는 마음 늘 챙기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고 있든지 그 누구라도 평소에 알거나 모르는 사이에 작든 크든 전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다. 이유는 너무도 자명하다. 무심코 길을 걷고 있다보면 자신도 미처 모르는 사이에 디디는 발자국 밑에는 열심히 살고 있는 개미나 벌레들이 밟혀 목숨을 잃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로 인해 특히 불교에서는 참회의 정신과 의식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다.

불교를 믿고자 하면, 누구라도 먼저 수계의식을 통해 입문하게 된다. 부처님의 계법을 받아서 마음으로 새기고 그 계법에 의지해 살아가겠다는 맹서를 하는 것이다. 만일 계를 받지 않았다면, 아무리 불법이 좋다며 오랫동안 절에 다니거나, 불공을 드리고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진정한 불제자는 아니다. 그저 취향이 절을 찾는 일인 것이고, 단순히 기도꾼이고 불공꾼인 것이다.

이처럼 수계는 불자로 귀의하는 첫 단계이며 막중한 책무가 수반된 의식이다. 이 수계의식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바로 참회연비하는 순서이다.

참회연비는 더럽고 독한 것을 담고 있던 그릇에 깨끗하고 새로운 것을 담으려면 먼저 담겨있던 독한 것을 말끔히 비워 버려야 한다.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좋은 새것을 담아야 그것이 온전하다. 불교에 귀의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치이다. 이제까지 알게 또 모르게 지어온 많은 죄업을 남김없이 모두 진실로 참회한 뒤에 계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연비의식은 참회계와 참회진언을 일심으로 외우면서 팔에다 작은 심지를 태우거나 또는 향불을 받아든다. 팔뚝 위에 불을 놓거나 향불을 받아드는 의식에는 깃든 의미가 크다. 그것은 비록 팔위에서 아주 작지만 심지가 타면서 따끔한 것을 느끼며 참는 한 생각을 통해서 오랜 옛적부터 쌓아온 많은 업장을 모두 깨끗이 소멸하고자 하는 깊은 도리가 있다.

비유를 들어 보자. 아무리 산더미 같이 쌓아올린 잡동사니라도 그것을 하나 하나씩 치우려면 어렵다. 그렇지만 불을 한번 들이대면 그 순간 순식간에 활활 타서 없어진다. 이와 같은 도리이다. 불자가 되고자 하면 진정한 참회부터 해야한다. 또한 참회의 삶은 지계에서 비롯된다.

〈스님·동국대 명예교수〉

송광사 가사불사 모연문

세존께서 모든 부귀영화 떠나 출가하시어 비단옷 버리시고 사냥꾼의 남루한 옷을 받아 입으셨으니 이것이 출가사문의 법의인 가사의 시초였습니다.

한벌의 가사를 짓는 일은 한분의 부처종자를 심는 일입니다. 이름하여 "인간과 천상간의 최상의 복전(福田)"이라 합니다.

가사는 그냥 만들어 수하는 것이 아니라 법식에 따라 지어서 대덕스님의 증명하에 점안의식(點眼儀式)을 거쳐야 비로소 인천의 복밭이요, 지혜의 법기(法器)인 가사 한벌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 승보(僧寶)의 표상인 가사가 여법한 절차에 따라 작법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던차 조계총림의 전 방장 회광 큰스님과 사내(寺內)원로 대덕스님들의 뜻을 받들어 청정승보 도량인 조계총림 송광사에서 가사불사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이 불사는 청정 비구승단인 조계종(曹溪宗)의 모든 스님들께 한벌씩의 법다운 가사를 봉정하기 위해 불자 한가족 가사 한벌 짓기, 일만벌 가사불사의 원력으로 봉행하고 있습니다.

2천만 불자님들께서는 가정가정마다 불은(佛恩)이 충만하고 이웃의 화평과 복락을 염원하면서 기쁜 마음과 정성으로 동참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나무청정법신 비로자나불
나무천만보신 노사나불
나무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송광사 가사불사 동참안내

· 가사 1벌을 한사람 이름으로 동참하거나
· 가사 1벌을 전 가족 이름으로 동참하셔도 됩니다.
· 부득이 가사 한벌을 동참할수 없는 형편이면 동참 성금은 액수에 상관없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 동참금
▷ 가사 한 벌 동참금 30만원
▷ 가사불사 동참성금 : 액수에 상관 없슴.

■ 온라인번호
▷ 국민은행 : 551-01-0470-485(예금주 송광사)
▷ 우 체 국 : 501676-0014699 (예금주 송광사)
▷ 농 협 : 615107-008814 (예금주 송광사)

■ 문의처
· 본사 : 송광사종무소 (0661)755-0107~9
· 재무실/0661)755-5320
· 지역 : 서울분원 법련사/02)733-5322
· 대구분원 관음사/053)421-3700
· 부산분원 관음사/051)205-0069
· 여수분원 보현사/0662)62-5145
· 송광사 각 말사암
· 전국불일회 각지회
· 원주실/0661)755-5301
· 광주분원 원각사/062)223-3168
· 순천분원 대승사/0661)744-4902
· 부산분원 보덕사/051)518-7790
· 광양분원 보광사/0667)763-1192

불기 2541년 3월

대한불교조계종 제21교구본사 승보종찰 송광사 주지 현고 합장

주소 :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우: 540-930
종무소/0661)755-0107~9 재무실/0661)755-5320

법회안내

무진법장사(02)932-2333

일요학생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학생법회 매주 일 오후2시
청년회법회 매주 일 오후2시
지역청년법회 매주 목·금 오후2시

미타사(02)662-4736

산중기도 매월 1~3일(음) 오전10시
미륵기도 매월 8일(음) 오전10시
지장재일 매월 18일(음) 오전10시
철야참선 매주 토 오후10시

불암사(0364)65-8345

초하루·인등법회
매월 1일(음) 오전10시30분(3일간)
지장기도 및 108참회법회
매월 18일(음) 오전10시30분(3일간)
관음기도 매월 24일(음)
오전10시30분(3일간)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051)402-7077

정기법회 매월 첫째 일 오전11시
신업신도교육 둘째 일 오후2시
특별정진법회 1·15일(음) 오전11시
특별철야정진 2·4주 토 오후10시
목요신행회 2·4주 목 오전10시
청년회 매주 수 오후7시
중·고학생회 매주 일 오후7시
어린이회 매주 일 오전11시

해인사 대전 포교당
(042)253-7854

정기법회 및 산중기도
매월 1~3일(음) 오전10시
보은전법일 매월 8일(음) 오전10시
보은염불일 5일(음) 오전11시
호법정진기도 29일(음) 오전10시

직지사(0547)436-4317

거사불법회 매월 셋째 일 오후2시
관음화법회 19일(음) 오전10시30분
지장화법회 18일(음) 오전10시30분
청년화법회 매주 토 오후6시
중고생법회 매주 토 오후3시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단체는 전화(02-722-4162) 팩스(02-737-3698)로 연락바랍니다.

"종단협조 자율운영 조화이룰 터"

조계종 중앙신도회 송재건 초대회장

"중앙신도회장이라는 자리는 삼보를 외호하고 신도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야 하는, 그야말로 성인의 경지에 이르지 않고서는 수행하기 어려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난 15일 조계사대웅전에서 봉행된 조계종중앙신도회 창립법회에서 초대회장으로 선출된 송재건씨(중원실업 대표)는 스님과 불자들의 협조를 바란다는 말로 선출소감을 대신하면서 이후 중앙신도회 운영방안을 밝혔다.

"전국신도회와는 머지않아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미 대의원을 배정하고 박완일 전회장을 고문으로 추대했습니다."

송회장은 "회장을 비롯한 몇몇 사람에 의해서 운영되는 신도회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회비납부제도의 정착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회장은 또 "중앙신도회의 기틀이 마련되기까지는 1~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 때까지는 얼마가 됐든 운영비를 부담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신도회와 총무원과의 관계설정에 대해 송회장은 "스님들이 없는 신도단체는 있을 수 없다"며 "일반사회단체처럼 인식될 수 있으므로 중앙신도회의 법인화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송회장은 또 "95년부터 회장직 제의가 있었으나 자질이 없다고 판단해 번번히 사양하다 총무원과 공동으로 신도회를 운영한다는 약속을 받고 회장직을 수락했다"며 "정치권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서울홍은동 옥천암과 직할교구 신도회장이기도 한 송회장은 69년 수덕사 조실스님이던 혜암스님으로부터 신도5계를 수지했으며, 매일아침 20분씩의 기도를 생활화하고 있다. 법명은 법성(法性).

정성운 기자



태고종 총무원장 인곡스님 취임식

태고종 제18대 총무원장 인곡스님 취임법회가 지난 19일 백련사에서 열렸다.

취임법회에는 보성 태고종 종정, 덕암 선암사 방장, 금담 종회의장, 원서(종단협 상임부회장)스님 서석재(국회정각회장), 함종한(신한국당 불교신도회장) 조성준(국민회의 연등회 간사), 박철언(자민련 불자회장)의원과 김종민 문체부 차관 등 7백여명이 참석했다.



대전 서구노인복지관 개관

대전 서구노인복지관(관장 도영스님, 금산사 주지)이 지난 15일 현수스님(대전사암련 회장) 홍선기 대전시장 이인구의원 이현구 서구구청장 이용권국장(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지역노인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했다.

초대관장 도영스님은 "노인전용 이용시설로서 재가복지 보건의료 사회교육 상담 일감 찾기 사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대구경불련 창립대회

대구 경실련내의 불자모임인 대구경불련이 지난 15일 진각빌딩 7층 문화회관에서 회원 40여명등 사부대중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됐다.

이자리에는 강인성 준비위원장(진양산업 대표)이 초대회장에, 고문에 김명한씨(대구경실련 집행위원회 의장)가, 부회장에 김재현씨와 오동춘씨가 각각 선임됐다.



불국사스님 '1m 1원' 동아마라톤 동참

불국사스님 9명이 지난 16일 경주에서 벌어진 동아국제마라톤대회에서 자비의 레이스를 펼쳤다. 자성(총무국장) 혜원(사회국장)스님 등은 백혈병 어린이 돕기 '1m에 1원' 성금 모금을 겸해 벌어진 동아마라톤 마스터즈대회에 참가했다.

종무소 선원 강원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스님들은 총 15만원의 성금을 모금하여 주최측에 전달했다.

교차로

정치지도자 초청강연



월탄 동국대 승가총동문회장 스님은 오는 31일 오후3시 쇼피텔 엠베서더호텔 볼룸에서 '97 정기총회 및 '21세기 정치와 종교'를 주제로 정치지도자 초청강연회를 개최한다.

다보법회에서 설법



혜담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장스님은 26일 오후2시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열리는 3월 다보법회에서 법문한다.(02)703-0108

학생 21명에 장학금 전달



원행 삼화사 주지는 지난 16일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고 문봉수군(묵호중1) 등 26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지방고시 합격자에 특강



송석구 동국대 총장은 지난 25일 수원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제1회 지방고등고시 합격자 신규임용자를 대상으로 '지금 이순간 우리 한국인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했다.

불교대구교육원 9돌 법회

태일 불교대구교육원장스님은 지난 21일 대구 고려예식장에서 개원 9주년 기념법회를 개최했다.

한국불교㈜ 창립 23돌 법회

정병조 (사)한국불교연구원 원장은 오는 4월 5일(사)한국불교연구원 법당에서 제23주년 창립기념법회를 봉행한다. 한편 지난 15일에는 '정병조교수 부총장 취임 및 불교강좌 출판기념회'가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렸다.



해군 군종감 취임



강남석 법사는 최근 해군 군종감에 임명돼 오는 4월 13일 계룡대 호국사에서 취임법회를 갖는다.

오늘의 미술가상 수상



김영선화백(42·한마음선원 신도)이 월간 〈미술시대〉가 제정한 제4회 '오늘의 미술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씨는 모시베 수묵 염료 등을 소재로한 '윤(輪)-지금우리는' 연작작업으로 한국화의 다양한 형상성을 제시해왔다.

"신도 참여하는 각종 사업 전개"

진각종 총금강회 박종태 회장



"신도회 단합에 총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또 종단내 복지법인을 만들어 사회복지 사업도 펼 계획입니다"

지난 11일 진각종(통리원장 락해) 총금강회(전국신도회) 제3대 회장에 취임한 박종태(64세)씨는 커다란 목적 보다는 모든 신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발굴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복지법인 구상도 이와 관련된 것으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이를 통해 종단과 사회를 연결하는 교두보를 삼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또 "종단발전 도모와 화합은 물론 각종단과도 협력하는 계기를 만들고 싶다"는 소망도 덧붙였다.

박종태회장은 현재 (주)고려알람주식회사 회장과 남북통일촉진회 최고위원 등을 맡고 있다.

한명우 기자

강남포교원 출가-열반절 강건기교수 특강



부처님 출가절-열반절을 맞아 강남포교원(원장 성열)은 지난 20일 강건기교수(전북대)를 초청 '새로운 문명의 전환과 불교'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열었다. 강연내용을 발췌해 중계한다.〈편집자 주〉

오늘날 세계는 겉으로는 물질적인 성취로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게 되었지만, 속으로는 인류의 파멸을 초래하는 심각한 환경·생태계 문제 등을 야기하게 되었다. 이 100년내에 파멸에 이를 것"이란 놀라운 결론을 담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가 발표된지 25년이 지났지만 적절한 제동을 걸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지구 온난화 현상과 오존층·생태계 파괴 등의 환경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불교생명사상으로 지구파멸 극복을"

그렇다면 병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다름아닌 현대문명이 표방하는 서구적 휴머니즘이다. 나와 남, 나와 다른 생명, 나와 자연을 분리하는 인간중심주의이다. 이러한 물질문명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 인간과 자연을 하나로 보는 불교의 '생명주의'가 필요하다.

는 인간과 자연, 인간과 다른 생명으로 나눠 정복과 착취를 일삼는 인간중심주의의 이원적 세계관에서 비롯되었다.

인류의 미래를 염려하는 세계 지성들은 한결같이 '오늘날 인류는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한다. 美 MIT 과학자들이 1971년 로마클럽에서 발표한 '성장의 한계'란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의 산업성장이 앞으로 10년내에 제동이 걸리지 않는다면 지구는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본부 모금 현황

△발 한공기 나누기운동 3,232,000원 △(사)우리는 선우 2,000,000원 △성륜사 2,000,000원 △김태희 10,000원 △김경욱 100,000원 △우정 80,000원 △마경숙 100,000원 △은여봉 30,000원 △김상식 50,000원 △김명호 20,000원 △정진영 30,000원 △서중연 30,000원 △이영옥 12,000원 △임찬혁 20,000원 △이진희 15,000원 △손옥순 100,000원 외 5명

〈19일 현재 총 132,672,001원〉

· 후원금 접수 (02)3672-5373
· 국민은행 818-21-0179-960
예금주 : 최석호(우리민족 불교운동)

게시판

순례 땅끝마을 기행=부산 불교교육원(원장 성재도)은 '봄과 꽃과 나무 그리고 바다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4월 5, 6일 해남 땅끝마을, 보길도, 욕소암 등을 답사한다.
(051)466-4080

운주사 답사=법명사 부루나포교원(원장 김재일)은 오는 30일 화순 운주사를 순례한다. 아침 6시 포교원 앞에서 출발하며 회비는 2만원.
(02)571-9741

도갑사 기행=정광사(주지 송암)는 오는 4월 13일 오전4시 도갑사, 월출산 등지로 정광 바라밀 국토순례를 떠난다.
(02)598-5291

강좌 물교신행학당=석왕사(주지 영담)는 '불교신행학당' 초급반을 개설한다. 강의는 4월 1일부터 6월 27일까지 매주 수·금 오후2시.
(032)663-7771

모집 학습지도 교사=개금사회복지관(관장 범산)은 초등학생 학습지도교실 교사를 모집한다. 정규대학 졸업자 및 경력자. (051)893-5034

알림 동국대 경주 불교학과=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과 동문회(회장 대혜스님)는 4월 5일 오후3시 정각원에서 학과개설 10주년 기념법회를 갖는다. (0547)436-3799

주말농장 분양=부산 선암사(주지 혜민)는 백양산 중턱에 자리한 2천여평의 주말농장을 불자가정에 분양한다.
(051)803-7573

묘목 3만그루 무료배포=나라사랑 무궁화가꾸기 범국민운동본부(위원장 김정록)는 25일~4월 5일까지 동방원예종묘 나무전시장에서 묘목 3만그루를 무료배포한다. (02)875-9340

이전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사무실을 서울시 중구 정동 15-5 정동빌딩 신관 2층으로 이전했다. (02)752-8191

대한불교연화회가 사무실을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19호 원당빌딩 3층으로 이전했다.
(02)732-9618

생활 속의 불교 115

채워지면 비워라. 비우면 또 채워진다.

"우리들의 살림살이는 흐르는 물과 같다. 도도하게 흐를 뿐이니 담아 둘 것이 없다. 그대로 여여할 뿐이다. 걸음걸이를 보라. 한 발짝 내딛으면 뒷 발짝 없어지고 또 한 발 내딛으면 또 한 발 없어진다. 떼어놓은 발자국을 아쉬워하면서 걷는 사람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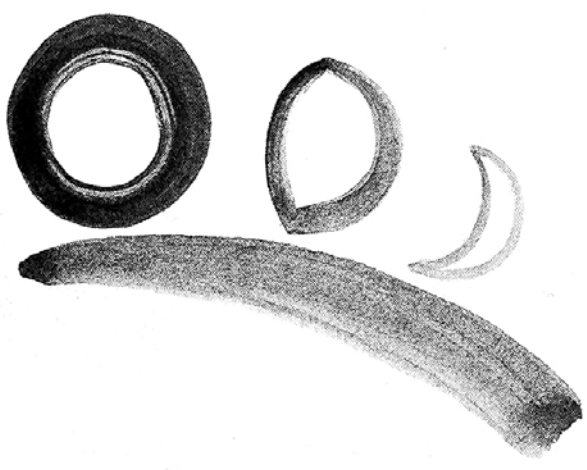
우리는 본래 그렇게 놓고 간다. 먹으면 배설해야 하고 일이 닥치면 닥치는대로 겪으면서 흘러간다. 보는 것 듣는 것도 다 그러하다. 마치 물이 흐르듯이 그렇게 흘러간다.

그런데 흐르는 것을 못내 아쉬워하고 붙잡으려 한다면, 집착한다면 그대로 마음의 짐이 되어 업으로 남는다. 흘러가질 못하고 내 마음의 때로 남아 떨어지질 않는다. 그래서 오직 놓고 가라고 하는 것이다."

흐르는 물은 앞서거니 뒷서거니 자리를 다투지 않는다. 그냥 흐를 뿐이다. 흐르다가 막히면 돌아서 가고 흐르다가 갇히면 채워서 넘쳐 흐른다. 때로는 급하게 흐르다가 또는 쉬엄쉬엄 흐른다. 빨리 간다고 뽐내지 않고 늦게 간다고 안타까워하지 않는다. 오직 흐름 그 자체일 뿐이다.

옛 사람들은 그래서 물 같은 삶을 으뜸으로 여겼다. '청산은 날 보고 산 같이 살라하고 녹수는 날 보고 물 같이 살라하네' 하고 읊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게 사는가. 물 같은 삶은 바보같고 덧없는 삶으로 여긴다. 가능하면 내 곁에 잡아두고 나를 위한다는 생각에 흐름을 거슬리려 한다. 재물을 쌓고 자리를 다투고 모든 흐름이 나의 바람을 따라 좌지우지 되어야 한다고 고집한다. 그 때문에 우리는 다툰다. 싸우고 경쟁한다. 그 때문에 우리는 미워하고 탓을 한다. 때로는 자만하고 때로는 괴로워한다.



우리들의 삶은 대체로 '내 논에 물을 대는 노력'과 다르지 않다. 우리들이 공인하는 능력이란 대개 아전인수(我田引水)하는 능력을 말한다. 자연스런 흐름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가능한 한 물꼬를 넓혀서 내 논에 많은 물을 대고 그것을 가두어 두는 것을 유능하다고 한다. 나아가서는 그런 일들을 자못 인간적인 일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처구니없게도 폭력·술수·증오·전쟁에 대해서조차 명분을 붙여준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이라는 이름으로 탐욕을 당연시하고, 탐욕을 가르치고 이를 심화해 나간다면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되겠는가. 결론은 뻔하다. 집단을 기준으로 본다면 경쟁은 투쟁으로, 투쟁은 전쟁으로, 전쟁은 동족상잔, 인종청소로 확대되어 갈 것이다. 개인을 기준으로 본다면 경쟁은 증오로, 증오는 술수로, 술수는 폭력과 범죄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는 마침내 만인이 만인(萬人)과 싸우는 사회가 되고 말 것이다. 사랑과 자비는 퇴조하여 마침내 불치의 단계로 빠져들고 말 것이다.

계속해서 먹기만 할 수는 없다. 무한정 먹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먹었으면 배설해야 하고 먹을 만큼 먹었으면 멈춰야 한다. 계속해서 숨을 들이 쉴 수 만은 없다. 들이 쉬었으면 내 쉬어야 한다. 흘러드는 물도 무한정 잡아 가둘 수는 없다. 흘러들였으면 그만큼 흘려 보내야 한다. 잡아 가두면 썩거나 터지게 된다. 그것은 순리이다. 조금도 특별할게 없는 평범한 진리이다. 고로 우리의 노력이란 그런 흐름을 타는 것, 그런 흐름에 순응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흐름과 함께 흘러가는 것이 우리가 노력해야 할 내용이다. 그렇게 가는 것이 이른바 능력있는 삶이 된다. 먹기만 하는 것, 들이 쉬기만 하는 것, 잡아가둘 줄만 아는 것, 그것은 잘하는 일도, 능력있는 삶도 아니다. 그것은 착각이요 탐욕일뿐이다. 인생의 오류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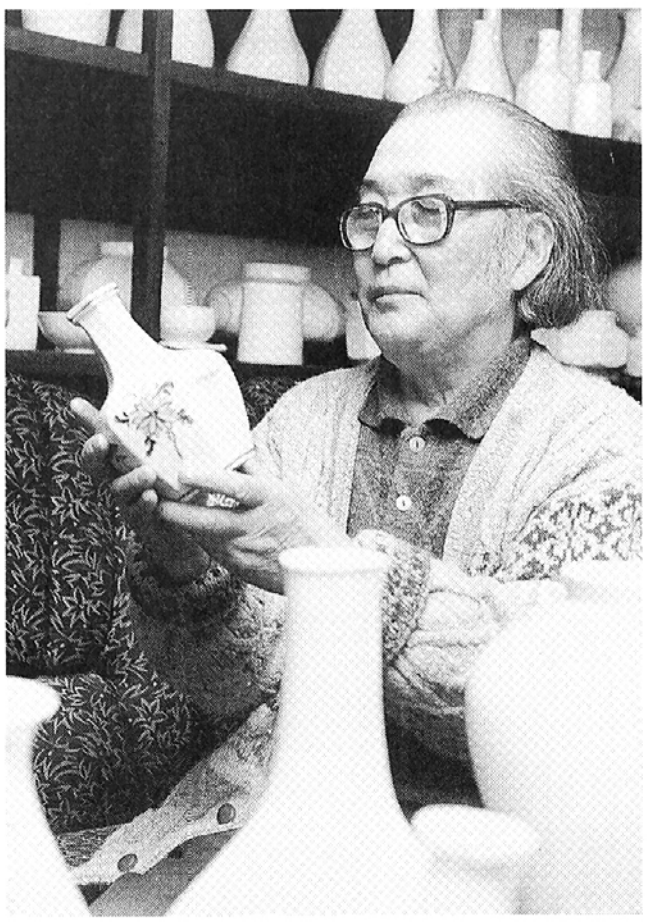
물은 빈 자리를 메우며 흐른다. 가두지 않고 흐르게 내버려두면 흘러나간 만큼 흘러들어온다. 재물도 물과 같고 권력도, 명예도, 나아가 건강까지도 물과 같다. 물처럼 흐르는 삶이 여여한 마음이다. 비우면 채워지고 채워지면 비우는 게 바른 삶이다. 묶이면 썩는다. 썩으면 고통밖에 남는게 없다.

협찬 : 故 오 순 탁

"흙으로 진실 빚고 지혜 구워요"

산문밖의 禪

도예가 한익환 翁



"도자기에 내 영혼 넣는다고
그 많은 세월 부셔 깼지만
흙의 참맛 알게 되면서
인간의 길 깨닫게 되었다"

달아 달아
십오야(十五夜) 둥근 달아
조선의 달 항아리
조선의 대호
그 언저리를 흐르는
소박한 흐름의
수더분한 향내
설익은 듯
모란이 풍기는
온화한 맵시
조화로운 불이(不二)
그
고요속에 파묻힌
조선의 큰 항아리
—한익환 詩 '조선의 달 항아리'

옅은 청색이 배어나는 조선백자 특유의 백색을 복원하기 위해 한평생을 코낸 원로도예가 소정 한익환옹(75). 백색이 가진 순수함에 빠진 칠순 도공의 얼굴이 질박한 항아리를 닮았다.

"흙을 구우면 거짓이 없습니다. 흙은 진실합니다. 누르면 나오고 파면 들어가고 이 흙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는 작품을 만들죠. 또 담백하고 온화한 맛과 멋에서 조화로움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흙에 충실하면 담백한 맛이 나오고, 형의 유선(流線)이 멋이 날때 온화한 감을 얻는다고나 할까요."

작업에 임하는 이같은 그의 신념은 최근 〈도자단상〉이라는 한권의 두툼한 시집으로 출간돼 눈길을 끌고 있다. 장인의 정신이 인생이란 물레를 통해 걸러놓은 소담스런 시집은 '영원한 도공'으로서 날마다 하나의 화두를 풀기 위해 안간힘을 쓴 그의 결정체이다.

"도자기에다 내 영혼을 넣는다고 / 그 많은 세월을 부셔 깼지만 / 언제부터인가 흙의 참맛을 알게 되면서 / 침묵의 스승 자연을 알게 되었고 / 자연을 알게 되면서 인간의 길을 깨닫게 되었다 / 한잎 잎새와도 같은 도공(陶工)의 꿈 / 도자기에다 내 하찮은 영혼을 넣는다는 것이 / 어느덧 흙의 영혼이 내 속에 들어와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대표작 〈도자단상〉의 전문이다.

조선백자는 시대에 따라 형태와 기선(器線), 백색이 변해 가면서 그 아름다움을 이어왔다.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조선백자의 전통 속에는 그 아름다움을 지켜내려는 한옹의 끈질긴 재현의 노력과 흙과 바람과 물 등 자연을 사랑하고 거기에 순응하는 노(老) 도공의 정신이 녹아있다. 초벌구이한 백자에 발려진 유약이 섭씨 1천3백도 이상의 고온에서 녹아흘러 순백색을 내듯이.

한옹은 1948년 대한도기주식회사 이사장의 권유로 도자기술원 양성소에 들어가면서 도공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후 서울의 중앙공업연구소 요업과를 거쳐 同 연구소에 개설된 상공부 주관 고등기술원 양성소에서 요업과 과정을 마침으로써 기초를 다졌다.

한국전쟁 이후에는 전국 각지의 도자기 제작회사에서 7년여동안 기술책임자로서 생활도자기를 연구, 실험하기도 했다. 그러다 한 골동품점에서 조선백자를 접하면서 전통백자의 여유롭고 단정한 형태, 색의 아름다움에 매료돼 익요(益窯)를 열고 전통백자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조선백자 특유의 백색을 복원하기 위해 도자기 기술자로서 탄탄대로의 미래를 보장받았던 직장을 내팽겨쳐 버린 것이다.

자연 스승삼아 반백년 '백자재현'
유약·안료등 독특한 배합방식 터득
흙과 나 하나될때 작품 생명력 있어
"평생 가마불 곁에서 무념무상 공부"

피땀는 노력의 결과일까. 그의 가마에서 영혼으로 빚어내는 한옹의 백자는 조선백자와 형태가 같음은 물론 그 빛깔도 뒤지지 않아 옅은 청색을 뚫고 나오는 백색이 깊고 청아하기 그지없다는 평을 받고 있다. 코발트 안료를 사용하는 청화백자의 색도 조선전기나 중기백자 청화색과 견줄만 하다고 자타가 인정한다.

이는 수십년동안 조선백자를 연구하여 흙, 유약, 안료의 독특한 배합방식을 터득한 결과다. 한옹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연인과의 끝없는 대화로 여긴다. "너의 가슴을 나의 품안에 끌어안는다/ 내 마음의 편안함이어라/ 그대 이름은 조선의 백자 나의 청백자…."

물레를 돌리고 문양을 새겨넣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 온 한옹은 한번 자리를 틀고 앉으면 작업이 끝날 때까지 전혀 움직임없는 진지한 모습으로 옹골찬 장인의 모습을 보인다.

"조선백자는 도자기마다 다른 여성적인 부드러운 선과 남성적인 강인한 선, 청색을 머금은 조선백자 특유의 아름다움은 많은 것을 느끼게 하지요."

조선백자는 평범의 미덕을 보여준다. 탐욕과 어리석음에 대해 무언의 교훈을 준다. 또 무심히 빚어낸 천연스런 곡선은 너무나 순정적이어서 마치 인간이 본래 지니고 있던 가식없는 어진 마음의 본바탕을 보여주는듯 해 그는 보고 또 보며 마음을 순화시키곤 한다.

"수더분한 조선의 아낙인듯, 굳은 지조의 선비인 듯, 꾸밈없는 백자의 세계. 구중궁궐의 왕조로부터 사대부, 순박한 서민에 이르기까지 5백여년동안 조선백자는 이땅의 모두와 함께 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평범함'의 미덕에서 비롯됐다 할 수 있죠."

'열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말처럼 잘된 작품 못된 작품 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하나의 완성된 작품으로 인정하는 한옹의 여유자적이 들여다 보인다. 이는 평생동안 가마불을 때고 흙을 만져오는 동안 무념무상하는 공부를 차곡차곡 쌓아온 수행의 덕분일까.

한옹은 요즘 서울 인사동과 관훈동 고미술점을 자주 찾으면서 도자인생 반세기를 총정리할 개인전시회를 구상하고 있다. 그리고 봄이 완연해지면 시집을 내느라 한동안 찾지 못했던 가마에 불을 댕겨 '도자단상'이 새겨진 백자를 또 구워낼 것이다.

도필선 기자

특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문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한 친구로부터 마음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도 공부하리라 마음 먹은 날, 꿈에 한 스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 스님께서는 산 꼭대기에 있는 옛 절 터로 나를 데려가 촛불 오백개를 밝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틀 후에 집사람이 내게 마음공부를 하자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몇이 모여 스님 설법의 녹화테이프를 구해 공부하게 되었는데 그때 화면을 통해 처음 뵙게 된 스님의 모습이 꿈속의 스님모습과 같아 너무도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또 알 수 없는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소장하고 있는 수석 중에 하나를 일년 전에 어느 절에 맡겨 놓았는데 중간을 절단하여 위 아래를 따로 보관하였다가 기한이 되면 서로 맞춰서 꼭 맞으면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윗부분을 보관했는데 마침 맞추어보니까 아래 위가 딱 맞아 그걸 찾아다가 진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수석에서 붉은 색의 연꽃 한 송이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비록 꿈이지만 내용이 특이한 것 같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여쭙니다. 〈최중호·경북 구미시 송정동〉

답 예전에 이성계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까마귀가 울고 거울이 와르르 깨어지는가 하면 마당을 내다보니까 꽃이 우수수 지고 대문에는 허수아비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성계는 심히 불길한 꿈인듯 싶어서 무학대사에게 해몽을 부탁했더랍니다.

무학대사의 꿈 해몽은 이러했습니다.

까마귀가 까옥까옥 운 것은 명성을 크게 떨친다는 뜻이고 거울이 와르르 깨진 것은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뜻이며 꽃이 졌으니 곧 열매가 열릴 것이다. 때문에 허수아비가 매달린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올려다 볼 징조라 필시 새 왕조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꿈에 겪은 일들을 뭔가 특별하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꿈과 생시가 다르지 않습니다. 눈뜨고 이것 저것 떠오르는 생각이나 꿈자리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지는게 다 전자의 업식으로 인한 것이니 그대로 내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공부를 한다고 할 때에 어떤 경계가 다가오면 그게 다 주인공의 나툼이니 그때마다 한 생각 돌려 놓고가야 한다고 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설사 꿈에 머리 푼 귀신을 보았다 할지라도 되돌려 놓으면 그뿐입니다. 가령 귀신을 봤다 해서 종일토록 불길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정말로 불길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좋게 생각해서 놓는다면 한 생각의 힘이 좋게 작용할 것입니다.

무학대사가 한 해몽이라는 것도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고 이성계가 불쾌한 생각을 하니까 좋은 쪽으로 돌려서 그냥 한 생각 일으켰던 것입니다.

처사님의 꿈을 굳이 해몽하자면 이제 과거의 공부인연을 따라 다시금 공부할 인연이 되었다는 뜻이고 이 공부야말로 위 없는 도리이며 세상을 환히 밝히는 법으로서 처사님 개인적으로는 위로 조상의 묵은 빚을 갚고 아래로는 자손에게 빛이 된다는 뜻입니다. 또 수석을 아래 위로 맞춰 연꽃 한 송이가 피어올랐다는 것은 이 마음공부란 상체만 있고 하체가 없어서는 안되는 공부로서 전자의 의식과 현재의식이 부자가 상봉하듯 딱 계합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처사님께서 더 좋은 뜻으로 풀이하면 그것도 좋습니다. 다만 그런 꿈도 생각도 다 주인공 자리에서 나온 것이니 거기에 다 맡겨 놓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꿈이 생시요 생시가 꿈입니다.

사람다운 본성 잃는것 같아

문 요즘 사람들은 백이면 백, 거의가 다 물질에 얽매여 사람다운 본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의 병을 고칠 수 있고 자기를 돌아다보는 계기를 만들 수 있겠는지요.

〈송재룡·경기 고양시 행신동〉

답 이 인간 세상은 어디를 보아도 공생이요 공용, 공식이요 공체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너, 나를 갈라놓고서는 한 30%쯤 남을 인정한다고 할까, 한 70%는 저 잘되기만을 바란단 말입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규정을 지어서 자신을 그 속에 가둬놓고 항상 제 소견으로만 세상을 살아갈려고 하니까 이게 진리에 순응이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수레가 길을 따라 가지 않는다면 온통 요동을 칠 수 밖에 없고 때로는 바퀴살이 부러져 그만 주저 앉기도 할 것입니다. 세상사는 일이 온통 고통이고 육신도 성하지 않는 까닭은 바로 진리에 순응하지 않는데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그걸 면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구덩이에 몰아 넣는 짓을 그만 두어야 하겠지요? 너와 나, 나아가서는 만물까지 포함해서 공심으로 공용·공식하며 공생한다면 그대로 공체이니 마음으로 무한의 묘용을 나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제 소견에 갇혀서 탐욕이나 부리고 남을 사랑하기는 커녕 미워하고 배척하려 한다면 그런 생각이 낱낱이 내 컴퓨터에 입력이 되었다가 그게 현실로 되돌아 나오며 나를 친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업이라 하지요. 그래서 여러번 말하지만 모름지기 둘이 아니다 하면서 나오는대로 놓고가라 하는 것입니다.

지상상담 —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 (02)722-4162 팩스 : (02)737-0698

1997학년도 범음대학 신입생 모집요강

1969년에 설립한 옥천범음회로부터 1987년 대한민국중요무형문화재 영산재보존회로 지정이 되어 불교교역자의 의전의 전문성과 정통성을 높이고자 다음과 같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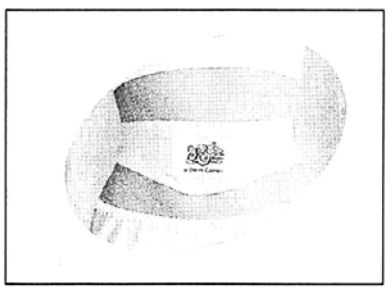
1. **모집내용 :** (1) 1학년 상주권공과 신입생 ○○명 (교수: 조인각 스님)
(2) 2학년 각 배 과 편입생 ○○명 (교수: 이기봉 스님)
(3) 3학년 영 산 과 편입생 ○○명 (교수: 한동희 스님)
(4) 연구과정 범음과(짓소리) ○○명 (교수: 박송암 큰스님)
(5) 초급 단기과정 3개월 ○○명 (교수: 이기봉 스님)
(목탁, 징, 북 치는 법, 도량석, 복청게, 천수바라, 도량게나비춤 등 특별강의)
2. **교 수 진 :** 박송암큰스님 직강
3. **응시자격 :** 승려, 교역자, 특별히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4. **전형방법 :** 서류전형
제출서류 : (1) 입학원서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승적증명서 1부
(4) 반명함판 사진 5매, 증명사진 3매
5.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7년 3월 26일 ~ 4월 10일까지**
6. **원서교부 및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 봉원사 내
범음대학 교학처 (02) 392-3007~8
7. **합격자 발표 :** 1997년 4월 12일 발표, 개별통지
8. **특 전 :** (1) 졸업생에게는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준회원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 지정을 받을 수 있다.
(2) 범음연구생으로 우선 채용함.

1997년 3월 26일

대한민국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범 음 대 학
120-1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 봉원사 內
☎ 392-3007~8, FAX 393-9450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를 사용해 보세요!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향비를 사용한 체험담

■ 두통 · 생리 (송파구 이 남 숙)

저는 20년이 넘도록 두통으로 고생하였습니다.
하루도 아프지 않은 날이 없어서 여러가지 치료방법을 다써 보았지만 별효과를 보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던차 아는분을 통해서 향비라는 조그마한 팩을 배꼽에 차며는 모든것이 좋아질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착용했습니다. 3日이 지나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지기 시작하더니 정말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생리도 불순했는데 생리도 정상이고 색깔도 너무 맑고 깨끗해져서 나 자신이 놀랄정도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드셔서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신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있다.	( )
18. 당뇨와갑상선으로통받는다.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제품문의 : (株) 고려물산,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2) 755-9821,080) 200-4545

"原典 오역 여과장치 필요"

이재호교수 '출판문화의 난맥상' 논문 발표

최근 삼국유사와 삼국사기 등 고전 번역물중 오역된 곳이 허다하다는 원로 학자의 지적이 화제가 되면서 원전(原典)의 오역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한 해 출판물중 번역·역경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는 불교계 역시 오역 문제를 짚어봐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재호교수는 부산대 논문 '출판문화의 난맥상'에서 원문이 난삽한 〈삼국유사〉는 현재 11종의 번역본에서 3백여건의 오역 사례가 발견되며 표절·도용 사례 또한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교수는 "고전 번역은 후손에게 민족의 정신·문화 유산을 전해주는 소중한 방법이기에 정확한 번역은 학자의 사명"이라고 논문 집필 동기를 밝히고 있다.

이교수에 따르면 삼국유사의 기이(紀異)편 제1권에 나오는 신라 진덕여왕이 당나라 고종에게 바친 태평송(太平頌)이란 시의 '봉천숭우시(統天崇雨施)' '이물체함장(異物體含章)'이 오역이 심한 대표적인 경우다. '우시'와 '함장'은 중국 고전인 역경(易經)에 나오는 술어로 '우시'는 대자연 조화를, '함장'은 지덕(地德)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구절은 "세상은 대자연처럼 통치하고 만물을 땅처럼 포용한다"가 올바른 번역이라는 것. 그러나 이병도 前 서울대교수의 56년도 역주본에는 "하늘을 통령(統領)하매 고귀한 비가 내리고 만물을 다스리매 물체마다 광채를 머금었다"로 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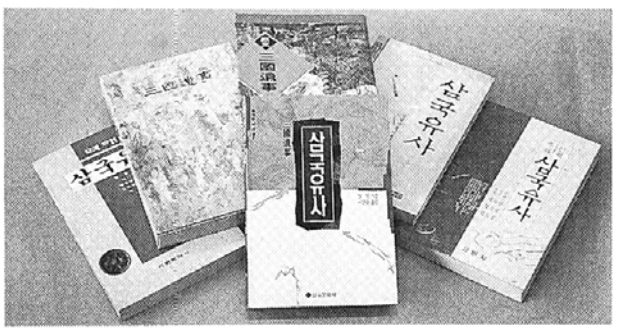
북한 사회과학원 고전연구실 60년도 번역본도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다. 이재호교수는 최근 간행된 3종의 삼국유사 번역본의 구체적인 예를 통해 단순한 오역의 차원을 넘어 자신의 67년도 번역본을 표절·도용하고 있다고 덧붙인다.

불교계도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금강경(7종)의 번역·주해본을 비교하면 전체적인 의미는 동일하게 나타나나 각 번역·주해본에서 사용된 어휘나 서술 방식은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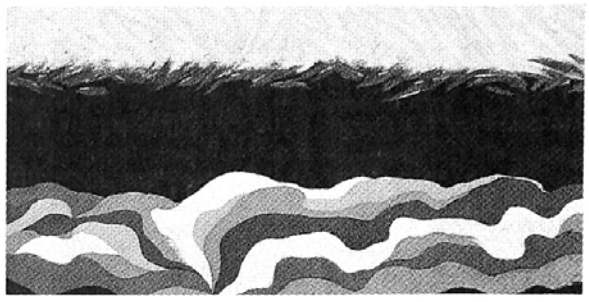
스님들의 기본교재인 〈초발심자경문〉의 경우 계초심학인문(誡初心學人文)의 '수원리악우(須遠離惡友)'에서 수(須)는 '모름지기'로 번역되고 있는데 현대적 어휘도 아닐 뿐더러 문맥의 의미도 흐려놓고 있다. 윤창화사장(민족사 대표)은 "명령과 결정의 의미가 있는 '수'는 '당연히' '꼭' 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대동야승〉〈신증동국여지승람〉 등 고전국역총서를 발간한 민족문화추진회 이후성 회장은 "원전 오역은 번역자의 소양 부족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문학·번역작품의 검증은 평론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평론 풍토가 척박한 현 학계의 구조적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며 번역된 책들을 검증할 수 있는 학계차원의 여과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종욱 기자



◇시중에서 유통되는 〈삼국유사〉의 번역·주석본에 오역이나 표절·도용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학계의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김영덕作〈비나리의 山〉

法數로 배우는 불교 〈10〉

삼계(三界) ㊦

불교는 다른 종교처럼 천상계를 이상세계로 삼지 않는다. 천상계는 삼계중 무색계와 비교할 수 있는데 불법의 경지에서 볼 때는 무색계도 허망한 세계일 뿐이다. 천상계가 아무리 영원하고 즐거운 곳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끝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과거 보리수나무 밑에서 도를 성취하기전 6년동안 고행하실때 모든 천상세계를 두루 경험해 보셨는데 이곳 역시 윤회를 면치 못하는 불완전한 세계였다. 그러므로 삼계는 지옥에서부터 비상비비상천에 이르기까지 인과의 법칙을 면치못한 어둡의 세계이므로 벗어나야 될 곳이지 머무를 곳이 아니다. 법화경에서는 삼계를 가리켜 불타는 집이라 했고 원각경에서는 허공에서 일어난 허깨비꽃이라고 했다.

업의 세계요, 윤회의 세계요, 속박의 세계요, 허망한 세계가 삼계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골레와 같은 삼계는 어디서 나타난 것인가.

화엄경이나 대승기신론 같은 곳에서는 삼계란 마음이 지어낸 세계라고 설명하고 있다. 중생들의 몽매하고 어리석은 마음에 의해서 지옥이 나타나고 천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중생심의 그림자, 망상의 산물이 곧 삼계인 것이다. 욕계, 색계, 무색계의 주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중생들의 오염된 마음에 있는 셈이다. 임제선사가 "한마음이 탐욕을 일으키면 욕계가 되고 한마음이 성냄을 일으키면 색계가 되며 한마음이 어리석으면 무색계가 된다"고 삼계에 대해 설법한 것도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이처럼 허망한 마음경계에서 지어낸 것이 삼계라면 삼계의 속박과 한계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마음에 달려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마음의 미혹을 벗어나면 된다는 것이 그것이다. 아라한이나 보살,

경전 '불타는 집' '허깨비 꽃' 묘사

무색계도 윤회하는 불완전한 세계

불자 궁극의 목적 "삼계 벗어나자"

부처님과 같은 대성인의 경지에서는 삼계가 한낮 그림자 밖에 되지 않으므로 머물래야 머물 수 없다. 일체의 미혹이 떠난 지혜광명의 경지인 불보살들은 삼계를 흡연히 벗어나 대자유를 언제나 누린다. 불법을 닦는 목적은 부처님처럼 삼계를 벗어나기 위해서이다. 그렇려면 선업을 짓고 선정을 부지런히 닦되 부처님의 반야지혜를 얻는 선업과 선정이 필요하다. 삼계속에서 노예가 되어 영원히 헤매느냐 아니면 삼계 밖으로 나와 일체의 주인이 되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삼계안의 복에 의지하지 말고 초출삼계(超出三界)의 공덕을 닦는 일이 불자의 본분이다.

이 제 열 〈유마선원장〉

범종 발달사 한눈에 본다

신라·고려·조선시대 178구 양식·특징 총정리

국립문화재硏 '한국의…' 펴내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동현)가 현존하는 범종 1백78구(口)를 집대성한 자료집 〈한국의 범종〉을 발간했다.

신라(11구)·고려(73구)·조선(94구) 범종 등 남한 지역에 분포된 범종을 종합적으로 소개한 최초의 자료집인 〈한국의 범종〉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연구됐던 한국 범종의 기원과 변천사·양식 및 형태상의 특징을 비교하고 도판 탁본 문양장식 등을 정리했다.

〈한국의 범종〉에 따르면 빼어난 음색, 조각의 정교함과 깊은 신심이 표현된 전통 범종은 고려말 중국종을 모방하면서 형식과 제작수법이 조잡해지는 양상이 나타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의 범종〉은 이호관(前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장) 조유전(국립민속박물관장)씨 등이 지난 72년부터 74년까지 3년에 걸쳐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제작됐다.



이호관씨는 "〈한국의 범종〉에 수록된 자료를 토대로 범종에 대한 좀더 심도깊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북한 지역의 범종까지 보완해 총체적인 범종 자료집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한다.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리터러리 킥스

20세기 초 미국 불교의 특성은 승려와 사찰이 아닌 불교를 자신의 종교로 선언한 '비트세대'의 반동적 문화경향에서 두드러진다.

'리터러리 킥스'는 50·60년대 문학을 통해 냉전·핵·물질주의 등의 문화적 병폐에 반항했던 비트세대의 대표적 작가들을 소개하고 비트세대의 특징과 주요활동 지역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킥스(kicks)란 '반항·거부·불평' 등의 도발적 의미를 갖는다.

이 사이트에서 소개하는 작가중 〈진리의 법〉(The Dharma Bums)을 쓴 J.케로악과 〈대소(大笑)〉(Howl:Sunflower Sutra)에서 해바라기의 모습을 불교경전으로 삼았던 A.긴스버그 등은 냉전 속에서 극대화된 소비문화와 핵공포의 압박을 받던 미국 젊은이들에게 불교적 해법을 제시했던 것으로 평가받는 대표적인 작가.

이 외에도 미국 문화사에서 샌프란시스코의 해안이 갖는 특별한 의미에 대해 설명이 나온다. 샌프란시스코 서부해안 지대를 '베이 에어리어(Bay Area)'로 통칭하는데 동양학 관련 출판과 문화행사가 가장 빈번히 열리는 곳으로 꼽힌다.

'리터러리 킥스'의 주소는 http://www.charm.net/~brooklyn/이다.

〈욱〉



비트세대 대표작가·활동상 소개

생명복제·문화재등 봉축 학술행사 다채

'불교 시각에서 본 생명복제' '불교유산의 보존과 전승' 등 관심을 끄는 주제의 학술회의가 오는 5월 부처님오신날을 전후해 다양하게 열린다.

불교문화연구원(원장 권기종)은 '불교의 시각에서 본 생명 복제'를 주제로 5월9일 세미나를 개최한다.

'생명복제의 정의와 현황'(이민웅 동국대교수) '유전공학의 발전과 인류의 미래'(공종원 조선일보 논설위원) '불교의 생명관'(호진스님 동국대 교수) '불교의 윤리와 생명복제'(정병조 동국대부총장) 등의 주제발표가 있다.

'97 문화유산의 해를 기념해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류종민)는 5월24일 '불교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연다. '한국인의 정서와 불교문화유산'(이인자 경기대교수) '유형불교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정명호 교육대교수) '무형불교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박범훈 중앙대교수) '불교문화유산 보존과 전승을 위한 행정체계의 재정립'(황진수 한성대교수) 등이 발표될 예정.

이외에도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영태)는 오는 5월3일 '백제고찰 수덕사와 덕숭산문의 법통 연구'를 다룬 학술회의를 마련한다.

세계문화유산보호위 발족

석굴암, 팔만대장경 등 세계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관리를 위한 '세계문화유산보호위원회'가 지난 14일 발족됐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권태준)는 이날 위원회 회의실에서 보호위원회 임원구성 및 운영에 관한 회의를 갖고, 백승길위원장(국제박물관협의회 한국위원회장)을 비롯 14명의 위원을 선임했다. 이들은 문화유산의 정기점검을 비롯 정책건의 및 자문, 보존기금마련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소더비 조선불화 6억 낙찰

조선 명종(1562년)때의 불화가 뉴욕 소더비 경매장에서 최고가인 71만7천5백달러(수수료 포함·한화 6억3천만원)에 낙찰돼 화제가 되고 있다. 4분의 부처님이 한 화면에 그려져 '사회탱((四會幀)'으로 불리는 이 불화는 화기(畵記·불화를 그린 내력과 화공을 적은 기록)가 온전히 남아 있어 매우 귀중하다. 사회탱은 국내는 물론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귀중한 작품이다.



中國

삼중스님과 함께 하는 구화산·황산 성지순례 대장정

상해홍구공원(윤봉길의사의 의거 현장)천도대제

삼보 귀의 하옵시고

중국 4대 명산인 구화산에 위치한 육신보전 지장왕보살 천견대법회에 박삼중 큰스님과 함께 하는 뜻 깊은 순례와 계림보다 더 빼어난 절경을 자랑하는 3괴(괴송, 괴암, 운해)를 지닌 황산에서의 일출을 불자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병풍처럼 이어지는 곳곳에서의 산수절경에서 온화한 불심과 어울려지는 감흥이 구화산과 황산으로 이어지는 중국에서의 순례행사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불자님의 가슴속에 기억 될 것입니다.

부디 널리 알리어 큰스님의 뜻을 기리기 위한 많은 동참이 있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 여행기간 : 1997년 4월 12일 ~4월 16일(4박5일)
· 여행경비 : ~~₩780,000~~ (동참금 ₩50,000별도)
(여권비자 수속비 제외)
· 참가인원 : 200명
· 신청마감 : 1997년 4월 5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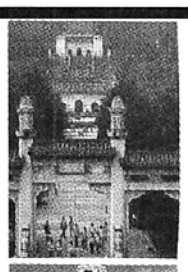
▣ 문의및 접수처

서울 자비사 02-593-2883 박보살님
부산 자비사 051-467-2366 장진용 사무장
부산(주)일주항공여행사 051-467-0888

여행지: 중국, 상해, 항주, 구화산, 황산, 남경PTY(4박5일)

일자	도시명	교통편	시 간	주 요 행 사 일 정
제1일 4/12 (토)	부 산	KE 6495	08:40	부산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1층 약국앞 집결
	상 해		10:45	상해향발 - 상해도착후 임시정부 청사, 관광
	항 주			항주로 이동
				호텔 투숙
			11:35	HOTEL: 백합 호텔
제2일 4/13 (일)	항 주	전용 버스 케이블카	전일	호텔조식후
	황 산			황산향발 운곡사 천도봉 불장봉등 관광
				호텔투숙 및 휴식
				HOTEL: 북해빈관 호텔
제3일 4/14 (월)	황 산	전용 버스	전일	일출 감상 및 온천등 관광
	구화산			중식후 황산출발 - 구화산 향발
				구화산도착후 호텔투숙
				HOTEL: 취룡 호텔
제4일 4/15 (화)	구화산 남경	전용 버스	전일	화성사, 쌍계사, 혜거사등 관광 - 남경향발
	상 해			남경드착후 현무호공원, 영곡사 등 관광
				상행 항발, 상해도착후 호텔투숙
				HOTEL: 란생 호텔
제5일 4/16 (수)	상 해	KE 6505	12:40	홍구(노신)공원등 시내관광
	부 산		15:20	부산향발
				부산 김해공항 도착후 댁으로 안녕히

※ 상기 일정은 항공기 및 현지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경 될 수도 있습니다.






참 가 신 청 서

접수번호 : No. _____

행사명	중국 성지순례 구화산 지장王 김교각스님 천견대법회(항공5일간)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성명 한문		여권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자택 :	직장 :	
여권유무	유 · 무		
여행요금	₩780,000		
동참금	₩50,000	신 청 금	₩100,000
온라인 구좌번호	서울은행 43304-4451405 국민은행 102-01-0727-22 부산은행 089-01-018461-6	예금주	자비사

※ 중국 구화산 성지순례의 목적이나 그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기리기 위해 행사 주체의 한 일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본 신청서는 해외여행 약관에 따를 것이며, 상세한 일정 과 조건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1997년 월 일
신청인 (인)

지정여행사
(주)일주항공여행사 귀중



◇죽은 영혼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바라춤. 유연하고도 지극한 몸놀림이 환희심을 불러 일으킨다.



◇영산재의 하이라이트인 식당작법. 부처님께 올렸던 공양물을 재에 참여한 모든 대중이 나눠 먹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 대중화합과 불교의 자비의 식을 잘 보여주는 의식이다.

"空으로 돌아가라"

인간문화재 지광스님 49재 전통 영산재

지난 18일 영산재의 본향(本鄕)인 신촌 봉원사. 바람이 봄을 실어 오듯 한결 부드러워진 가운데 경내를 장엄한 오색지화(五色紙花)가 꽃보다 더 곱게 휘날린다.

200여평의 대웅전 앞마당에 거대한 괘불이 올랐다. 각종 번기와 재(齋)에 참가할 여러 부처님과 이를 호위하는 신중들이 그려진 그림. 죽은 자가 저승에서 쓰게 될 대형 지전(紙錢·종이돈)묶음이 법회장을 호위하듯 감싸안고 있다. 오색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지화와 번이 이날따라 유난히 선명하다. 영산재 장엄부문 인간문화재 정지광스님(1월29일 입적) 49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다. 인간문화재로서의 행적을 기려 지광스님의 49재가 전통영산재 의식으로 봉행되는 것.

오전 10시. "덩덩덩…" 5번의 범종소리가 영산재의 시작을 불보살님께 고했다.

첫의식은 시련(侍輦). 영산법회에 참석하는 성현과 보살, 신중을 연(輦·가마의 일종)에 태워 법회장으로 모시는 의식이다. 인로왕보살기를 선두로 영가행렬은 절밖의 시련장소로 내려갔다. 스님들과 일반대중들이 게송을 합창한 뒤 바라춤과 나비춤을 추며 이들을 모셨다.

연이어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법회장으로 맞이하는 대령(對靈), 이들 영혼이 불단으로 나아가 불법을 듣기 전에 몸을 깨끗이 씻어주는 관욕(灌浴)이 이어졌다. 관욕은 법당과 마당 안팎에서 펼쳐졌다. 안에서는 관욕단을 차리고 세 분의 스님(삼증사:三證師)이 앉아 결수문을 놓고 결인을 했다. 관욕절차는 세속의 인연을 씻게 하고, 청정한 본래의 마음을 회복시켜준다는 의미가 깃들어 있다.

다음은 영산재의 하이라이트 식당작법(食堂作法). 영산재를 마친 후 재에 참여했던 스님들이 음식을 공양받고, 그 보답으로 법공양을 베푸는 공양의례다. 식당작법은 부처님께 올렸던 공양물을 대중들이 다함께 나눠 먹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 부처님의 자비의식이 가장 잘 나타나 있다. 원래 재(齋)의 의미도 여기에 있다.

해탈문 밖서 영혼맞아 속세때 깨끗이 씻고 공양 권하며 부처님 찬탄 장엄 태우며 왕생 기원

약 40여분에 걸쳐 실시된 식당작법은 공양을 베풀고 받는 공덕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수행해 도업을 성취해 고통받는 모든 중생에게 자비를 베풀겠다는 내용이 범음 범패로 행해졌다. 이때 사찰의 사물(법종 운판 목어 북)을 비롯한 각종 법구들이 동원돼 법고 바라 착복춤 등의 작법무(作法舞)가 펼쳐진다. 식당작법은 그 의식규모와 절차가 방대하고 화려해 가장 눈길을 끈다.

오후에 재개된 영산재는 태고종 총정 정보성스님의 법문으로 시작됐다. "나고 죽는 것이 다 고(苦)다"는 말로 법문을 시작한 스님은 1시간여 동안 "내세에 더많은 복을 누리기 위해 공덕을 쌓으라"는 자상한 가르침으로 대중들을 일깨웠다.

오후의식은 영산재의 주요장면을 재현하는 방식으로 5시간에 걸쳐 계속됐다. 원래 전통 영산재는 3일동안 전개됐으나 요즘은 하루에 봉행된다.

금은전 점안(부처님의 힘으로 종이를 저승돈으로 만드는 의식)으로 시작되는 영산작법(靈山作法)은 초할향, 등게, 복청게, 상단권공단게, 왕생게, 모란찬, 회향게 등 부처님의 공덕을 찬양하고, 죽은 영혼이 극락왕생하기를 비는 소리와 삼귀, 천수바라 등 춤사위가 번갈아 등장했다. 각 게송과 춤에는 범종 등 사물은 물론 징, 바라, 취타 등 악기들의 청량한 소리가 더해졌다.

재가 막바지로 접어들었음을 알려주는 시식(施食). 죽은 영혼에게 필요한 음식과 법문 그리고 법회대중들의 정성을 전달하여 극락왕생케하는 의식이다. 이때 법당이나 법회마당과는 별도로 마련되는 곳이 '전신제단'. 법당이나 법회에 들지 못하는 유혼(遊魂·떠도는 영혼)들이 지나가면서 쉬며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는 곳이다. 영산재의 마지막인 소대의식(燒臺儀式).

영혼에게 입힌 옷가지와 갖가지 장엄용구 등을 태우는 의식이다. 구상화된 모든 물건이 태워져 다시 공(空)의 상태로 돌아갔다.

법회대중들은 사라져가는 불길 앞에서 저절로 두손 곱게 모아 합장했다. 가시는 이의 극락왕생을 비는 가운데 어느덧 영산재는 끝났다.

글: 윤기석 기자 사진: 고영배 기자

◇예경과 찬불의 소리를 고조시키는 취타대.

영산재란 춤과 음성공양으로 영산회상 재현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靈山齋). 석가모니불의 설법장에 모인 모든 중생이 환희심을 일으키고 법열에 충만된 분위기를 재현한 영산회상을 상징화한 의식이다. 영산재는 신라시대부터 시작되었다고 전해지며, 불교가 국교인 고려시대에는 크게 성행했다. 조선의 억불정책속에서도 끊이지 않고 계승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영산재는 도량의 장엄부터 부처님을 찬탄하는 음악, 무용 등 각종 요소가 들어간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범패(梵唄). 판소리, 가곡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성악곡의 하나로 현재 범패 기능보유자는 박송암(83세)스님과 장벽응(87세)스님. 지난 73년 인간문화재로 지정받은 송암스님은 근대 범패의 양대산맥이던 동서 만월(東西滿月) 중 서만월스님의 계보를 이은 이월하(李月河)스님의 제자다. 김구해, 마일운스님 등 전수교육보조자를 비롯 많은 이수자와 전수생을 두고있다.

바라춤, 나비춤, 법고춤 등으로 대표되는 작법(作法) 기능보유자 이일응스님(78세). 지난 87년 '봉원사 영산재'로 개칭되면서 추가지정됐다. 이운봉, 이성일스님 등이 이수자.

같이 지정받은 도량장엄 기능보유자 정지광스님은 지난 1월29일 입적했다. 이수자는 이경암, 윤해월스님.

영산재의 범패, 화청 등은 가곡, 회심곡에 큰 영향을 주었다. 또 나비춤, 바라춤 등은 민속무용인 승무와 바라춤을 탄생시켰다.

봉원사 영산재보존회(회장 대운)는 지난 68년부터 옥천범음대학(현재는 범음대학으로 개칭)을 설립해 영산재 전승과 보급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학제를 4년제로 개편한 범음대학은 현재 봉원사에 있으며 범패중심 단설대학으로 전환을 추진 중이다.

한편 영산재보존회는 오는 6월 남북통일과 세계평화를 발원하는 영산재 천일기도 입재에 들어간다. 매주 봉원사내 삼천불전에서 봉행될 영산재 의식은 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개방된다. 보존회는 불교 전통의식인 영산재의 홍보를 위해 영어와 일어로 된 안내책자도 펴 낼 예정이다.



◇영산재를 장엄하는 지화(紙花). 오색선명한 색깔이 생화보다 더 곱다.


국내최초 실내 썬텐


아늑한 휴식공간


초대형 욕장


충분한 주차공간


노천탕



♣ 국내 최고의 유황천
♣ 국내 최대의 대형목욕장
♣ 설 한증막 ♣ 실내 썬텐 시설
♣ 황토, 고온, 한약사우나
♣ 신선하고 격조 높은 노천탕
♣ 수중 안마탕
♣ 초대형 냉탕 및 주차시설 완비



불 한증막 고온 사우나
황토 사우나 한방 사우나

일동 사이판
ILDONG SAIPAN

세속의 번뇌와 무명을 씻어내고 부처님을 만납시다 !!

포천 관광단지내에 위치한 「일동사이판」은 국내 최대의 전통 재래식 황토불 한증막과 황토사우나로 최고의 시설을 자랑합니다.

자연의 도량속에 위치한 전통 재래식 황토불 한증막과 황토 사우나 일동 사이판

유 황 천
국내최고의 유황천으로 수도권 북부지역의 대표적 관광지인 산정호수 백운계곡을 잇는 길목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관광과 휴양 레져를 겸해 온가족이 함께 유황천의 신비를 즐길 수 있어 좋습니다.

사찰 및 포천군 관광 안내
귀 심 원 사 : 지장보살도량 (동송읍)
귀 도피안사 : 비로자나불 (철불) 부처님이 계신곳
귀 자 은 사 : 관음도량 (산정호수 내)
■ 포천군 관광 안내
산정호수, 백운계곡, 운악산, 청계산, 관음산, 명성산, 왕방산, 국망봉, 금주산, 고석정, 재인폭포, 안보 관광지(땅굴)

신 토 불 이
강원 철원지방에서 생산되는 산나물, 봄채소, 싱싱한 과일등 향토장도 마련되었습니다.
■ 교 통 편
• 시외버스 : 상봉터미널,수유리시외버스터미널 일동직행버스 일동하차
• 자가운전 :43번국도(포천-3.8교-성동삼거리 우회전4km) 47번국도(회계원-광릉입구-내리-일동-산정호수방면4km)



일동 사이판
ILDONG SAIPAN
경기도 포천군 일동면 수입리 705번지
☎(0357)536-2000, 2035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교학품(教學品) ③

學而多聞 학이다문
持戒不失 지계부실
兩世見譽 양세견예
所願者得 소원자득

배움 길에 법을 많이 듣고
계를 지녀 흐트러지지 않으면
이승 저승에서 기림을 받아
원하는 것 모두를 얻는다

學而窺聞 학이과문
持戒不完 지계불완
兩世受痛 양세수통
喪其本願 상기본원

배움길에 법 듣는 일 적고
계를 지녀도 완전하지 않으면
이승 저승에서 고통을 받으니
본래 원하는것 잃고 만다

夫學有二 부학유이
常親多聞 상친다문
安諦解義 안체해의
雖困不邪 수곤불사

옳게 배워서 범하지 않고
법을 두려워해 꺼릴 줄 알며
미세한 경지까지 볼 줄 알면
경계함에 뒷탈이 없으리라

遠捨罪福 원사죄복
務成梵行 무성범행
終身自攝 종신자섭
是名善學 시명선학

죄와 복을 다 멀리 버리고
부지런히 힘써 범행이루어
종신토록 제몸 다잡으면
이를 이름하여 참 공부라 한다

다문품(多聞品) ①

多聞能持固 다문능지고
奉法爲垣牆 봉법위원장
精進難缺毁 정진난유훼
從是戒慧成 종시계혜성

많이 들어 이를 견고히 지킬 수 있고
법을 받들기를 담장 돌러친듯 하면
그 부지런한 노력은 허물기 어렵나니
이로부터 계행과 지혜는 성취되도다

잡초가 벼 해치듯 욕심이 배움 방해
악 뽑아없애면 반드시 거둘것 많다

무릇 배움에는 두 길이 있다
항시 설법 많이 듣길 좋아하고
바른 이치 잘 살펴 알면
비록 고생스럽더라도 삿되진 않으리

多聞令志明 다문령지명
已明智慧增 이명지혜증
智則博解義 지즉박해의
見義行法安 견의행법안

稊稗害禾 제패해화
多欲妨學 다욕방학
耘除衆惡 운제중악
成收必多 성수필다

많이 들음은 뜻을 밝게하고
밝아지면 지혜가 날로 늘어나니
지혜는 곧 이치를 널리 앎이라
이치를 알면 행이 그대로 법다우리라

잡초와 피가 벼를 해치듯이
많은 욕심은 배움을 방해한다
갖가지 악을 뽑아 없애면
거둘 것이 반드시 많으리라

多聞能除憂 다문능제우
能以定爲歡 능이정위환
善說甘露法 선설감로법
自致得泥洹 자치득니원

慮而後言 려이후언
辭不强梁 사부강량
法說義說 법설의설
言而莫違 언이막위

많이 들음은 근심을 없애주고
선정으로써 즐거움을 삼게한다
감로법을 잘 설하고
스스로 열반에 들게한다

깊이 생각한 후에 말하되
그 말에 억지가 세어서는 안된다
법을 말하고 이치를 말하되
말한것이 행에서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聞爲知法律 문위지법률
解疑亦見正 해의역견정
從聞捨非法 종문사비법
行到不死處 행도불사처

善學無犯 선학무범
畏法曉忌 외법효기
見微知著 견미지자
誡無後患 계무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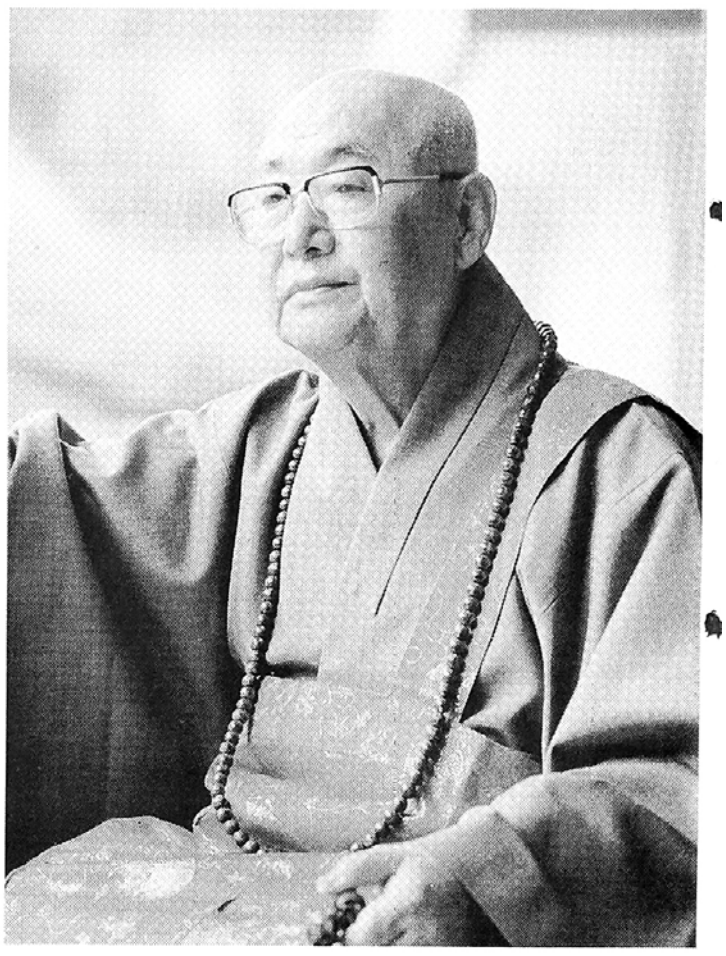
많이 들음은 법·율을 알게하고
의심을 풀고 바른 길을 보게하니
들음으로써 비법을 버리고
열반 경지에 이르게 한다

龍眼

큰 스님 수행한담

'다 주겠다' 생각하면

덕 암 스 님 〈태고총림 방장〉



"요즘 세상이 시끄러운 이유를 아십니까 정치가들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이제 완연한 봄입니다. 곧 꽃들이 활짝 필테지요. 자연의 순환이란 참으로 어김이 없습니다. 강원에 있을 때가 생각나곤 합니다. 철원 심원사 강원에 있을 때 방학만 되면 농촌에 나가 밭을 갈아 작물을 심으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해 달라고 빌곤 했었죠. 가뭄 끝에 단비가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는 가뭄의 고통을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를 겁니다. 이곳 법륜사는 내겐 단비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고 있는 곳이죠. 이곳은 70년동안 중노릇을 무사히 할 수 있게 해주었으니 말입니다.

사실 중노릇이라는게 별거 아니지요. 열심히 공부하고, 부처님 법을 따르면 되는 것이죠. 나는 중이면 중답게 공부나 열심히 해야 한다고 늘 강조해 왔습니다. 글 잘 쓰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부럽고,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부러웠습니다. 그렇지만 평소 소신대로 공부에만 몰두했지 다른 것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책읽는 것을 빼놓고는 할 줄 아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나마 나이가 드니까 눈이 어두워져 요즘엔 책을 가까이 할 수 없으니 안타깝기만 해요.

우연치 않게 출가해 부처님 공덕으로 85년을 무사히 살아왔음도 다 인연이 닿았기 때문이지요. 태어난 곳은 경북 문경군 농암면 삼송리라는 마을로 지금은 충북 괴산으로 편입되었다고 들었습니다만, 태어나면서부터 병치레를 끼니먹듯 했나봐요.

그때 어떤 이가 이 애는 얼마 살지 못해 죽을 운명이라고 하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걱정스런 마음으로 인근에 있는 원적사를 찾았다고 해요. 원적사 스님들이 우리 집에 와서 공양도 하고 잠도 자고 하던 때라 그 인연으로 찾았지요. 그랬더니 원적사 석교스님이 출가를 시키면 어떻겠느냐고 권유해 14살 되던 해 원적사에서 머리를 깎았어요. 집안 어른들에 의해 부처님께 귀의하게 된 셈이죠.

30년 금강산 유점사에서 벽산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받고 철원 심원사 화산경원이라는 불교전문강원에서 7년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유점사에 있을 때 벽산스님은 "금강산에서 1년만 살아보면 온 천하의 변화무쌍한 진리를 한 눈에 볼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곤 하셨죠. 생각해 보세요. 요즘 세상이 시끄러운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진리를 한 눈에 보지 못하는 탓입니다. 심지어는 무엇이 진리인지도 모르고 사니까 세상이 이 모양이죠. 날씨가 변하듯 세상 역시 잠시도 그대로 머물지 않아요.

진리를 볼 수 있다는 것은 그만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우리 정치가들은 어떻습니까. 나라와 국민이 잘되려면 넓고 통달한 지혜를 가진 이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늘 혼란스럽죠. 유점사에서의 2년여의 수학기간은 세상을 배우고 삶의 경책이 될 수 있는 훌륭한 체험이었습니다.

약력
- 1914년 경북 문경 生
- 1930년 벽산스님 은사로 출가
- 1942년 철원 심원사 불교전문강원 卒
- 1970년 태고종 총무원장 역임
- 1986년 태고종 종정 역임
- 現 사간동 법륜사에 주석

"사람들은 나를 원로라 부릅니다 그러나 행자들과 다를게 없어요 똑같이 계지키고 정진해야 하니까요"

화산경원에서의 수학은 지금까지 교학에 몰두할 수 있었던 기반이 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를 차례로 거치면서 세상의 진리가 부처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선(禪)보다는 교(敎)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됐지요. 중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부처님 말씀을 읽고 또 읽는 것이라는 확신도 이때 생겼습니다.

경(經)이 무엇입니까. 부처님 되는 길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스님들을 보면 경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선(禪)만 해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경(經)도 배워야만 부처님 법을 알 수 있습니다. 선을 해서 한소식 한다 해도 경을 모르면 그 깨달음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經)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경에 중점을 두었지만 틈틈이 화두를 들고 정진을 했습니다. 지금은 '무(無)'자 화두를 들고 있지만 전에는 '만법귀일 귀일하처(萬法歸一, 歸一何處)'라는 화두로 좌선에 들곤 했지요.

한국불교는 원래 선교겸수입니다. 교를 철저히 꿰뚫고 나서 그것을 버리고 선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사교입선(捨敎入禪)'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교(敎)가 서울에서 선암사까지 가는 길을 가장 바르게 가르쳐 주는 것이라면, 선(禪)은 그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교는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한가지 더 계(율)가 필요합니다. 계가 없고서는 선(禪)도 교(敎)도 없기 때문이죠.

부처님께서는 '사람이 죽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극락 세계에 가야만 사바세계를 면할 수 있고, 거기에 가야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길이 열리고, 그래야만 다시 한 번 깨달음을 얻기 위해 도를 닦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사람의 씨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죽이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술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에는 사람이 사람 죽이는 것을 파리 죽이듯 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름아닌 생명입니다. 아무리 사람의 목숨이 존귀함을 잃어가고 있는 세상이라 해도 함부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행위는 인과

위없이 높고 거룩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병풍에 담아 불자님께 전합니다!

금강경 10폭병풍

불자라면 누구나 원하시는 병풍 - 금강경
지금 가격 부담 없이 가까이 모십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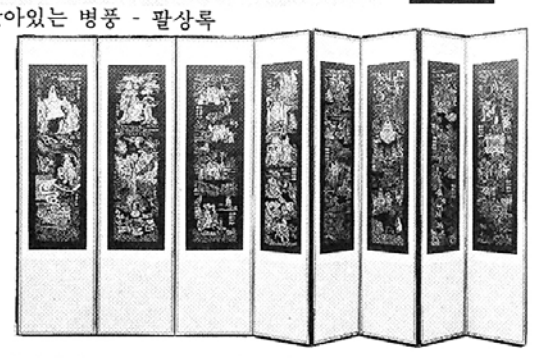


● 후면 : 석가세존일대기(팔상성도)

■ 전면 : 원력 높으신 스님께서 사경하신 경을 영인본 全書로 조성하였습니다.
후면 : 석가세존 일대기를 금화로 조성하였습니다.
■ 규격 : 높이 180㎝ 폭 439.5㎝
■ 재질 : 스기목 양면 고급 비단 ■ 가격 ₩49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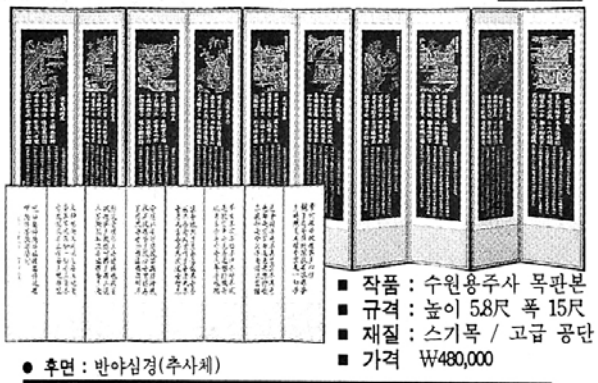
성보 八相錄 8폭 병풍 金·書·畵

살아있는 병풍 - 팔상록



● 규격 : 높이 5.5尺 폭 12尺 ● 재질 : 스기목/고급 공단 ■ 가격 ₩390,000

佛說大報 부모은중경 10폭 병풍 金·書·畵



● 후면 : 반야심경(추사체)

■ 작품 : 수원용주사 목판본
■ 규격 : 높이 5.8尺 폭 15尺
■ 재질 : 스기목 / 고급 공단
■ 가격 ₩480,000

기획·제작 전문 불사의 집
三田佛事
대표전화 (02)732-6095

운명의 길을 열어주는
보살기(氣) 띠부적 메달

띠부적이란?
인간은 누구나 12간지에 따라 12년을 하나의 주기로 운명의 변모를 합니다.
12년마다 되돌아오는 자신의 운명지수의 변동을 인연보살 천지인의 氣로써 천운의 길로 돌려 놓는 불가사의한 부적입니다.
각 띠별로 자신의 궤도를 미리 알아 매사를 성사 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子) 쥐띠(만월보살)
(丑) 소띠(천수보살)
(寅) 범띠(대륜보살)
(卯) 토끼띠(수월보살)
(辰) 용띠(관세음보살)
(巳) 뱀띠(관자재보살)
(午) 말띠(여의륜보살)
(未) 양띠(대세지보살)
(申) 원숭이띠(십일면보살)
(酉) 닭띠(군다리보살)
(戌) 개띠(정취보살)
(亥) 돼지띠(아미타불)

● 앞면 : 띠인연보살상 ● 뒷면 : 띠별십이지수호상



● 재질: 순은 99.9%(약 7돈 체인포함) ■ 가격 ₩48,000

큰 스님 수행한담

세상살이 힘들지 않아요



◇68년 5월 봉원사에서 펼쳐진 영산재 시연에 앞서 관욕의식을 행하고 있는 덕암스님(사진 오른쪽).

'내것'만 챙기다 보면 번뇌 쌓이고 세상 살기 더욱 힘들어집니다

시 태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지금 사람으로 태어나 고통스럽다고 해서 괴로워합니까.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길줄 안다면 이런 불평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수행하면서 스승들로부터 늘 경계해야 한다고 가르침을 받았던 것이 있습니다. 〈능엄경〉 서문에 있는 '설식기부(設食飢附)'란 말이 그것입니다. 배가 고프면 먹어야 배가 부른데, 배고프다는 말만 하고 먹지 않으면 배가 부르겠습니까. 부처님 법이 아무리 좋다 해도 그 법을 실천에 옮겨야지 말로만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란 얘깁니다.

인간은 본래 몸뚱이를 받은 것 자체가 욕심 덩어리로서 살아가도록 돼 있습니다. 내 눈, 내 아내, 내 나라, 내 절, 내 논, 내 돈… 이런 소유욕이 사람들로 하여금 번뇌를 쌓게 하고 그래서 세상이 살기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에서 비롯되는 것이지요.

럼 삶의 보람이 샘솟습니다.

불교는 본시 마음쓰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요, 천년만년을 산다해도 그것이 잠시 잠깐인데 마음을 함부로 써서야 되겠습니까. 사는 동안 욜곧게 사는 것이 곧 부처님 법을 따르는 길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이러한 행을 이룰 수 있는 성품과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믿음이 약하고 그 믿음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지혜가 모자라 어려운 것입니다. 마음이 얕은 사람은 진리를 보기가 어렵고 또 그 진리를 본다해도 잘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몸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혼으로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보람있고 뜻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허상속에서 허우적거리다 '인간의 씨앗'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양이 복제되고, 그래서 인간이 복제될 날도 머지 않았다고 떠들썩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을 똑같은 모습으로 복제할 수는 있어도, 생명에너지인 혼까지 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과학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과신하는 세상이라도 혼, 즉 사람의 마음을 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혼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생명의 본체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그 혼의 생명에너지를 모아 부처님 법을 따라 보세요. 부처와 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래 살아서인지 사람들은 나에게 보람차게 삶을 사는 방법을 묻곤합니다. 그럴때마다 나는 주저없이 부처님의 중도정신에 입각해 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원로라 부릅니다. 그러나 이제 막 입문한 행자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이 계를 지키고, 똑같이 정진해야 합니다. 대중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 "끊임없이 정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부처님 말씀대로 정진할 때 이 세상이 불국토가 될 수 있습니다.

과학 만능시대라 해도 '마음 복제' 불가능

"물질로 살지말고 혼으로 살아야 합니다"

를 모르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또 없으면 없는대로 사는 것이 진리입니다. 도둑질이 얼마나 큰 죄인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잘 보세요. 꼿꼿이 서 있는데 그림자가 구부러진 것 보았습니까. 인과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것입니다.

유점사와 철원 심원사 등지에서 불교경전을 공부하고는 이곳 법륜사 포교당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륜사에 계셨던 대륜스님이 "한 달에 20원을 줄테니 1년간 전국을 돌며 훌륭한 스승을 만나 수행을 하고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승주 선암사 김포강스님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때 금산사, 보석사 두 본산이 연합해 전북불교연합강원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김포강스님으로부터 교학과 수행을 배웠습니다. 아마도 대륜스님은 내가 경에 불두하니까 경을 떠나 훌륭한 스승 밑에서 좀 더 여러가지를 배우라는 가르침을 내려 주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처럼 학문도 수행도 철저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결제철이 돼도 나다니는 스님들이 많아요. 옛날엔 결제철이 되면 밖에서 스님들을 구경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웠어요. 심지어 내가 있던 금강산 유점사에서는 결제철에 찾아오는 객승에겐 밥도 주지 않았습니다. 결제철만이라도 제대로 수행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하는데 누가 강제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님들 스스로, 절에서 그런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불교가 제모습을 잃어간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스님이 스님노릇 잘한다면 왜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부를 안하기 때문입니다. 스님이 뭐 그리 바쁘다고 공부를 안합니까. 아니, 스님이 공부말고 할 것이 또 무엇이 있습니까. 그저 사찰하나 짓고 안주하려고 하는 스님들이 많으니까 한국불교가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은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집도 절도 갖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수행하고 공부하는데 그런 것은 필요없다는 가르침입니다.

나는 원래 출가하고부터 선보다는 교를 통해 불법을 펼치겠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결국 이런 생각이 내 일생을 전법교화로 보내게 하는 동기가 되긴 했지만 아직도 아쉬움이 많습니다. 부처님 곁에서 70년을 살았는데도 아직 부처님을 닮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더욱 큽니다.

포교는 대중을 감동시키는데 있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고 언변이 좋아도 성의와 열의가 없으면 중생을 제도할 수 없습니다. 이 신념이 한 평생 짊어지고 온 화두였습니다. 스님네가 자신의 본분을 잊지 말아야 하듯이 신도들도 자신의 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래전 얘기지만 법륜사에서 포교에 온 힘을 쏟고 있을 때 한 신도가 찾아와 "힘든 일이 너무 많아 죽고 싶다"는 하소연으로 상담을 의뢰해온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힘들지 않고 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데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운 일도 많고, 편안해지고 싶은 욕구도 일어나고, 쉽게쉽게 살고 싶기도 하겠지요.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 괴로움은 자기가 살아 있다는 증거니 오히려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죽은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어찌 알 수 있습니까. 사람 몸 받고 다

물질문명이 발달한 현시대에서 소유욕을 버리라고 한다면 부처님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미친소리라고 할 것입니다.

최고의 보시는 모두 주되, 아무 조건없이 주는 것입니다. 다 갖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모두 다 주겠다는 생각으로 살아보세요. 세상 살기가 왜 힘들겠습니까. 세상 살이가 왜 괴롭겠습니까.

85년을 살다보니 백년도 잠깐이라는 말이 정말 실감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작은 물줄기라도 쉼없이 흐르면 바위를 뚫는다"고 하셨습니다. 또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복용하고 안하고는 병자의 마음에 달려 있다"고도 하셨습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고 탕편에 끄달려 세상을 살다 보면 허송세월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외곬으로 진실되게 매달려 세상을 살다보면 깨달음을 얻게 되고 곧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진실을 작은 물줄기에 비유해 보세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 중도사상에 의지해 살면 옹달샘처



불교와 수학 ③ — 과학속의 불교 / 불교속의 과학 ⑩⑨ — 김 용 운

희랍과 불교의 논리

'자등명 법등명' 논리사고 형성의 모태

희랍논리학 2천년 지나 무한론 도달

석가모니는 평생 토록 모신 제자 아난(阿難)에게 마지막으로 〈자등명, 법등명(自燈明, 法燈明)〉의 가르침을 남겼다.

〈스스로를 등(燈)으로 여기며 지탱하여 남을 의지하지 말고, 진리(법)를 등으로 삼아라〉는 뜻으로, 어둠(無明, 카오스)의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오직 자신의 이성과 불교적 진리(法)만을 믿으라는 말씀이다. "믿어야 할 것은 오직 너의 지성일 뿐이다."

이 말씀에서 희랍의 주지주의 철학자와도 같은 경향을 엿볼 수 있다. 〈지(知)는 모든 사람이 갖는 것〉이라는 주지주의적인 신념이기에 나의 '지(知)'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지(知)'를 바탕으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사이에 협동적 연구가 중요시된다. '지(知)'와 노력(정진)의 목적은 나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공동체, 인류를 생각하는 일이다. 불자끼리 서로 격려하여 탐구하는 주제는 항상 〈지(知)와 그것으로 얻은 진리란 무엇인가〉를 묻는 일에서 시작되고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진다. 이 양상은 초월자(神)에게 절대적으로 귀의(歸依)하는 유태, 기독교의 교단 생활과는 판이하다. 이것은 오히려 플라톤 아카데미를 연상케 한다.

플라톤 아카데미의 현판에는 〈기하학(논리, 지성을 닦는 법)을 모르는 자는 이 문에 들어오지 말지어다〉라고 쓰여 있었으며 이곳에서는 인식론, 철학, 과학 등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고대 불교 교단도 많은 공통점을 지니며 불교학은 여러 학문 분야를 내포한다.

플라톤의 사상을 이어받은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삼단논법의 형식 논리를 완성한다. 이것은 유클레이데스의 〈원론〉에 집대성이 되어 서양 수학의 기초가 되었다.

석가모니가 자등명(自燈明)을 가장 가까이 모신 제자에게 마지막 교훈으로 전했음은 매우 상징적이다. 이 지적 분위기는 필연적으로 하나의 형식논리를 형성케 하는 사상적 모태가 된다. 실제로 불교에서는 인명(因明)으로 불려지는 논리학이 있었다. 그것은 주로 종교적인 논의에 이용되는 것이므로 정말 논리가 되지는 못했으나 분명한 형식 논리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다.

종(宗):聲(소리)은 무상하다.

인(因):所作性(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유(喩):法(법)으로서 所作性은 모두 무상하기 때문이다. 가령 항아리와도 같이.

종(宗)은 삼단 논법의 결론이며, 인(因)은 소전제이고, 유는 대전제와 그 보기이다.

명(明)이란 학문이라는 뜻이며 인(因)은 가장 중요한 것이므로 이 형식은 인명(因明)이라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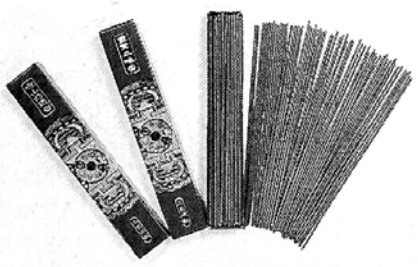
우리의 관심에서도 원효대사(元曉大師)가 이것을 연구하여 그 저서가 일본에 전해졌다는 기록이 있다. 리트 기하학으로 집대성되었으나 불교의 인명은 그후 수학의 발전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희랍과 불교사상이 공통적으로 주지주의적 경향을 가졌으면서도 희랍인의 관심은 눈에 보이는 '유한적'인 것에서 출발하고 있다. 한편 불교적 관심은 바른 지성으로 '생로병사'의 비밀을 알아내려는 것에 있었으며, 이것은 인간의 실존 문제이며 불교적인 지의 대상이다. 그리하여 사유는 마음 깊은 곳을 파헤친다. 과학은 자연적인 대상만을 문제삼은 것에 비해 불교의 중심 과제는 전 인류적 차원의 구제이다.

그것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으며 모양도 끝도 없는 세계이다. 인명이 이런 것을 대상으로 삼을 때 희랍적 정밀 논리가 일삼는 대소, 순서의 구별을 빠져나가고 만다.

불교의 인명이 유클리트 기하학과 같은 학문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것은 처음부터 인간 문제가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그 대신 희랍 논리학의 계열이 겨우 2000년후에야 당도한 무한론에 단숨에 뛰어들 수 있었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二軾佛敎에서만 西藏香을 만듭니다



히말라야 천연향 탄생!

저희 이재불교에서 순수 천연향인 설산수도향과 영취삼매향을 만들었습니다.
화학방향제인 무스크를 사용한 일본제품보다 더욱 질좋은 제품입니다.
어찌하여 신도님들은 삼보에 공양할 향을 화학제품으로 선택하십니까?
일본에서 저희제품과 같은 순수 천연의 서장향 가격을 알아보셨습니까?
2천만 불신도 여러분!
삼보에 계신 스님들은 항상 화학향으로 건강을 해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들은 무스크라는 화학 방향제를 사용한 일본제품의 배척운동을 시작할 때 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일본에 불교를 전파한 나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순수 천연향을 선택 하십시요!

※본사는 경남북, 전남북, 충남북 일원등 지방공급의 원활을 기하고자 영업하실 분 또는 대리점하실 분을 모십니다. 본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二載實業 佛敎事業部 ☎ (02)467-6044~5 FAX (02)467-6045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 에 탁월한 효과

※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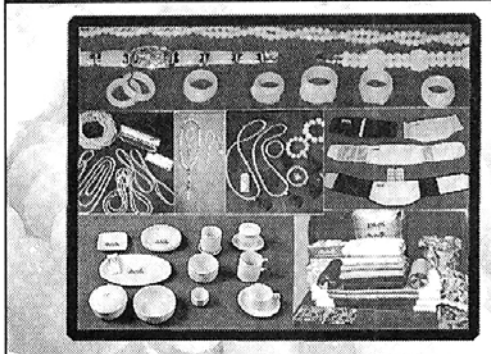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 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전화문의 : (053)628-9145
(053)655-3027

대구여래한방

춘천옥산가 옥의 신비!



전강에 가장 중요한 물질인 뇌내 모르핀 분비를 활성화시켜 모든 병을 호전시킵니다.

氣(기)는 생명력, 강한 기를 당신에게!

짜릿짜릿한 느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 내몸-부처님도량, 이 가람을 청정하게 가꿉시다 (SOD, 청혈작용 때문에)
★ 혈액순환을 도와 모든 성인병의 근원을 제거한다. (체내노폐물 제거 때문에)
★ 현대인의 불안, 초조, 신경질, 홧병 또는 노화방지에… (뇌내 모르핀 활성화 때문에)
★ 강타력, 집중력, 골프머리가 잘혀 갑니다. (조금의 차이도 1타를 이깁니다)

꾸준히 사용해 보십시오. 참으로 잘 듣습니다.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중국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불면증96.9%, 심장질환자 92.9%, 귀울림병91.3%, 어지러움증91.3%, 두통83.3%, 고혈압77.8%, 관절염60%의 놀라운 치유 효과를 기록했다.('93. 2. 17 서울신문)

玉山家 옥만을 꼭쥡어서 사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죠도자기 죠이볼 金賞 수상
미국 제10회 국제입점전시박람회

옥산가 옥이 의약품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의서 本草綱目에 진옥은 백병을 다스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쁘렝땅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玉山家 777-0105 (우편판매)

경주 남석 돌안경

경주남석 보안경을 스님 및 제가불자들에게 특별할인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代表 : 이성욱

▶가격 :10萬~15萬선 (남석렌즈가격)

· 충북 옥천군 産(47年)
· 35년간 경주 남석 연마가공
· 남석 도수 안경 개발
· 남석 전문 안경점 운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세신옴니크아 1층 세신안경 (야탑동 지하철 입구)

(0342)703-5049
(0342)702-2472 (오후9시-오전9시)

고은 불교대하소설

우녀마저



새벽 예불시간이 되어서야 우녀는 등에 찬바람이 이는 느낌이 들었다. 그의 곁에 어둠속 나무가지에 아주 단정하게 앉은 올빼미처럼 있어야할 소석행자가 보이지 않았다.

어찌 내가 회향(回向)할 것이 있겠는가. 어찌 내가 다른 이들에게 돌려줄 공덕이 있겠는가.

회향할 것이 없을진대 나와 함께 살아가는 행자까지도 차라리 잘 떠나는 것인지 모르리.

이런 생각 가운데는 벌써 소석이 무욕도를 떠난 사실을 간파하고 있음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우녀의 직감 따위도 어디로 달아나버렸는지 통 잡아내지 않는 것이었다. 그녀는 지난 날의 예성강 하류 포구의 여기저기를 맴돌던 시절의 그 실성(失性)을 통한 신기(神氣)도 점기(占氣)도 그리고 그것이 이곳에서의 수행을 통한 예시적인 통찰로 된 직감도 갑자기 굳어져 버렸다.

이제까지의 우녀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그녀는 예성강 기슭을 떠돌던 처녀가 아니라 그 이전의 정상적이며 평범한 소녀시절의 무지(無知)로 돌아간 것일까.

그녀가 생각한 회향을 마지막으로 우녀에게는 더이상의 섬뜩한 직관 따위는 없어져 버렸다. 마치 쥐구멍 속으로 들어간 것이 분명한데 그 구멍에 쥐가 없는 것 같았다.

인담이 아침 좌선을 마친뒤 아래채로 내려와 우녀에게 물었다.

"두 행자가 보이지 않는데…."

우녀의 대답은 이제는 무덤덤할 수 밖에 없었다.

"글쎄요… 간밤 소석행자는 함께 자는데…."

"내가 넘어가 볼 터이니"하고 인담이 바위언덕 넘어 선착장 쪽으로 갔다.

그는 때배 하나가 없어진 것으로 상을 소석이 섬을 떠나버린 사실을 알았다. 아니 선착장 부근의 바위 모서리에는 두 행자 중의 누구의 것임에 틀림없는 염주가 떨어져 있었다.

인담이 다시 우녀한테 돌아왔다.

"떠났어"라고 약간 화를 내는 목소리에 가까운 말이 우녀에게 들렸으나 우녀는 떠나거나 돌아오거나 그런 것에 전혀 둔감한 사람이 되었다.

"이제 갈매기들을 도반이나 상좌로 삼아서 살아가야 할 형편이로다."

그런 말에도 우녀는 전혀 마른 쑥처럼 아무런 느낌도 없었다.

이제는 오직 인담선사의 뒷바라지나 하는 한 숙맥같은 아낙네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그 놀라운 총기(聰氣)와 상대방의 마음을 꿰뚫는 지혜의 섬광 그리고 어떤 두려움도 없는 그 오만하기까지 한 확신의 기상들이 마치 뛰어난 장군과 용감한 병사들이 철수한 뒤의 텅빈 진지(陣地)처럼 쓸쓸할 따름이었다.

인담이 그렇게 변한 우녀를 반신반의로 알아차리기까지는 사나흘동안 착실하게 겪어본 뒤였다. 그만큼 인담의 우녀에 대한 신뢰나 경의(敬意)는 굳건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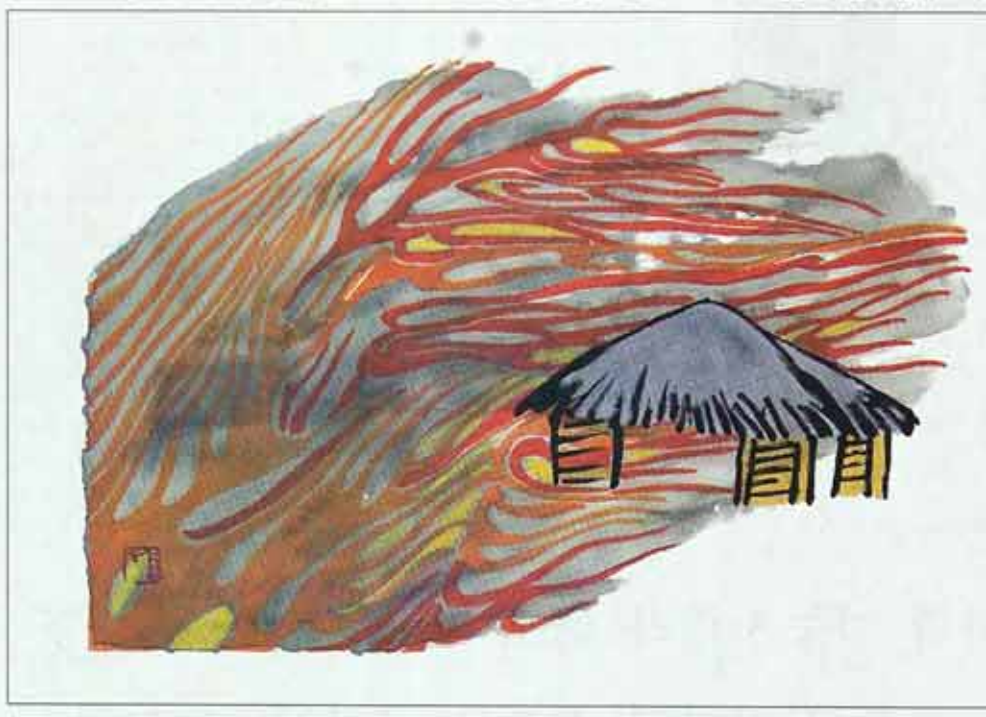
무욕도의 두사람은 더이상 상을 소석의 행방에 아무런 궁금증을 이어가지 않았다. 작도 인담에게는 도무지 허황한 노릇이었다. 돼지나 소의 동작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지경까지 급강하한 상태의 인담과 우녀들의 그 어리석음이라는 제자리야말로 그들이 지향한 수행의 한 구경(究竟)은 아니었는지….

두 사람의 정신적인 사정이 그런 것만이 아니라 두 사람의 일상생활도 굳이 수행자의 그것으로 되지 않았다. 새벽의 어둠 속에서 부싯돌을 쳐 촛불을 밝히는 따위의 일도 없고 빈 방석위의 향상 없는 부처님한테 3배의 큰 절을 죽비를 치며 되풀이할 까닭도 없게 되었다.

인담은 자루한 왼손으로 굳어진 늙은

해적떼 한 녀석이 담뱃불 부싯돌을 친김에
요사채 하나에 불을 질러버렸다
불을 보고있는 인담의 몸에서도 불이났다



아니었다.

말하자면 그들의 정신이 그럽진대 그들의 색육도 거의 털려버린 것이었다. 어느 도둑에게 말이다.

그런 여름이 다할 무렵 무욕도의 낮에도 귀뚜리 울음소리가 심심풀이로 파도소리 사이에 저 세상의 소리인듯 점철되고 있었다.

그때 인담이 어물쩍거렸다. 그러자 패거리 하나가 그런 인담의 따귀를 넓적한 손바닥으로 갈겨댔다.

"그렇습니다"라고 인담이 대답하였다.

"언제부터 여기서 살았느냐?"

"너무 오래되어서… 몇해나 되는지 모릅니다."

그때 다시 한번 따귀에 손바닥이 올라붙었다.

우녀가 나섰다.

"십년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새끼를 낳지 않았느냐?"

"예… 그것이…."

세번째 따귀질이었다. 인담의 한쪽 얼굴에 불이 번쩍 나는 것이었다. 인담이 울고 있었다. 그러자 우녀도 울었다.

소두령은 그런 머저리 같은 두 남녀를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았다.

"그동안… 10년동안… 너희들은 대관절 몇반이나 재미를 보았느냐?"

이 말에는 더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바위 틈서리에 사는 겨울잠 잔 개구리가 힘없이 뛰쳐나오듯이 우녀의 입이 열렸다.

"우리 영감은… 그냥 그런 일을 못하는 고자입니다…."

"으하하하."

"으하하."

"하하하하하."

"하하."

패거리들이 일제히 웃음바다를 피워냈다. 젊은 소두령은 뜻밖에도 마음쓰는 것이 큰 쪽이었다.

"그만두자… 그대신 이 고자 부부가 사는 곳을 대강 뒤져보아라… 혹시 아느냐… 금은보화를 훔쳐가지고 여기로 건너온 것들이 아닌지 모를 일이니…."

패거리들은 그들의 익숙한 솜씨로 아랫채 윗채의 여러 구석을 뒤져보았다. 금은보화는 커녕 제법 쓸만한 놋그릇 따위도 없었다. 다만 불단의 다기(茶器)와 향로가 있었는데 그런 것에는 아무런 눈길도 주지 않았다.

"순 알거지들입니다"라는 패거리의 말에 소두령은 인담과 우녀를 한참 바라보았다.

그가 입을 열었다.

"고자는 놔두고… 이 아낙이 그래도 쓸데가 있을 터이니 배에 태워라"라는 명령이었다.

그러자 소두령 바로 밑의 다부진 패거리가 그 명령에 맞섰다.

"배에 부정한 계집 따위를 태우면 용왕의 노여움이 있을까 저어되는데… 간밤 소인의 꿈이 해괴합니다… 여우 한 마리를 만나 그 여우가 무덤을 파고 있었습니다."

"예끼! 재수없게스리."

그들은 우녀를 데려가는 일을 그만 두었다.

그대신 고자 인담을 감쪽로 옷을 벗겨서 양물을 이리저리 살펴보는 고약한 짓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었다.

"이 사타구니에 금은보화가 달려있구나"라고 한 녀석이 뜻어댔다.

그러자 한 녀석이 "금은보화는 무슨 금은보화… 그저 푹정이 두 개와 씩은 막대기 한 토막이 달려 있는데…."

그 패거리 하나가 인담의 극부를 발길로 세게 찼다. 인담이 꺼꾸러져 극부를 움켜쥐고 기절하였다.

그런 인담에게 우녀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서 있었다.

"떠나자"라는 소두령의 새된 목소리가 났다. 그러자 패거리 하나가 던지 바위언덕을 넘어가다가 위쪽 요사채 하나에 담뱃불 부싯돌을 친 김에 그 불을 질러버렸다.

그 요사채가 대번에 불에 휩싸여 타고 있었다. 인담은 우두커니 그 불을 보고 있었다. 그의 몸에서도 불이 났다. 화생삼매(火生三昧)일까.

그림 · 조향숙

인담과 우녀는 법의 힘이 가뭄의 풀처럼 시드니…

지난 날의 인담과 우녀만의 섬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인담조차도 차츰 그동안의 오랜 수행으로 이룩한 법(法)의 힘이 지독한 가뭄의 풀처럼 시들어가고 있는 사실이었다.

두사람만의 생활이 그럭저럭 한달이 넘게 되자 우녀는 광법하기는커녕 아예 어리석은 아낙이 되어 있었고 인담도 그런 우녀의 뒤를 부지불식간으로 따르는 듯이 그 심식(心識)의 강건한 체계가 얼음장이 층층으로 녹아내리는 봄의 어느 날처럼 어리수굿한 남정네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괜히 오른손을 공중에 치켜들기도 하고 왼손으로 바위결을 쓰다듬기도 하지만 그런 짓거리조차 어딘지 모자라는 사람의 헛된 동작이었다.

오른손은 반야의 뜻이고 왼손은 삼매의 뜻이라는 그런 대일경소(大日經疏)의 수농부처럼 적당하게 계을러했고 우녀역시 오랜 살림살이에 겨워 느지막히 하루 한 끼니의 점심공양을 지어 두 사람이 발우(鉢盂)대신 사발에 수북한 밥을 담아 달그닥거리며 먹어치우는 것이었다.

이틀에 한번씩 하는 찬물 마찰도 하지 않게 되었고 빨래하는 날도 정한 것이 아니어서 아래채 우녀의 방 구석에는 빨랫감이 제법 쌓여 있었다.

첫여름이었다. 그러나 방은 추운 편이었다. 어쩌다가 인담이 우녀의 방에 가서 몇마디 시시껄렁한 잡담을 나눈 나머지 싱겁게도 코를 골기 시작하였다.

그런 뒤로 인담은 아예 우녀의 방에서 자게 되었다. 우녀도 그런 인담과의 합방을 유난스레 의식하지도 않았다.

두 사람은 겨울을 넘긴 오래된 무우처럼 물렁물렁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두 사람의 밤이 음양간의 그런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말하자면 그들의 정신이 그럽진대 그들의 색육도 거의 털려버린 것이었다. 어느 도둑에게 말이다.

그런 여름이 다할 무렵 무욕도의 낮에도 귀뚜리 울음소리가 심심풀이로 파도소리 사이에 저 세상의 소리인듯 점철되고 있었다.

그때 인담이 어물쩍거렸다. 그러자 패거리 하나가 그런 인담의 따귀를 넓적한 손바닥으로 갈겨댔다.

"그렇습니다"라고 인담이 대답하였다.

"언제부터 여기서 살았느냐?"

"너무 오래되어서… 몇해나 되는지 모릅니다."

그때 다시 한번 따귀에 손바닥이 올라붙었다.

우녀가 나섰다.

"십년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새끼를 낳지 않았느냐?"

"예… 그것이…."

세번째 따귀질이었다. 인담의 한쪽 얼굴에 불이 번쩍 나는 것이었다. 인담이 울고 있었다. 그러자 우녀도 울었다.

소두령은 그런 머저리 같은 두 남녀를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았다.

"그동안… 10년동안… 너희들은 대관절 몇반이나 재미를 보았느냐?"

이 말에는 더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바위 틈서리에 사는 겨울잠 잔 개구리가 힘없이 뛰쳐나오듯이 우녀의 입이 열렸다.

"우리 영감은… 그냥 그런 일을 못하는 고자입니다…."

"으하하하."

"으하하."

"하하하하하."

"하하."

패거리들이 일제히 웃음바다를 피워냈다. 젊은 소두령은 뜻밖에도 마음쓰는 것이 큰 쪽이었다.

"그만두자… 그대신 이 고자 부부가 사는 곳을 대강 뒤져보아라… 혹시 아느냐… 금은보화를 훔쳐가지고 여기로 건너온 것들이 아닌지 모를 일이니…."

패거리들은 그들의 익숙한 솜씨로 아랫채 윗채의 여러 구석을 뒤져보았다. 금은보화는 커녕 제법 쓸만한 놋그릇 따위도 없었다. 다만 불단의 다기(茶器)와 향로가 있었는데 그런 것에는 아무런 눈길도 주지 않았다.

"순 알거지들입니다"라는 패거리의 말에 소두령은 인담과 우녀를 한참 바라보았다.

그가 입을 열었다.

"고자는 놔두고… 이 아낙이 그래도 쓸데가 있을 터이니 배에 태워라"라는 명령이었다.

그러자 소두령 바로 밑의 다부진 패거리가 그 명령에 맞섰다.

"배에 부정한 계집 따위를 태우면 용왕의 노여움이 있을까 저어되는데… 간밤 소인의 꿈이 해괴합니다… 여우 한 마리를 만나 그 여우가 무덤을 파고 있었습니다."

"예끼! 재수없게스리."

그들은 우녀를 데려가는 일을 그만 두었다.

그대신 고자 인담을 감쪽로 옷을 벗겨서 양물을 이리저리 살펴보는 고약한 짓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었다.

"이 사타구니에 금은보화가 달려있구나"라고 한 녀석이 뜻어댔다.

그러자 한 녀석이 "금은보화는 무슨 금은보화… 그저 푹정이 두 개와 씩은 막대기 한 토막이 달려 있는데…."

그 패거리 하나가 인담의 극부를 발길로 세게 찼다. 인담이 꺼꾸러져 극부를 움켜쥐고 기절하였다.

그런 인담에게 우녀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서 있었다.

"떠나자"라는 소두령의 새된 목소리가 났다. 그러자 패거리 하나가 던지 바위언덕을 넘어가다가 위쪽 요사채 하나에 담뱃불 부싯돌을 친 김에 그 불을 질러버렸다.

그 요사채가 대번에 불에 휩싸여 타고 있었다. 인담은 우두커니 그 불을 보고 있었다. 그의 몸에서도 불이 났다. 화생삼매(火生三昧)일까.

그림 · 조향숙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란은 독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난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란에서 찾으십시오.
●생활용품 ●개인업체 ●불교관련용품 ●정보교환소식 ●지제홍보 ●안내 ●각종행사 ●신상품소개등
* 단 특정 매신문의 정치에 위배되거나 본지의 의도와 맞지 않는 내용은 제외됩니다.
문의
(02)737-8881(광고국)
팩스(02)737-0697

보리수
취급품목 | 각종수입향, 염주 |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화:778-5345, 팩스:777-1917

화골신경통 · 목,허리 디스크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전문시술원
院長 張三洙 압구정역
야 · 七一一 · 四三七〇
주 · 五四二 · 七三〇六

십만부 돌파!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4권 출간!
우학스님 수필 · 시 · 소설
■영남불교대학 신입생모집 (053)474-8228
좋은인연 053)475-3707

스님을 모십니다
역학 및 관상학에 능숙한 스님
● 연 령: 45세 이상
● 부산최고 요지의 "포교원"
● 문의시간 : 오전 10시~오후 6시
연락처 : (051)465-1009

백자기 분수대 60% 특별할인판매

전문 도예가 작품
(발해도예, 건흥도예)
大 130,000원
中 100,000원
小 75,000원
낙관 보증서 재중
야간 조명등 부착
건조하고 탁한 공기를 신선하고 부드럽게 바꿔줍니다.
공급처 : K.C 종합상사
☎ 884-0468~9
FAX 889-6705
관악구 신림본동 11-19

神秘한 東洋哲學
신생아 작명 역학 개인지도
선남 · 선녀궁합, 학생적성
☎738-2045,2046
현대불교신문사앞
韓國民俗哲學硏究所

간경화 · 정신질환
神病, 病名없는 病, 완치보장
불교 0552-82-8128,8118
사찰 H.P 011-559-8128
경남 합안군 군북면 하림리 보은암

불미불사
사업의 희부에 모시는 석물, 석탑, 석등(돌)대신, 청동부처님, 청동탑 청동등(청동)으로 조성해 드립니다.
청동불사를 조성할 계획이 있으신 사암의 스님께서는 연락을 주시면 일자를 정해 본인이 직접 찾아 뵙고 원하시는 상호, 도안과 주위 조경 전적까지 상담해 드리겠읍니다.
☎ (0331)282-2931 · (011)211-2931
삐삐 015-8415-29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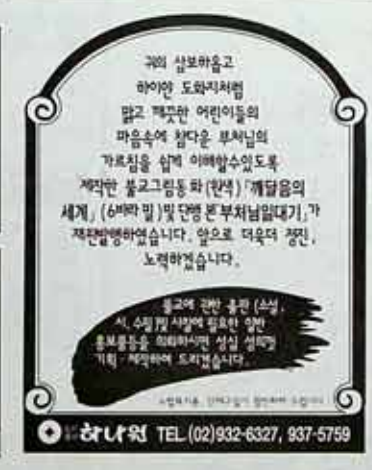
49제 및 영가합동 천도제 필요하신 분 연락주십시오.
전화 : 032-933-9399
호출 : 012-1120-9396

탁자, 닫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주요불사업적
• 합천(해인사) 대적광전 법상 경상
• 의왕시(대원사) 대웅전 수미단 닫집 문짝
• 서울(백화사) 법당 수미단 좌자 목전립
• 충남(상보사) 대웅전 문짝
• 화천(법장사) 대웅전 영무전 문짝
• 충무(삼덕사) 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탁
• 마산(진관사) 대웅전 문짝 닫집
• 포천(약천사) 대웅전 문짝 닫집
• 단양(천진사) 대웅전수미단닫집경탁경상
• 서울(학림사) 외관 불사, 그외 다수 사찰
대진(전승)공예사
핸드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대표 L 합상

氣치료(초능력)
● 병마로 고생하시는 사부대중(스님도 환영) 불치병, 난치병, 고혈압, 심장병, 속병, 간병, 오래된 두통, 부인병, 전신마비, 수족떨림, 초조불안, 공포증, 정신이상(神病), 스트레스로 인한 모든병 기적같이 고쳐짐.
● 교통사고 후유증, 수술 후유증 및 장애자 현대의학으로 치료 불가병.
● 불사후 아픈 스님 상담
충남 연기군 서면 와촌리 80-1
(조치원역에서 10분거리)
광 불 사
주지 대원 합장 0415-63-0749

스님 영불 전용 녹음실
염불 전용 녹음실
● 세계 최신녹음 장비 ● 경력 30년의 녹음기술
● 염불 녹음 하실 스님
● 비용 때문에 망설이신 스님
그러나 주저마시고 연락주세요 최도 좋가 사문 합니다.
연락처 : 0417)551-1562

현정 심성개발 · 상담센터
Tel. (02)583-0041 (지하철 사당역앞)
▷ 본 상담센터는 개인상담을 통해 마음이 아파 홀로서기 힘든 사람들과 마음 나누기 하는 곳입니다.
▷ 오전 전화상담, 오후 면접상담
▷ 적성 인성 등 각종 심리 TEST
▷ 심성개발 및 감수성 훈련&기 소그룹 지도
▷ 단전호흡을 통한 심신건강 및 집중력 기르기
■ 신경성, 집중곤란, 대인불안등 스트레스 적응법 지도.



"무료과외"로 청소년 포교

정광사 학생법회 4월부터 국·영·수 지도

사교육비 줄이고 신심 북돋아

서울시 방배동 정광사(주지 송암) 종무소 앞에는 국어 영어 수학 등의 과외수업을 받기 위해 모여든 학부모와 학생들이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있다. 사찰에서 웬 과외? 남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법당을 빌려 비밀 고액과외를 받으려는 것은 아닐까라고 상상한다면 큰 오산이다.

공부때문에 신앙생활에 적극적이지 못한 중·고생 포교를 위해 정광사는 '무료과외 프로그램'이라는 묘수를 짜냈다. 학생들은 공부도 하고, 부모들은 사교육비 부담을 더는 과외포교.

교계에서 처음 시도되는 정광사의 과외를 겸한 중고등학생법회는 오는 4월 2일부터 중등부 매주 화·목요일, 고등부 매주 월·수·금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30분까지 진행된다. 법사는 정광사 우바이들의 모임 명학회(明學會) 회원들. 한샘 정진 중앙학원 등 서울시내 입시학원에서 '인기강사'로 명성을 날리고 있는 20여명이 주축. 이들은 인기 못지않게 10~20년 이상의 경력을 소유한 일명 '쪽집게강사'들이다.

정광사 무료과외 청소년포교의 성공여부에 따라 다른 사찰 및 단체 포교방편으로 활용될 전망이어서 교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유명강사 교리 적절히 비유 학습효과 높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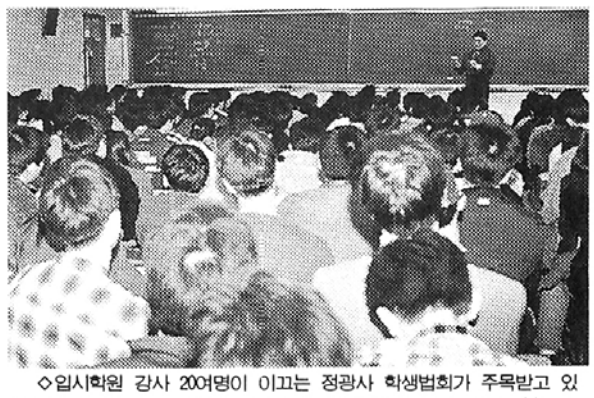
주지 송암스님은 "단순한 지식전달이 아니라 불교교리의 적절한 비유를 통해 교과학습과 불법을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청소년포교의 장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같은 이색적인 법회에 대해 중2 아들을 둔 오은정씨(반포동)는 "아이를 중고등학생법회에 보내고 싶어도 공부시간을 뺏기고, 이성교제 등으로 골칫거리가 생길까봐 꺼려왔는데 정광사가 이런 모든 고민들을 책임지고 아이를 맡아주신다기에 찾아왔다"며 반가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물리를 담당할 이석우씨(한샘학원 강사)는 "학원강사이기 이전에 불자로서 불법을 회향하는 차원에서 아난다(중등부) 사리불(고등부)법등법회를 주도할 방침"이라며 "특히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공부를 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학생과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을 위한 전인교육의 장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명학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송암스님께 불교의식 및 예절, 교리공부를 계속해 오며, 보다 많은 청소년들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02)598-5291

도필선 기자



◇입시학원 강사 20여명이 이끄는 정광사 학생법회가 주목받고 있다.(사진은 법회를 지도 할 강사들이 일선학원에서 강의하는 모습)

"봉사 점수때문에 시작 이젠 보람과 기쁨으로"

두송복지관 '학생 봉사단'

"처음에는 점수 때문에 시작한 봉사활동이지만 지금은 그 보람과 기쁨에 그만 둘 수 없게 됐어요."

학교에서 정해준 연 40시간의 봉사활동 시간을 다 채우고도 매주 토요일 두송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지현스님)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조미주(다대여중 3) 학생의 말이다.

미주양 외에도 다대여중 문찬휘 신혜민 조경진양, 건국중학교 3학년 안태영 김현승 박성일 김현일군 등 모두 8명이 봉사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들은 '학생봉사단'으로 복지관을 찾는 지역민들에게는 이미 인기스타들이다.

이들은 작년 11월부터 차량봉사, 초등학생 한글지도 놀이지도, 청소 등 복지관을 도울 수 있는 일을 직접 찾아다니며 봉사활동을 펴고 있다. 특히 남학생들은 한주도 빠짐없이 돌봐줄 부모가 없는 초등학생들과 놀아주고, 학습지도를 하며 따뜻한 형제애를 나누고 있다.

찬희 혜민 경진이는 "봉사활동을 통해 지체장애인들이 정상인보다 더 남을 배려하는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다"면서 "남을 위해 조그마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기쁘고, 이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며 입을 모았다.

이들은 봉사활동 뿐만 아니라 지도교사와 함께 해인사답사를 다녀오기도 했다. 또 앞으로는 각종 문화행사 관람, 산행, 운동경기관람 등을 통해 자기를 개발하는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지도교사 김기언씨(사회복지사)는 "점수를 위해 시작한 봉사활동을 자기점검은 물론 내적인 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회로 삼고 있는 이들은 다른 학생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며 "진정한 봉사정신을 가진 이들이야말로 이 사회발전의 역군이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부산=천미희기자



◇두송복지관 학생봉사단은 자율적인 봉사활동으로 다른학생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불교복지관 초등학생 영어교실

단체명	수강료	연락처
목동청소년회관	월 2만7천원	02)646-6819
청담사회복지관	5월개강 예정	02)806-1377
삼전사회복지관	월 3만원	02)421-6077
덕유사회복지관	월 2만원	032)325-2161
중리사회복지관	월 9천원	0551)31-8017
송광사회복지관	월 1만7천원	062)941-8248
우산사회복지관	월 1만6천원	062)266-3853
두송사회복지관	월 2만2천원	(051)265-9471

교계 복지관

초등학생 영어교실 운영

"Good afternoon, everyone?(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4일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정규 영어수업이 시작됐다. 교계 복지관은 학부모들의 혼란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영어강좌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설하고 있어 불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김명희씨(강원대 영문과 강사)가 춘천지역 초등학교 2학년 학부모 3백 9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초등학교 영어교육에 관한 학부모 설문조사연구'에 따르면 3명중 2명(64.5%)꼴로 학교교육 이외에 학원이니 학습지를 통해 과외를 시킬 생각인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관의 영어강좌는 영어 사교육비에 대한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수강료가 1만6천원에서 3만원 사이로 누구나 수강할 수 있도록 저렴하며,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 수업전후 복지관 시설을 다양하게 이용할 수도 있어 일석이조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청소년 게시판



'붓다의 메아리' 1천여명 참여

불자학생들이 직접 준비하고 개최하는 '붓다의 메아리' 공연이 지난 16일 1천여명의 중·고등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목동청소년회관에서 열렸다.

올해로 46회를 맞은 '붓다의 메아리' 행사에서는 진관사 동대부고 관음사 대각사 수국사학생회 등이 풍물 허슬 탈춤을 통해 젊음의 끼와 솜씨를 뽐냈다. 〈사진〉

한편 이날 명성여고 최소리 학생 외 2명이 모범청소년상을 수상했다.

공창복지관 25일 자녀 性교육 강좌

성범죄를 비롯 성(性)으로 인한 갖가지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공창종합사회복지관(관장 심산스님)이 25일 교계 복지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전문 성교육강연을 열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내일신문 성교육센터 구성애소장을 초빙, '자녀 성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하는 이번 강연에서는 그동안 제대로 알지 못했던 성교육의 필요성, 오해되고 있는 성, 바람직한 성개념 정립 등에 대해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내용을 강의한다.

이번 강연은 성이 지나치게 금기시되는 사회에서 성의 긍정적인 면을 환기시키고 생명, 사랑이 조화된 성의 의미를 확인시키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051)361-2063

만화 백유경 百喩經 이향원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란은 독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난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란에서 찾으십시오

●생활용품 ●개인업체
●불교관련용품 ●정보교환소식
●자체홍보 ●안내
●각종행사 ●신상품소개등

* 단 독자 여러분의 정서에 위배되거나 본지의 의도와 맞지 않는 내용은 제외됩니다

문의
(02)737-8881(광고국)
팩스(02)737-0697

사찰안내
10여년 정성으로 살아온 도량을 건강이 좋지 않아서 부득이 양도하고자 합니다. 포교와 노후를 위해서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연락전화 011-279-4600
(02)233-2500

포교당 안내
■ 위치 : 천안 신터미널
■ 평수 : 40평
■ 전세 : 3천5백
최고의시설 · 가격 절충
연락처 0418)42-3232

삶을 함께 나누는 사회
심장병 · 안면기형 · 백내장
환자가 후원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 행사안내 (3개시군 실시완료)
97년도 심장병 무료 검진실시 예정
본회에서는 96년도에 이어 97년도에도 경상남도 무료검진 사업에 적극 동참하고자 97년도 3월 6일부터 4월 26일까지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심장병 무료검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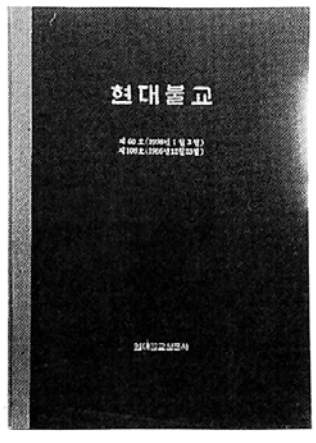
연번	순회지역	순회검진일자
37	산 청 군	3월27일 ~ 3월28일
38	함 양 군	4월 3일 ~ 4월 4일
39	거 창 군	4월10일 ~ 4월11일
40	합 천 군	4월17일 ~ 4월18일
41	통 영 시	4월24일 ~ 4월26일

*도움을 기다립니다. 후원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사단법인 감로심장회
T. 0591)747-0106
F. 0591)747-0107

포교당안내
■위 치 :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평 수 : 30평 (법당, 방2)
■보증금 : 1,000만원(월세 45만원)
■시설비 : 1,000만원
연락처 (0346)68-6553
015-165-4488

포교당 안내
▶ 50평 · 시설일체 완비
▶ 보증금 3000만원
※ 기타절충
연락처 : 02)248-0479

사찰안내
▷위치 : 충남 논산군 연산면 송정리
▷법당 : 목조30평, 요사2동(25평,조립식 51평)
▷대지 : 사용평수3,000평
▷특징 : 대전, 논산 중간지점 산세수려하고 약수물나옴 사찰창건 30년이상됐음
▷가격: 1억5천(가격조절가능)
전화 : 0461)34-1742 · 011-425-1362

살아있는 法語, 살아있는 佛敎史가 !
'96년판 현대불교신문 합본집 발간
이천만 불자 여러분의 참 대변지, 수행의 길잡이인 '현대불교신문'이 1호에 이어 합본 '96년판 을 발간하였습니다.
주옥같은 법문,
불교의 근본 원리를 속시원히 파헤친
기획물들, 생생한 불교사의 발자취…
이 모든 것들을 손상 없이
잘 간직하고 싶었던 분들,
매주마다 찾아오는 '현대불교신문'을 정말 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심하셨던 분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셨던 분들은
지금 곧 연락 주십시오.
즉시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수량 관계로 선착순 판매 합니다.
■ 합본집('96년판) : 제60호(1996년. 1 . 3) - 제 108호(1996.12.25)
■ 가격 : 50,000원(발송비 별도)
■ 구입신청 : 현대불교신문사 경영관리국 전화 : (02)737-8881 팩스 : (02)737-0697
불법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주)현대불교신문사 (代)737-8881



불교전화번호부 나와

불교방송이 '97불교전화번호부'를 발간했다.

불교정보의 현대적 구축과 정보공유를 위해 발간된 이 책에는 사찰, 종단, 법인, 언론, 출판등 주요기관과 신행회, 여행사 등 불교와 관련된 단체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알기쉽게 수록했다.

불교전화번호부는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제작 보급될 예정이며, 내용의 정확성과 편리함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증보해 나갈 계획이다. 무료 배포. (02)705-5114



전국문화원 '한눈에'

문화체육부와 전국문화원연합회가 전국 1백81개 지방문화원의 조직과 시설, 주요사업 간행물 연혁 주요인사등 관련자료를 총망라한 〈전국문화원〉을 펴냈다.

지방문화원의 소개를 통해 각 문화원간의 정보교환을 도모하기위해 발간된 이 책에는 지방문화원 진흥법 등 관련 법령 자료와 문화정관 표준안도 함께 실었다. 비매품

寺誌 발간 우리절 알리기 '통로'

9백여 전통사찰중 20여권뿐

최근 나온 '봉은사지' 창건연혁·가람구조 소장문화재등 총정리 "사지발간 촉매역할"

사찰에 얽힌 유래와 전설을 비롯 가람의 배치와 모습, 불상, 탑 등에 이르는 유형무형의 갖가지 귀중한 역사와 예술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사지(寺誌)다. 최근 〈봉은사〉사지 발간을 계기로 사찰의 역사와 문화를 한곳에 집대성하는 사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 전국 9백여 전통사찰가운데 사지가 제대로 남아있는 사찰은 손에 꼽을 정도, 그나마 전해내려온 사지도 유실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까지 간행된 사지는 20여권. 지난 93년부터 사찰문화연구원이 발간한 〈용주사〉〈보문사〉 등 칼라판 사진을 곁들인 현대적 모습의 사지를 비롯 아세아문화사가 지난 77년부터 한문자료를 바탕으로 〈만덕사지〉〈금산사지〉 〈견봉사 유점사본말사지〉 등 13권의 '한국사지총서'를 펴냈다. 또 〈해인사지〉, 〈직지사지〉등 사찰자체에서 공들여 펴낸 대형 사지도 있으며 이밖에 한국불교문화원이 펴낸 '한국의 사찰 시리즈'가 있다.

최근 발간된 〈봉은사〉사지의 경우 창건 연혁과 가람구조, 문화유산 등을 소개함과 동시에 봉은사 관계문헌과 역대 주지명단, 주요인물, 봉은사 고지도, 그리고 봉은사의 현재모습까지를 담아냈다. 칼라사진과 함께 쉬운 설명으로 구성된 〈봉은사〉사지는 사찰홍보안내서 역할까지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비문탁본에서 사찰비품목록에 이르기까지 사찰에 있는 모든 자료를 모은 것이 바로 사지"라고 설명하는 아세아문화사 권계영 상무는 "사지는 역사의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계속 발간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사지제작은 사찰 역사의 보존과 전승 측면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불사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자료수집과 검증 등 많은 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사지발간에 관심을 가지는 사찰은 그다지 많지않다. 또 대형도서관이나 관련학자 등을 제외하고는 수요자도 별로 없어 소량출판되고 있다.

아세아 문화사는 조만간 14권째인 〈화엄사지〉를 발간할 예정이며, 사찰문화연구원도 꾸준히 사지발간에 힘쓸계획이다.

사찰문화연구원의 사지 발간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동국대 박물관 한상길연구원은 "읽는 책과 보는 책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보다 쉽고 대중적인 사지제작으로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은자 기자



◇사지에는 사찰의 연혁과 인물, 소장 문화재 등에 대한 모든 자료가 담겨있다.

유학경험토대 '인도의 오늘' 생생히

내가 알고 싶은 인도 | 백좌홈 外 지음

화제의 책



인도는 과연 신비의 나라인가? 최근 몇 년 사이 국내에서 일고 있는 인도바람에 대해 '인도를 객관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만이 인도를 제대로 아는 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내가 알고 싶은 인도〉다.

변화하고 있는 현대 인도사회의 실상과 인도인의 실생활에 대해 백좌흠(경상대) 이광수(부산외대) 김경학(전남대)교수 등 세사람이 인도에서 유학하며 직접 체험한 이야기들을 공동저술했다.

소형승용차의 증가, 합성섬유의복 착용 등 중산층을 중심으로 최근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인도인의 일상생활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도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카스트제도의 잔재들을 하층민의 삶을 통해 알려주고, 과거 인도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였던 힌두교의 오늘날 모습들을 보여준다.

〈한길사 1만원〉

'불교와 문화'로 제호변경

계간 '다보' 내용 보강 '새롭게'… 신국판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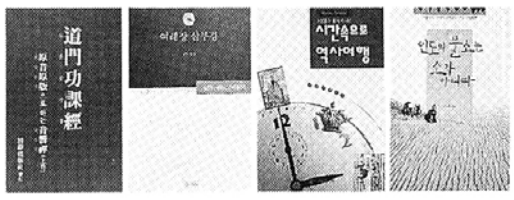
현실의 제문제에 대한 불교적 해결방안 모색과 불교의 본래적 기능인 사회계도를 목표로 발행되온 계간 〈다보〉가 〈불교와 문화(97년 봄호 통권 21호)〉로 제호를 바꾸고 우리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문화지로 새롭게 태어났다.

독자들이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판형도 기존의 4~6배판에서 신국판으로 변경했다.

이번호는 특집 '전생과 나'에서 문헌사적으로 살펴본 전생과 윤회, 정신의학적 측면에서 본 최면과 전생요법, 불교윤회설의 의의 등을 통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전생을 인과론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또 대승경전이 부처님의 친설이냐, 아니냐의 '대승불설 비불설론'을 지상논쟁에 부쳤다. '인물포커스' 역사인물 재발견 시리즈 법공스님, 화보 '사진으로 보는 성보기행-96년 새로이 지정된 성보를 찾아서' 등을 싣고 있다.

계간에서 격월간 월간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기도 한 〈불교와 문화〉는 21세기 정보화시대를 선도하는 불교문화대중지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다져나갈 계획이다.

새로나온 책



▲여래장 삼부경(원경 역)=초발심이 성불로 이어지는 중요한 근거는 모든 존재가 여래장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불의 근거인 여래장사상에 대한 바른 이해를 여래장 삼부경전인 〈승만경〉, 〈대방등여래장경〉, 〈부증불감경〉을 통해 도모하고 있다. 〈불지사 6천원〉

▲도문공과경(道門功課經·유수원 撰)=우주는 어떻게 생겼는가, 어떻게 수행하여 사리가 이루어지는가 등 불가의 여러가지 의문들을 불교·도교경전에 의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 김지장보살, 최치원 등 수행에 진력했던 64 선지식의 다양한 일화와 인연담 등을 담고 있다. 〈청정 9만8천원〉

▲백두산(심혜숙 지음)=우리의 역사와 더불어 수난을 함께한 민족의 명산인 백두산의 모든 것을 소개한 책. 백두산의 장군봉을 비롯해 백운봉, 천문봉, 철벽봉, 차일봉등 2천5백미터가 넘는 여러봉우리들이 천지와 함께 어우러진 장관을 사진과 함께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대원사 3천5백원〉

▲시간속으로 역사여행(표성훈 지음)=여행전문가 표성흠씨가 국내 역사현장들을 몸소 돌아보며 쓴 우리나라 역사전반에 관한 체험 여행서. 이 책은 우리나라 문화유산과 외국의 문화유산과의 상관관계도 학술적으로 살피고 있다. 〈규장각 7천원〉

▲인도의 물소는 소가 아니다(신상환 지음)=총10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인도를 자전거 하나로 여행한 신상환씨의 기행르뽀 세계의 골목길 인도대륙편. 인도의 결혼식과 풍습 등을 소개하고 있다. 〈없어지지 않는 이야기 7천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생활속의 기도법	효 림	일 타
2	불교입문	조계종	조계종포교원
3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	여시아문	혜 원
4	영원한 자유의 길	장경각	성 철
5	금강경 대강좌	여시아문	이재열
6	힘든세상 道나 닦지	가서원	효 림
7	도솔천에서 만납시다	세계사	장순용
8	삼소굴 소식	극락선원	명 정
9	화엄경 강의	불 광	무 비
10	49재 공덕과 의미	편집부	이바지

구입문의:(02)737-0695

명사추천 불서 100선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김 수 경
〈아주의대 교수·생화학〉

대학시절 나는 한국인으로 우리나라의 정신적 맥을 이어온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불교와 인연을 맺었고, 스님들의 법문과 책 속에서 생로병사와 같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꾸준히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면서도, 풀지 못한 수수께끼처럼 마음 한 구석에 잠시 남겨 놓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일상생활로 돌아와야 했다.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 해답을 불교에서는 '수행'이라는 과정을 통해 깨닫게 하고, 그 수행의 바탕이 되는 것이 마음 닦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용화 刊)는 마음 닦고 참 나(眞我)를 찾아가는 방법을 구체적이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잘 설명해 놓았다.

불교는 생활 속의 종교이고, 처처불물(處處物物)이 부처님 아님이 없고, 부처님 아니 계신 곳이 없다. 하지만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가르침을 제대로 실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이며, 실행하고 싶어도 범부의 지혜로는 밝은 실행법을 몰라 허덕이고 있지는 않는가.

'어떻게 경계하고 참마음 낼까' 세상 어둠서 밝음으로 길 안내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에서는 세상 속에서 밝음을 향하여 수행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안내해준다.

가정, 직장 또는 주변 사람들 속에서 부대끼다가 문득 봄빛 오르는 푸르른 산을 보게 되면 모든 것 떨쳐 버리고 떠나고 싶을 때…

그러나 내가 떠나야 할 곳은 번잡한 이 세간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속의 분별망상, 보물처럼 움켜쥐고 있는 그릇된 아상 탐(貪) 진(嗔) 치(痴). 그리하여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자유로이 마음을 내는 내가 돌가할 곳은 본래의 나 자신에게로일 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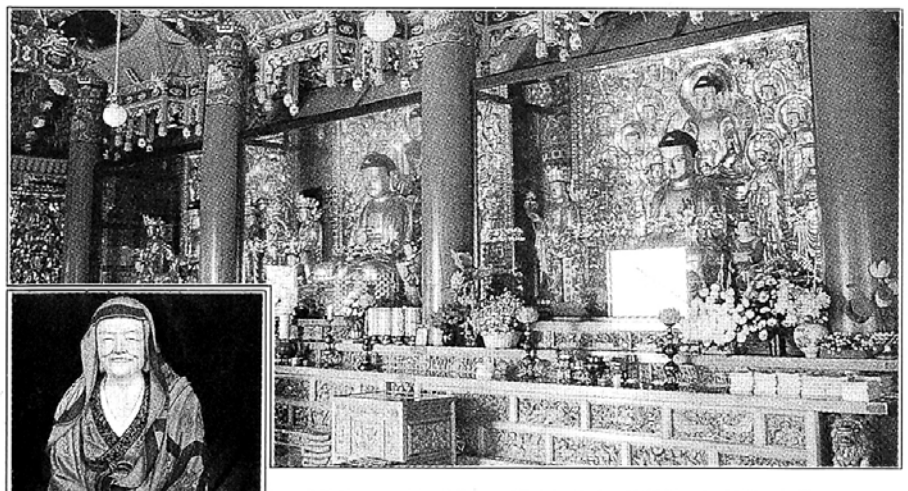
저자 김재웅법사는 밝음을 이룬 스승 백성욱 박사님의 엄격한 탁마 속에서 평생을 수행 정진하며 살아온 이야기를 이 책에서 정갈하게 보여주며, 봄물 차 오르듯 자연스럽게 부처님의 푸르름으로 돌아가는 지혜를 펼쳐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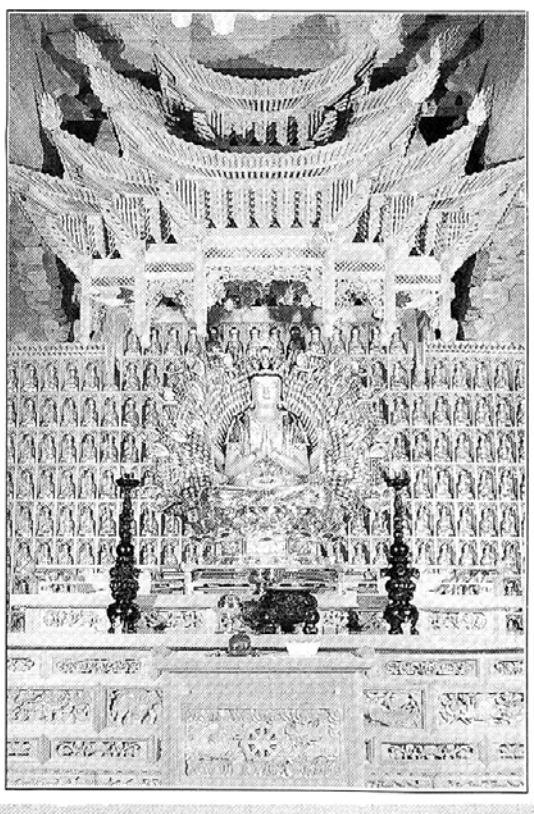
공부하는 이들이 3천배, 염불, 좌선, 독경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생활속에서 수행하고 원하는 바를 이루었을 때 자칫 기복으로 흐르거나, 아상에 집착하는 경우를 보게 되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경계하여 자유로이 마음을 낼 것인지, 이 책을 읽는 불자여러분은 거듭거듭 마음으로의 푸르른 떠남을 체험할 것이며 새로워지는 자신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번호로 '명사추천 불서 100선'을 마칩니다.
그동안 애독해주신 득자께 감사드립니다.
121호부터 '나와 경전'이 연재됩니다.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 내부장엄불사(수미단, 신중단, 영단, 닫집…) 등등
- 불교 목공예품~ 법상, 경탁, 경상, 불전함, 목어, 호신인등, 연설대, 등등 목공예품 일체

불사의 전당 **불교조각원** 서울 종로구 견지동 81번지 2층 (조계사 건너편)

■사 무 실 (02) 738-8447~8
■공 장 (051) 804-8907
■부산사무실 (051) 556-0541~3

대표 **이 진 형** 합장

"佛母는 더이상 남성영역 아니예요"

불화강좌 여성들 발길

신심고취·창작의욕 '일석이조'
각종 대회 입상 실력 과시도

"불상을 조성하거나 부처님을 그려 모시거나 채화하여 불화로 장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예배할 수 있게 하면 헤아릴 수 없는 복을 누리고 불도를 이룬다." 〈증일아함경〉에 나오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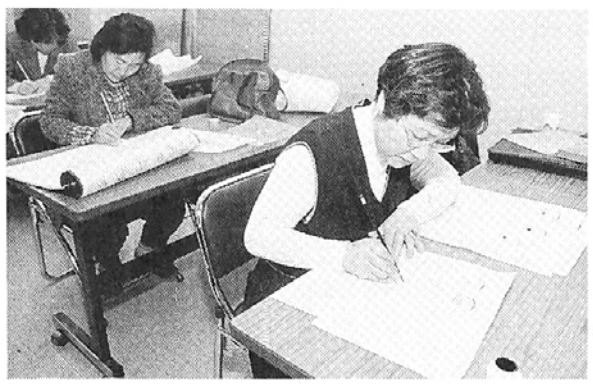
부처님을 그리거나 조각하는 사람을 불모(佛母)라 지칭한다. 어미 모(母)자가 들어가 있지만 그동안 불모는 남자의 영역이었다. 최근 불모(佛母)가 되고자 하는 여성들이 크게 늘고 있다.

불화그리기는 부처님을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불심고취 방편으로도 선호되고, 취미로 시작하여 불미전이나 전승공예대전 등 전통미술대회에서 입상으로 연결하는 여성들 수도 만만치 않다.

최근 제16회 불미전에서 섬세한 수법으로 그린 '아미타회상도'로 금상을 수상한 김성희씨는 불화가 전연호씨(053-952-4241)에게 불화기법을 사사한 여성불자이다. 고영을씨(광주여고 교사)도 미술전공자로 광주시 탱화무형문화재 구봉스님에게 불화를 배워 지난 13~19일 프랑스 파리에서 탱화전을 개최, 서양인들에게 탱화의 아름다움을 소개했다.

불화는 단청 인간문화재 만봉스님(02-392-3245)과 준 인간문화재 박정자씨 화실(02-363-1161) 등 불화가들의 개인 화실과 불교문화센터(02-703-0101), 조계사(02-720-1390)의 불화그리기 강좌, 동방불교대(02-763-0229)나 삼화불교대(02-511-2026) 불교미술과 등 여러 곳에서 가르치고 있다. 이들 수강생들의 90% 이상이 여성들이다.

신촌 봉원사옆 만봉스님화실을 거쳐간 수강생은 수백을 헤아린다.



여성제자 1호가 박정자씨. 박정자씨는 지난 86년 불화로 전승공예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지난 88년 탱화부문 준 인간문화재로 지정받았다. 만봉스님의 여성제자들인 원미회 양선희 최문정씨 등 이수자들도 불미전과 전승공예대전에서 특별상을 수상하는 등 입상경력이 화려하다.

현재 서울 충정로에서 전통불화 교실을 열고 있는 박정자씨는 "불화를 그리다 보면 환희심이 늘 충만해 웬만한 일에는 짜증을 내지 않을 정도로 인내력이 생기고 남을 위하는 자비심·봉사심도 늘어난다"고 말한다. 박씨에게서 배운 여성 불자들이 불화를 그리며 불화기법을 옷 쿠션 등 생활패션에도 도입하는 모임 '마하수로반'까지 만들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18기를 맞은 불교문화센터 불화그리기반 회원은 전부 여성불자들. 3개월 코스로 열리는 불화반은 한번 입회하면 몇년이고 꾸준히 배우는 여성들이 대부분이다. 문화센터에서 불화 배운지 5년 됐다는 박혜숙씨(56 강북구 수유동)는 "오래전부터 부처님을 그려보는 것이 소원이었다"면서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상을 직접 그리다보니 신심이 더욱 깊어지고 매사가 조심스러워진다"고 말한다.

◇불교문화센터 불화그리기반에서 부처님 상호 연습에 몰두하고 있는 회원들. 회원 전부가 여성불자들이다.

불교문화센터, 동방불교대, 삼화불교대 등은 매년 수강생들의 작품을 모아 불화전을 열어 그동안의 정진을 보여주는 기회도 갖는다.

전문가들은 초(草) 그리는 데만 몇년이 걸릴 정도로 섬세함과 차분함이 요구되는 불화가 기법상 여성들에게 아주 적합하다고 말한다.

우리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진 요즘 탱화의 미적 가치가 한층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그림을 그리며 창작욕구도 채우고 신심도 키워가는 불화그리기 열기가 앞으로도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경숙 기자



"불교미술의 앞날 밝다"

'97 문화유산의 해 기념 제16회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입상작 전시회가 지난 19~25일 공평아트센터에서 열렸다. 19일 개막식에는 대상을 받은 오해균씨를 비롯 입상자들과 석주(조계종 원로) 월주(조계종 총무원장) 스님 등 교계 지도자스님들과 송석구(동국대 총장) 김응현(서예가) 서세옥(한국화가) 김종규(삼성출판박물관장) 한병삼(문화유산의 해 집행위원장) 강운태 내무부장관 김종민 문체부차관 등 각계에서 3백여명이 참석 축하했다. 한편 이날 불미전에는 오느름 국악실내악단 반주로 불미전 주제곡 '불미전 옹호게'(김회경 작곡)가 불려져 눈길을 모았다.

불심시심 〈81〉

지팡이에 맡긴 걸음

身入白雲處 (신입백운처)	이 몸 흰구름 찾아들면
白雲如我情 (백운여아정)	흰 구름은 나의 정서를 닮다
逍遙自在去 (소요자재거)	자재로이 거니는 걸음 걸음
逐景縱橫行 (축경종횡행)	경치따라 이리저리 가네
尖岫撐天立 (첨수탱천립)	우뚝 솟은 산은 하늘 받쳐 서 있고
長江割地回 (장강할지회)	긴 강은 땅을 갈라 빙 둘렀다
無心一衲子 (무심일납자)	무심한 저 스님
飛錫自徘徊 (비석자배회)	지팡이 날려 혼자 오락가락하네

위 시는 송계(松桂: 1685~1766)대사의 시이다. 대사의 법명은 나식(瀨湜)이고 자는 취화(醉花)이며, 송계는 법호다. 속가는 조선왕조의 후손으로 태종의 둘째아들인 효령대군의 후예이다. 이러한 가계로 보아 대사의 출가는 남다른 데가 있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갖게 한다. 출가 후의 사자관계도 한 스승만을 섬기기보다도 당시의 높은 스님을 고루 모셨다. 침굉(枕肱) 춘파(春坡) 백암(栢庵) 환성(喚醒)을 두루 섭긴 것으로 행장은 밝히고 있다.

대사는 계율에 지나치게 구애됨이 없이 문인적 기질로 술과 시에 호탕함이 있어 당시에는 시인으로 인식됨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니, 취화라 한 그의 자호를 보더라도 이해된다. 위의 시도 '산행(山行)'이라 제한 시로 자재로운 대사의 한 면모를 잘 보여준다. 첫 연에서 이미 흰 구름이 나의 감정에 동화되어 오고 있음을 말하였다. 내가 흰 구름을 찾아갔지만, 내가 흰 구름을 닮는 것이 아니라, 구름이 나를 닮아오고 있다. 이러니 자연의 주인이 바로 나인 것이다.

이러한 자세이니 모든 것이 자재로울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발길도 가벼워 경치따라 이리저리 거닌다. 굳이 행선지를 정해 놓은 걸음이 아니라, 경치따라 종횡으로 자유롭다. 종횡이란 가로 세로로 공간적 구애가 없는 표현이다. 이 구애없는 공간을 다음 구에서 더 구체적으로 보이고 있으니, 하늘 떠받치고 있는 산이요, 땅을 가르고 둘러 있는 강물이다.

시적 구성이나 수사도 매우 짜임새가 있다. 상하 좌우가 한 공간으로 흡수되었으니, 하늘 받침이나 땅의 가름도 성공된 수사라 하겠다. 이런 구도에다 무심한 하나의 스님으로 휘감하고 있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2회 현대불교문학상 나태주씨 '기쁨' 선정

제2회 현대불교문학상에 중견시인 나태주씨(논산초등학교 교감)의 시 '기쁨'이 선정됐다. 오세영 김재홍 송수권 조오현 초동호 씨 등 심사위원들은 "가치관의 전면해체 시대에 직면한 현대인들에게 나태주의 시들은 삶의 깊은 체험과 서정을 차원높게 결합시켜 자신이 오래 그리고자 했던 득의(得意)의 세계를 보여준다"며 "詩 '기쁨'은 난초잎을 통해 존재의 깊숙한 의미까지 천착해낸 수작"이라 평했다.

지난 71년 서울신문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한 나태주시인은 〈대숲 아래서〉〈막동리소묘〉〈풀잎속 작은 길〉 등 20여권의 시집과 〈절망, 그 검은 꽃송이〉등 3권의 산문집을 펴 냈다.

기 쁨

난초화분의 휘어진
이파리 하나가
허공에 몸을 기댄다

허공도 따라서 휘어지면서
난초이파리를 살그머니
보듬어 안는다

그들 사이에 사람인 내가 모르는
잔잔한 기쁨의
강물이 흐른다



"불화 진면목 볼 기회"

만봉스님 작품전 4월 3~9일 대구시민회관

우리 시대 최고 금어(金魚)중 한 사람인 만봉스님(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 기능보유자, 봉원사)의 불화전시회가 오는 4월 3일부터 9일까지 대구 시민회관 상설 전시관에서 개최된다.

미수(米壽)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는 스님은 이번 불화전에서 관세음보살도를 포함 대작과 후불탱화 나한도 달마도 소품, 단청문양, 도자기회화 등 50여점을 선보인다. 만봉스님 전시는 지방에서는 처음 열리는 것으로 80여년동안 오로지 불화와 단청에 정진하며 구도수행해온 스님의 원숙하면서도 탈속한 필치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

생동감있는 얼굴 표정과 세밀한 의습묘사로 금어중의 금어로 평가받는 만봉스님은 90세가 가까운 요즘도 목욕재계와 좌선으로 마음을 모은후 불화에 임한다. 8살때인 지난 1916년 당대 단청의 1인자 김예운스님의 문하가 되어 10년만에 금어자격을 얻은 만봉스님은 금강산 유점사 표훈사, 남한산성, 남대문, 경회루, 보신각 등 주요 사찰과 유적지의 단청과 불화를 그렸으며 국내외에서 여러 차례의 전시회를 가졌다.

문화 소식

이승일씨 '空 판화전'

일체만물에는 고정불변하는 실체가 없다는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말 공(空). 중견판화화가 이승일교수(홍익대 미대 판화학과)가 '空'을 주제로 한 판화전을 28일까지 인천 다담갤러리에서 열고 있다.

이번 판화전에는 자연 이미지와 기하학적 패턴의 복합적 구성으로 처리한 이미지작품 20여점이 선보인다. 단색조의 평면과 좌우대칭 구조가 엄격한 틀을 구성하거나 부드러운 색조가 물결처럼 보이는 배경에 부분적인 중간색이 액센트처럼 등장하며 원근법을 무시한 작가의 자유로운 상상력이 현실을 넘어선 피안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032)461-3461

울산 정토사 황금백자전

울산 정토사(주지 덕진)는 삼천불전회관 개관기념 황금백자 전시회를 갖는다. 오는 27일부터 4월 10일까지 열리는 황금백자전은 도예가 은정식씨의 작품으로 연꽃문양 등 순금무늬가 수놓아진 각종 도예품과 생활자기 등 1백여점이 전시될 예정이다.

한편 오는 27일 오전 11시부터 열리는 전시회 개막식에서는 고승 초정 설법과 울산불교여성합창단의 찬불가 공연도 벌어진다.

문화유산의 해 달력 발간

'97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는 문화유산의 알기 찾기 가꾸기 사업의 구체적인 일정표가 수록된 문화유산의 해 추진 행사 달력을 발간했다. 이 달력에는 본사가 매달 추진하고 있는 '불교문화 테마여행' 등 75개 사업 106건의 행사와 지정문화재 현황표가 들어있다.

석왕사신도 4인 사진전

부천 석왕사 사진동호회 심상회원인 조현태 민선기 이치남 김동선씨 4명이 불교주제의 '아뇩다라삼먁삼보리심' 사진展을 26일까지 대학로 예총회랑에서 갖는다. 사찰 관련 사진 32점이 전시된다. (02)744-7874



般若佛教 信行論

"마땅히 다음과 같이 알아야 한다. 반야바라밀이 바로 부처님이다. 반야바라밀은 부처님과 다르지 않고 부처님은 반야바라밀과 다르지 않다. 반야바라밀은 모든 부처님을 낳는 어머니고 일체 불법의 지도원리며 나아가 그차체가 부처님이다."

『대품반야경』「법청품 제37」

반야와 불교는 둘이 아니다. 불교를 무엇이라고 정의하든 간에 반야없는 불교는 상상할 수조차 없다. 불교야말로 반야를 설한 것이고, 반야를 증득하기 위한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불교계에는 많은 종단이 『금강경』을 소의경전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반야사상에 입각한 신행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심지어 반야사상 전반을 다루고 있는 저서조차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반야사상을 가장 완벽하게 설하고 있는 『대품반야경』을 중심으로 반야사상에 입각한 신행의 요체를 신앙론·반야론·방편론으로 구성한 이 책은 반야행자들의 신행 지침서가 될 것이다.

혜담지상 지음

양장본·값 15,000원

혜담지상 (慧潭至常)

1949년 경남 울산에서 출생, 부산 금정산 범어사에서 득도하였으며,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해군군종법사 대위로 전역, 일본 불교대학 대학원에서 「大品般若經에 있어서의 般若波羅蜜 硏究」로 석사과정을 수료하였다. 현재는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장으로 있으며, 역저서에 『반야경의 신앙』과 『大品 摩訶般若波羅蜜經』 상·하권이 있다.

불광출판부 우 138-190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160-1
대표전화 420-3200 팩시밀리 420-3400

삼화불교대학 신입생 추가 모집

1. 모집학과 및 안내

◎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 집 인 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 30%
불 교 학 과	2년	•주간 ○명 •야간 ○명	• 고등학교 및 동등 이상 학력자 •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1통 • 본교 소정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5매	•조계종 승려 포교사(타종 승려·포교사도 가능)
	4년	•통신 ○명		
유아교육과(유아 포교과)	2년	•주간 ○명 •통신 ○명		
중 국 어 과	2년	•주간 ○명 •야간 ○명		
불 교 미 술 과	2년	•주간 ○명		
신문방송과(불교보도과)	2년	•주간 ○명 •통신 ○명		

2. 학 교 연 혁

1989. 7. 3 학교설립공고
90. 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 4년제 개교
90. 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90. 8 본교학생 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증 취득
91. 3 전문부 주간·야간 2년제 개설
91. 8 본교학생 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1. 8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수
92. 2 제1회 졸업생 배출
92. 7 국가인정 유아교사 2급 119명 자격 취득
93. 2 제2회 졸업생 배출
93. 3 불교미술과·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93. 8 본교 학생 42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4. 2 국가 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32명 취득
94. 2 제3회 졸업생 배출
95. 2 국가 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49명 취득
95. 2 제4회 졸업생 배출
95. 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95. 8 중국남경중의약대학 분교체결
95. 11 본교학생 41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96. 2 국가 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40명 취득
96. 2 제5회 졸업생 배출
96. 11 본교학생36명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97. 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20명 취득예정(위탁교육 수료후)
97. 2 제6회 졸업생 배출 예정

3. 특 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법사 자격증·불교유아포교사 2급 자격증 수여
•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입학 가능

4. 전 형 방 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면접

5. 원서교부 접수 및 문의처

본교 : 511-2026~8
조계사앞 삼보원 : 732-9904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 바람
(☎ 511-2026~8, 511-1080)

135-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팩스:511-1080
삼 화 불 교 대 학

中산동 불교유물 대량발굴

불상등 2백여점…북위~북송대 추정 용흥사지서

중국 북위(北魏)시대부터 12세기 북송(北宋)시대에 이르는 약 5백여년 간의 불교유물이 다량으로 발굴돼 관심을 끌고 있다.

〈중국문물보(中國文物報)〉 최근호에 따르면 중국 산동성(山東省) 청주시(靑州市)박물관 발굴조사팀은 지난해 10월 박물관 인근 건축현장 지하에서 불상, 보살상, 나한상 등 총 2백여점의 유물을 발굴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불상이 출토된 장소는 5세기경 북위시대에 창건돼 13세기 원(元)말 명(明)초기에 소멸된 용흥사지(龍興寺址)로 추정된다고 발굴팀은 전했다.

발굴조사팀 관계자는 "발굴된 출토품은 석회석, 한백옥(漢白玉), 화강암, 청(鐵), 진흙, 나무, 도자(陶磁) 등 7종의 다양한 재질로 제작됐다"며 "발굴유물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석상은 그 조각술이 매우 뛰어나, 북위시대 최고의 예술품으로 평가받는 돈황(敦煌), 운강(雲崗), 용문(龍門), 공현(鞏縣) 등의 조상(造像)기술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고 밝혔다.

출토품들은 비교적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일부 불상은 채색에서 불교의 고사(故事)가 그려져 있거나 부처님, 보살, 비천(飛天), 공양인(供養人), 화염문(火焰紋) 등이 묘사돼 있다.

특히 유럽풍을 느낄 수 있는 기법의 몇몇 작품들은 실크로드를 통한 활발한 동서문화 교류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중국 불교사 및 미술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해외불교

미얀마 종교분쟁

회교도 불자소녀 성폭행 발단

미얀마 북부 만달레이市에서 발생한 회교도의 불자 소녀 겁탈 사건이 종교분쟁으로 번져 당국이 만달레이를 포함한 다섯 개 시에 1급 경계경보를 내리는 등 미얀마의 사회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승단을 비롯 불자들이 회교 사원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경찰은 집압과정에서 스님들을 체포했다. 이중 15명은 즉결재판에서 장기 징역형을 선고 받고 투옥됐다.

미얀마의 반체제 승려단체인 '미얀마 청년 승려연합'은 "군사정권이 이번 사건을 승려탄압의 기회로 삼고 있다"며 미얀마 정부의 무력진압을 비난했다.

미얀마 당국은 만달레이 지역에 통금을 실시하고 5명이상의 집회를 금지시키는 한편 일부 거리에서 주민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BBS 경리사고' 어떻게 돼가나

8억횡령 추가확인 종회사회분과위

어음할인후 지국 송금처리 위장 수법 밝혀

경영진 문책유보…노조 재단불신 서명운동

조계종 중앙종회 사회분과위원회(위원장 여연)는 불교방송 공금횡령 및 유용사건과 관련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불교방송 96년도 재무조사 결과 받을 어음 8억4천만원 횡령이 추가발견 됐다고 밝혔다.

삼일회계법인 보고서에서 조차 지적되지 않은 이 돈은 사장과 상무의 승인절차를 거쳐 받을어음을 할인, 대구지국에 송금한 것처럼 허위로 처리 횡령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자금향방 규명이 사태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기밀비 부분에서도 기밀비 집행에 대한 정당한 승인이 없이 부당하게 지출됐다고 삼일회계법인이 지난 1월 보고서를 통해 밝혔으나, 기밀비에 대한 지출결의서 재검토 결과 모두 상무와 사장이 결재했다는 것.

종회사회분과위는 또 불교방송 前 경리직원 명의의 개인 통장에서 96년 8월부터 연말까지 당일 입금액이 당일 출금된 6억원 규모의 내역에 대해 돈세탁의 흔적으로 추정된다면서 직원봉급이 방송국이 아닌 모처에서 前 경리직원 개인통장으로 지급일 하루 전 한 번에 입금된 부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불교방송 재단이사회는 지난 19일 이사회에서 이사장 종하스님과 조해형사장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으나 '선수습 후재고'의 원칙하에 사표를 반려했다. 따라서 이번 공금횡령 및 유용사건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최고경영진의 문책은 사실상 보류됐다.

또한 지난 2월 중순부터 재단이사회 차원에서 재감사 작업을 벌여왔던 수습대책위원회(위원장 영담)가 이날 이사회에서 '불교방송 경리사고 조사결과 종합보고서'를 통해 사건조사경과를 보고했으나, 정작 중요한 96년 공금횡령 및 유용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대책위 조사에서 보고된 이상의 조사성과를 보여주지 못해 미흡했다는 여론이다.

특히 94, 95년도 가수금 지출내역등만 부각시켜 가수금과 비자금에 대한 의혹을 그대로 남겼다.

한편 불교방송 노조(위원장 선상신)는 이사회 결과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지난 20일 오후부터 가슴에 검은 리본을 달고 전노조원을 대상으로 재단불신임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한민족불교중흥회는 지난 20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5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불교개혁과 통일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개혁·통일 지향 '한불회' 20일 창립

공동 대표에 혜창·범하·지명스님

한민족불교중흥회(약칭 한불회)는 지난 20일 조계사대웅전에서 조계종총무원장 월주스님과 포교원장 성타스님, 서석재 국회정각회장 함종한 박상규 박철언의원 등 3당 불자회장 등 5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공동대표에 혜창(조계종총무원 총무부장) 범하(통도사 성보박물관장) 지명스님(청계사 주지)을 추대했다.

이날 창립법회에서 혜창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불교대중의 정서에 맞는 불교개혁운동에서부터 통일국가 정토사회를 구현하는 건강한 시민운동 차원까지 지향하겠다"고 밝히고 △창조적인 불자상 정립 △통일한국의 불교적 대안 모색 △민족문화와 한국불교의 세계화 △건강한 불교공동체 건설을 역점사업으로 제시했다.

한불회는 지난해 6월 상원사 주지 정념스님(한불회 집행위원장) 등의 제안에 의해 모임이 추진되었으며, 1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창립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인권사회 남북교류 등 15개 위원회와 17개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확정했으며, 석주 숭산스님이 증명,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설정스님과 성타스님, 불교방송이사장 종하스님 등을 고문으로 추대했다.

선암사 주지자격싸고 마찰

자금유용 화근…17일 정화위·주지측 대치

순천 선암사(주지 지허)가 또다시 몸살을 앓고있다.

지난 13일 경내인 설선당에서 20여명의 스님들이 현 주지에 반대하는 선암사정화대책추진위(위원장 금암스님. 순천 향림사주지) 발대식을 갖고 △지난 산중총회의 주지선거 오류 △주지가 대중공양에 3달간 불참석 △금둔사불사에 선암사 자금유용 등을 내세워 주지자격 정지를 요구했다.

이어 17일에는 1백50여명의 경찰력이 투입되고 선암사 현주지측과 정화추진위측이 3시간여 대치하는 소동이 벌어졌으며 조계종측 주지인 세민스님도 승가대 해인사스님 40여명과 선암사로 향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조계종 호법부(부장 혜창스님)는 지난 17일 "종단과는 상관없는 일이다"며 "선암사 일부스님의 요청에 의하여 세민스님이 개입한 것이다"고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태고종 보현도량(회장 무위)은 "조계종 총무원장은 해묵은 소유권 분쟁을 일시에 타결 할 수 있도록 소유권 포기를 선언하라"며 선암사가 태고종의 정신적인 귀의처가 되도록 승가본연의 자세회복을 촉구했다.

한편 선암사주지 지허스님은 21일 개최된 산중총회〈차주상보〉를 앞두고 자진사표를 제출했다.

"마이산 탑사 대웅전 보존 마땅"

국민고충처리위 진안군에 철거 철회 시정령

"마이산 탑사는 사찰이 아니므로 대웅전 산신각등을 철거하라"며 온갖 행정의 횡포를 자행하던 행정기관장이 철퇴를 맞았다.

〈본지 104·105호 14면 참조〉

국민고충처리위는 지난 7일 "진안군(군수 임수진)은 마이산 탑사(주지 왕선스님) 대웅전 산신각 철거지시와 문화재관람료 예치액 사용 미결재부분을 시정하라"고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진안군은 30일 이내에 권고처리결과를 국민처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국민고충처리위의 의결에 따라 진안군의 지난해 7월 16일 마이산 탑사 대웅전 산신각 철거 계고처분이 철회될 전망이다.

또 지난해 5월 17일 마이산 탑사가 경내정화사업을 위해서 신청한 문화재 공개관람료 예치액 사용신청이 승인되고, 탑사가 사용하고 있는 군유임야 3백여평에 대해서는 관람료 수익금 50-30% 배분은 부당하다는 국민고충처리위 의결에 따라 토지 사용료만 진안군에 납부하게 됐다.

한편 진안군과 행정소송·심판이 맞물려 진행중인 진안군의 마이산 탑사는 이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차후 유리한 판결이 기대되고 있다. 이와함께 불자들과 지역주민들은 군행정당국의 마이산 탑사 철거 계고처분이 부당하다는 서명작업을 진행중이며 현재 4천여명이 연명했다.

목탁소리

중앙신도회 옥동자인가

정 성 운 〈취재1부 차장〉

산고끝에 조계종중앙신도회가 창립됐다. 2년여의 시간이 걸렸다. 옥동자인가 미숙아인가. 이제 이 문제에 관심이 쏠려 있다.

회장으로 선출된 송재건씨에 대해서는 대체로 자질을 인정하고 있다. 신심깊고 재력도 갖추었고 정치지향성 인물이 아니라는 점을 높이 사는 듯하다.

그러나 중앙신도회는 회장 1인에 의해 움직여지는 단체가 아니다. 재가 2부중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24개 교구신도회를 구성했지만 중앙신도회 창립을 앞두고 서두른 탓에 결속력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발사신도회 구성율도 50%에 머물고 있다.

종단으로부터의 자율성 확보도 과제이다. 신도단체이므로 당연히 승단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함을 부정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중앙신도회 회칙보다 상위법령인 '중앙신도회 설립·운영에 관한 령'에서는 신도회 임원임명의 승인권과 승인취소권을 총무원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수정요구권, 감사의 권한도 총무원장에게 있다. 창립법회에서 행한 월주스님의 법어와 혜창스님의 인사말에서도 '당부'만 쏟아졌을 뿐 종단 구성원으로서의 신도들의 활동공간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은 없었다.

개별 신행단체들의 참여가 전무한 가운데 이들 단체들이 중앙신도회 참여를 망설이는 주요한 원인이다. 지금까지도 잘해왔는데 굳이 종단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할 명분이 있느냐는 것이다. 마냥 옥동자일 수만은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신도회를 언제까지고 '품안의 자식'으로만 여겨서는 안된다. 중앙신도회를 신도들의 자율적인 조직이라기보다는 '제2의 종무기관'이라고 혹평하는 여론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원융종 종정 일공스님 총무원장에 보인스님



◇일공 스님

원융종은 오는 27일 오전 11시 캐피탈호텔에서 '창종 16주년 기념법회 및 일공스님 종정 추대식'을 거행한다.

이날 법회에서 현 4대 총무원장을 맡고 있는 일공스님〈사진〉은 제3세 종정에 추대되며, 송보인스님이 제5대 총무원장에 취임한다.

방송가 소식

'경제를 살립시다' 특집

BBS '전정봉의 열린경제'(PD 한지윤)가 특집방송 '경제를 살립시다'를 기획해 위기에 봉착한 경제 불황 타개책으로 생활 속의 경제살리기 운동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 20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열흘동안 과소비·투기추방 재활용 절약 가정경제 살리기 등으로 진행될 이번 특집방송은 불교적 관점에서 본 경제윤리와 현대인의 경제생활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해하는 시간도 마련한다.

불교TV 모니터 모집

불교TV는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방송모니터 요원 10명을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3월 10일~24일까지며 학력은 대졸이상.

관심있는 분은 이력서1통과 사진1매를 구비하여 불교TV 기획실로 접수하면 된다.

불교TV는 모니터요원에게 CATV가입비와 월 시청료등을 지원한다. (02)3270-3336

부처님오신날 설법자료, 법보시책자 보급안내



▲ 표지에 사찰명을 넣어드립니다.
■ 크기/신국판(15.2cm×22.3cm) 80페이지
■ 정가/1,500원

스님이 들려주신 부처님오신날 이야기

봉축법요의식, 부처님오신날의 의미, 부처님의 탄생이야기, 등공양의 유래와 공덕, 관불의식의 유래, 봉축법문 등을 신도님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수록하였습니다.

사찰에서 초파일 법회 홍보용으로 활용하실 수 있으며 본 책자를 신도님 가정에 미리 보냄으로써 인등권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초파일 전에 절에 오시는 신도님께 좋은 법보시가 될 것입니다.

수록내용

제1부 봉축법요의식
부처님오신날 봉축 발원문 1·2
연등공양 발원문/어린이 봉축 발원문
봉축시 1·2/팔상예문(八相禮文)

제2부 이야기 하나
흰 코끼리의 꿈/어린왕자 싯다르타의 탄생
부처님의 전생이야기/새벽 별…큰 깨침
생명의 고향 열반으로

이야기 둘
부처님오신날 등을 켠다
만개의 등, 하나의 등
온 겨레의 잔칫날, 사월 초파일/등 공양의 유래
연꽃 등 밝히며, 거리를 밝히며

이야기 셋
초파일 아기 부처님께 길상수 부으며
관불 의식의 유래

제3부 봉축법문
봉축법어 1-무우수꽃 피는 룸비니동산
봉축법어 2-하얀연꽃 피어나라

♣ 200권 이상 주문시 책표지에 사찰명을 넣어드리고, 법회안내, 법보시자 등을 추가로 인쇄하여 드립니다.
♣ 특집 '사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맨 뒷장에 법보시자 명단을 넣어드립니다.

◈ 온라인 번호 ◈
농 협 053-01-127096
국민은행 817-01-0172-306
우 체 국 010579-0028865
예금주 선 문 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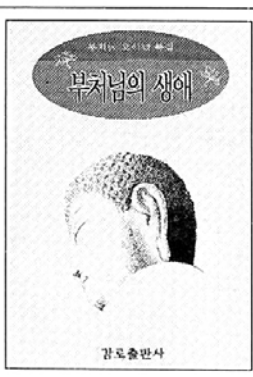
연등공양 이야기

부처님의 탄생, 탄생이야기,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뜻, 관불의식,
인등의 유래와 공덕,
등불공양에 얽힌 이야기 등을
신도님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수록하였으므로
초파일 법회때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표지에 사찰명을 넣어드립니다. ■크기/신국판 64페이지 ■정가/1,500원

부처님의 생애

부처님의 생애를
출생, 출가, 성도, 교화, 열반 편으로
나누어 신도님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으며,
초파일 봉축법회때
신도님들의 불심을 돈독히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크기/신국판 72페이지 ■정가/1,500원 ▲ 표지에 사찰명을 넣어드립니다

감로출판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 ☎(02)723-4306, 723-4307, FAX.(02)738-8682

현불뉴스

국내 최대 사천왕상 점안

국내에서 가장 큰 사천왕상의 점안식이 지난 16일 경남 양산시 신흥사(주지 영규)에서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사천왕상은 높이가 4.4m(둘레 2.7m)로 지난해 4월 무형문화재기능보유자 목조각공 남기설 정호석씨 등 조각공 7명이 목각 조성에 들어가 이날 사천왕 원형 1차 점안식을 가졌다.

군법당 매각 종단과 협의

국방부는 앞으로 군부대이전시 군법당의 분리매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각 종단과 협의후 매각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부대이전에 따른 군법당의 철거·존속 여부가 종단의 관심여하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군종실의 한 관계자는 지난 19일 교계 언론의 국군수도병원 군법당 의왕사(군승법사 홍기법) 매각보도와 관련, "향후 부대이전 사업시 군법당 등 종교시설의 분리매각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각 종파 관계관과 협의후 매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본암 특별분담사찰 요구

경북 영천 은해사(주지 법타)는 최근 성명을 통해 "선본암(잣바위)을 특별분담 사찰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해사는 지난 94년 개혁회의에서 한시적 직영사찰로 지정된 선본암의 분담금을 종단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종무회의 결의로 임의 지출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법웅사 '설법환경' 세미나

육군 1군사 법웅사(주지 조길조법사)는 오는 27일 첫 지역단위 세미나를 갖는다.

'설법환경에 대해서'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군승 상호간의 연구와 토론을 통한 자질 향상과 군포교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1군소속 16명의 법사가 토론을 진행한다.

파라미타캠프 일정 확정

(사)파라미타 청소년협회(총재 성타)는 지난 17일 포교연구실 수석연구원 모임을 갖고, 오는 8월8일부터 11일까지 3박4일의 일정으로 고성 잼버리수련장에서 캠프를 개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또 효경사상실천의해 천명에 따른 효사상배양 지도자지침서, 문화재애호단 활동지침서, 불교수련활동지침서를 오는 6월까지 단계적으로 발간하기로 했다.

남순지장회 후원회원 모집

남순지장회(회장 김명철) 법사단장 법타스님(은해사 주지)과 김재일 후원회장(동산반야회장)은 내달부터 회원이 반수로 격감한 남순지장회를 돕기 위해 후원회원과 자매결연자를 모집하기로 했다.

연락처=(02)722-7552, 후원회 계좌번호=신한은행(324-02-160372, 김명철)

인도성지 순례 부실운영

여행사들 서비스 엉망·추가경비 요구 등 '예삿일'

"인도여행도중 3등 열차 버스 숙박시설 꼬두밥식사 여행비거출 가이드수고비 요구등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횡포로 일관했어요. 게다가 숙박시설로 가는도중 사고가 났다고 4~5시간 버스내에서 지체한뒤 호텔에 도착, 늦게와서 예약이 해지됐다며 4명씩 집단 숙박시켜 수면을 취할 수 없었으며 예약된 방도 확인해보니 빈방이었어요." 최근 모여행사로 인도 성지순례를 다녀온 안대지행보살(광주시)은 인도 생각만하면 울화가 치민다고 한다. 귀국시이도 태국에서 "좌석이 없다며 항공기의 빈좌석에 앉히는가 하면 일부는 사이관을 경유하는 비행기에 분산시켜 탑승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가이드없이 귀국했다"고 말했다.

기분좋게 다녀와야할 성지순례가 일부여행사들의 부실한 서비스등으로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어 교계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여행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경제불황여파로 인한 여행사들의 경영상태 악화로 현지여행사의 폐해는 심각한 실정이며 최대 비수기로 꼽히는 4월에는 여행사부도 위기설이 나돌 정도다.

이러다보니 대부분의 해외여행사들이 원가에도 못미치는 비용으로 성지순례객을 유치한 뒤 현지에서 부실한 운영으로 적자를 메우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불교소비자보호위 서동석국장은 "소비자들도 여행사와 계약약관을 철저히 체결하고 출발하기전 항공권의 예약이 확정됐는지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여행조건이나 일정의 일방적인 변경, 안내인의 불성실의 경우 계약위반이므로 고발조치하여 배상을 청구하고 소비자보호원이나 관광공사 고발창구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김원우 기자〉

폐광지 카지노 조성 월정사 토지와 무관

강원 탄광지역(1억3천만평) 개발계획에 월정사 토지 70만평은 제외된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강원도청 탄광지역 개발과 최근 폐광촌 카지노 후보지로 월정사 토지인 정선군 고한읍 일리가 지정됐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반박하며, 만항지구로 분류됐던 이지역은 이미 개발계획 단계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한마음으로

◇지난 15일 창립한 중앙신도회는 이날 선언문을 통해 "불교사상에 입각하여 21세기 문명세계를 선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中信會 창립 "신행 중심축 다짐"

송재건씨 회장 선출

조계종의 신도대표조직인 중앙신도회가 지난 15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창립총회를 봉행하고 정식 출범했다.

전국 24개 교구신도회 및 직능단체 대의원, 조계종총무원장 월주스님과 총무부장 혜창스님 등 2백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창립법회에서 대의원들은 송재건씨(59·직할교구신도회장, 중원실업 대표)를 초대회장으로 선출했다. 부회장은 총재인 월주스님과 송회장에게 일임하는 한편 감사로 조영황(변호사) 한재구(직할신도회 부회장) 민병준씨(세무사불자회장)를 선임했다.

중앙신도회는 창립선언문을 통해 "부처님의 동체대비와 자유 평등 평화사상에 입각하여 21세기 새로운 문명세계를 선도하는데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송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호국불교의 전통을 계승해 제도중생의 길에 앞장서자"고 당부했다. 송회장은 또 빠른 시일내에 중앙신도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뷰 4면〉

중앙신도회가 창립됨으로써 재가신자의 조직화가 촉진되고, 불자들의 신행활동은 물론 신행활동의 사회적 회향을 통해 한국불교의 사회적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회장을 비롯한 소수에 의존하는 재정문제, 50%에 머무르고 있는 말사신도회의 구성 및 내실화, 개별 또는 직능 신행단체의 중앙신도회 참여문제 등 적지않은 과제가 남아 있다.

중앙신도회는 개혁종단이 출범 이후 2년4개월만에 구성됐다.

"개혁종단 3년전 의욕 어디갔나"

재야단체, 종헌종법 개정 등에 이의

조계종 개혁 3주년을 맞아 실천불교전국승가회(공동의장 청화 지선), 선우도량(공동대표 도법 현봉), 전국불교운동연합(의장 지선) 은 지난 19일 각각 성명서를 통해 "개혁불사의 근본취지인 종단 자주화가 퇴색되고 있다"고 천명했다.

실천승가회는 "선본사 직영사찰 해제 요구, 종헌종법개정 등의 움직임은 종단개혁불사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우도량과 전불련은 "불교방송 공금유용 및 횡령, 월하종정스님 사퇴등으로 종단에 대한 의구심이 높게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종단 지도급 스님들이 한민족불교증흥회를 창립한 것은 책임있는 모습이 아니다"며 "조계종단과 중앙종회는 개혁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간복제 절대 반대

대구불교단체캠페인

대구불교산악회(지도스님 묵연) 등 대구지역 불교단체들은 최근 시민단체와 연대해 인간복제 실험 반대를 위한 대시민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대구불교산악회(지도스님 묵연)와 생명나눔실천 대구·경북지부(지부장 심업)는 지난 15일 "인간복제는 과학이 낳은 죄악"이라 규정하고 "인류는 공동체로서의 상호신뢰와 존경, 미래사회를 바라보는 정견을 가져야 할 것"이란 요지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관음선행회 보살행 대물림"

어머니들 자비실천 딸·며느리에 인계

지난 3월18일 저녁 부산 코모도호텔에서는 어머니와 딸, 며느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자비행을 대물림하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이날 올해로 창립 27주년을 맞이하는 관음선행회의 회장이 팔순의 정금강행보살에서 며느리 김무상심보살로 바뀌었다. 이는 단순히 회장의 이취임이 아닌 어머니뻘의 노보살님들이 행해온 보살행을 딸, 며느리들이 물려받아 올곧게 이어가겠다는 대외적인 약속이었다〈사진〉.

이날 회장으로 취임한 김무상심보살(53)은 지난 82년 관음선행회 회원의 딸과 며느리들을 주축으로 관음선행회를 만들어 꾸준히 숨은 선행을 해왔다.

"시어머님께서는 관음선행회를 만들 때 집집마다 방문하며 기금을 조성하셨습니다. 그 헌신과 노력이 저희들에게 자비와 선행을 행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고 봅니다. 어머님들의 행적에 누가 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 노력하겠습니다."

관음선행회는 지난 71년 창립된 이후 육군 공수사령부 군법당 금련사 창건, 김해공군 비행장 법당 보국사 창건, 53사단 사령부 부대 법당 창건 등을 지원해왔다. 또 불교부산방송과 부산불교TV에 육성기금으로 각각 2천만원전달, 청년회와 학생회 지원 등의 활동을 해왔으며 특히 지난 87년에는 관음선행장학회를 설립해 매년 1천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부산=천미희 기자

밀양시, 11개 사찰 납골당 지원

사업비 50%씩…4월말까지 신청 접수

밀양시(시장 이상조)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올해부터 납골안치단 및 납골분묘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11개 사찰에 납골안치단을 조성한다.

지난 19일 밀양시에 따르면 무분별한 묘지증가로 인한 국토잠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묘지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해 시는 우선 총 3억8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읍·면에 소재한 사찰 11개소를 선정해 납골안치단을 조성하고 11개소(각 읍·면별 1개소씩)에 가족납골 분묘를 설치키로 했다.

시는 1개소의 납골분묘 조성과 납골안치단 설치에 각각 2천4백만원과 4백40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사업비의 50%를 시비로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오는 4월말까지 설치예정지별 읍·면사무소에서 사찰·종친회 등의 신청접수를 받는다.(0527-355-1859)

가족납골분묘는 분묘 1기당 점유면적을 60평방미터(18평)이내로 축조하며 봉안능력은 1기당 60~80구가 안치되도록 하고 납골안치단의 경우에도 1개소당 60구를 안치할 수 있는 사찰을 대상으로 한다.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묘지의 설치 및 관리가 편리하고 화장율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환경오염방지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대불청 '청년호법단' 6월 발족

사찰방화 방지등 불교외호 활동 추진

훼불, 사찰방화예방 등 삼보의 호를 위한 호법단이 발족된다.

대한불교청년회는 지난 2월15일 제1차 중앙이사회를 열고 (가칭) 청년호법단을 발족키로 하고, 준비위원회(위원장 남도회 조계사청년회장)를 구성했다.

오는 6월 21일 불청대회에서 발대식을 갖게 될 청년호법단은 훼불 사찰방화 삼보비방 예방 및 진상규명, 특정종교편향정책 시정 등 불교외호활동을 펼친다. 또 청년불자들의 신행혁신을 주도해 건전한 불청운영을 모색하고 나아가 대사회적 우위를 차지한다는 계획이다.

대불청 중앙회 산하 특별위원회로 출범하는 청년호법단은 지난 17일부터 호법단의 전국망 조직을 위해 지역 각 청년회를 방문, 대원 선발과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대불청 정웅정 사무총장은 "호법단 운영을 통해 자주적인 불교위상정립은 물론 모범적인 청년불교운동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사무총장은 "호법단의 활동이 자칫 '종교전쟁'으로 비화될 우려도 있다"며 "불자들의 긍정적인 참여와 신중한 운영계획 수립이 과제"라고 밝혔다.

마음 놓고 흐를 뿐이다

한 발짝 내딛으면 뒷발자국이 없어지고 또 걷고, 한마디 하면 뒷말이 없어지고 또 생각나고 연방 그렇게 돌아간다. 보는 것 듣는 것 가진 것이 모두 그러하다. 본래로 놓고가는 것이다. 끝간데 없이 놓고 가는 중이다. 본래로 든 것이 없이 항상 놓고 흐를 뿐이다. (한마음원전)

협찬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長腦 장뇌 山蔘 산삼

부모님께 효도선물! 뜻깊은 분께 감사의 선물!

홍천임업협동조합에서 공급하는 15~30年根



장뇌산삼 눈이 맑아지고 뇌의 기능을 좋게하며 인체 저항력을 강화시켜 면역기능과 자연 치유력을 높여 줍니다.

장뇌산삼이란?

장뇌산삼은 산삼의 씨앗을 산삼이 자생할 수 있는 깊은 산중에 뿌려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 양생된 일명 山蔘山蔘입니다

●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능
長腦山蔘을 통해 山蔘의 효능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대대로 전해 내려온 효능은 이루 말할 수

'봄철'은 허한 몸을 보하는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장뇌산삼 서울 사업부
02)884-0468~9
017-232-2786

존경하옵는 불자님!

건강과 성불을 발원하옵고 가내화평하시길 빕니다.

최고의 산삼을 보시하는 마음으로 최저가격에 모시고 있사오니 연락주시면 청성껏 모시겠습니다.

특품 1세트 3뿌리 65만원

홍천임업협동조합 검수품

시중에서 장뇌산삼이 자연산삼으로 둔갑하여 수천만원대의 고가로 잘못 유통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물량 홍천 임업 협동조합에서 인증서가 첨부되여 가짜로 부터 보호하고 고객분들게서 안심하고 드실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1뿌리도 주문 배달이 가능하며 단체주문 및 선물용이 다량 주문시 가격절충해서 공급이 가능합니다.
● 자연산삼 별도 상담 환영
● 기업체 VIP선물용 단체 주문시 별도 상담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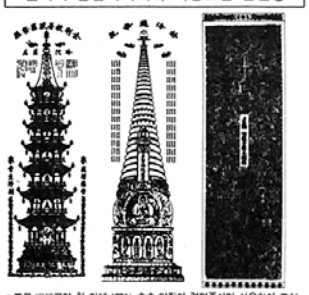
공급 홍천임업협동조합 검수품

"佛塔다라니로서 스님과 불자들이 실제 겪었던 영험 사례집 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불탑다라니를 사용하면 실제로 불가사의한 영험력이 일어나는 것일까?"

돌아가신 분들에게 깔아주고 덮어주어 극락왕생을 기원했던 금강경 탑다라니. 이 불탑다라니를 현세에서 우리가 사용한다면?
살아있는 동안에 극락을 찾고 소원을 성취하고 일체재해를 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여러스님들이 방편으로 시도해보았던 불탑다라니에서,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스럽고 불가사의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은 무엇으로 설명을 할 것인가?
이세상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럼으로 이러한 불가사의한 일들은 규명하고자 하기보다는 한가닥 의심없이 믿고 행함으로서 실제로 체험 해보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진실로 믿거나 불보살님의 위신력을 믿는 불자라면, 부처님의 위대한 경전을 100% 경면주사를 사용하여 조성한 금강경 신탑다라니와 묘법연화경 다보탑다라니, 지장보살본원경 사경본의 위신력을 충분히 믿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동안 2000여 사암에서 주로 스님들을 통하여 불자들에게 보급되어온 본회의 불탑다라니는 사용한 불자들의 대부분이 한결같이 그 불가사의하고도 신비스러운 영험력을 직접체험 하였다고 스님들이 전해옴으로서, 본회에서는 그 사례들 중에서 대략적인 것만 모아 책자를 만들어 인연닿는 스님과 불자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 최근에 발견된 불탑다라니의 불가사의한 또하나의 영험력 : 집안에 흐르는 수맥의 영향을 100% 차단시킵니다.
<수맥찾는 전문가들의 실제 테스트결과 입증되어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하였습니다>

"신비의 불탑다라니와 지장보살 본원경"



■고급 탁택공단 천 위에 100% 순수 양질의 경면주사만 사용하여 조성
규격 : (가로)63㎝×(세로) 160㎝

스님들께는 스님용책자내용 :스님용책자와 신도용책자를 무료로 함께 보내드립니다.
1. 본회의 금강경 신탑다리니에서 계속적으로 방출된 신비스러운 기를 이용하여 인간의 운세와 길흉화복을 80%이상 적중시킬수 있는 기(氣)테스트 방법 수록.
2 불가사의한 영험력이 일어나 소원이 성취되는 불탑다라니 사용방법과 상세한 처방전.
3. 지장경 사경본을 이용한 조상대대 친족연족 일체지영가 천도방법.
4. 수자영가를 각각 불명을 지어 확실하게 천도시켜 주는 방법.
5. 불탑다리니로서 조상님의 산소를 후손이 발복하는 명당자리로 만들어 주는 방법.
6. 이름없는 영가의 불명짓는 방법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 불탑다라니는 포교차원에서 신도들에게 부처님의 위신력을 보여주어 불심을 깊게하는데 일조하고, 소원을 성취시키고, 재앙과 재난을 예견하여 그것을 피해가고 소멸시켜주는 방편으로, 또한 조상령과 수자영가인 낙태아, 자연유산아 사산아등의 원혼들을 불명을 지어 위패를 안치시켜주므로서 확실하게 천도시켜주는 방법등을 제시해드림으로서 다소나마 불사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주었으면 하는 뜻입니다.

불자님들께 : 불탑다라니를 사용하여 실제로 일어난 영험록 사례집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1.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는 분
2. 대학입시생을 둔 학부모
3. 각종질병이나 원인모를 병으로 고통받는 분.
4. 정신질환이 있는 분.
5. 사업이 부진하거나 실패한 분.
6. 가정불화를 겪고 있는 분.
7. 삼재나 관재가 있는 분.
8. 집안이 이상하게 시끄럽거나 잘안풀리는 분
9. 고시나 승진시험을 앞 둔 분들은 꼭 받아보십시오. 큰힘이 되실 것입니다.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0335)34-9490, 34-9491
야간 (0342)706-3060

건강백세 ㊸·〈끝〉

생식기

생식기능은 단순히 자손번식에만 있지 않고 모든 생활의 기본이 된다.

수뇨관을 타고 내려온 소변을 보관하고 있는 방광은 남자의 경우 요도 연결부분에 자리잡고 있는 전립선이 정액과 소변을 구별하여 요도를 통해 배출하는 로터리 스위치 역할을 하는 곳으로 성기능과 관계가 된다. 낙농식품을 많이 먹게된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전립선비대나 암종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남성생식기는 정충을 생산하는 고환과 생산된 정액이 보관 대기하고 있는 저정낭 및 음경의 해부학적인 구조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발기는 음경해면체에 혈액공급이 원활해져야 한다. 문제는 이것을 조정하는 기능이 자율신경의 지배하에 온전한 내분비 활동에 의한 결과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막연히 해면체만을 확대시킨다든지 호르몬 분비를 늘게하는 약물을 정력제로 알고 남용하면 자연스런 조화를 깨는 결과가 되어 더욱 심한 정력장애를 갖게 된다. 오히려 액이 잔류되어서 발생하는 수도 있는데 대개 심한 악취를 수반한다. 또한 과도한 활동은 회복력을 늦추므로 휴식이 필요하다.

임신중의 원활한 영양공급은 산모나 태아에게 다같이 중요하며 분만 후유증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 입덧으로



생활리듬 회복·걷기운동 정력제 역할
임신중 영양공급 분만 후유증 최소화

걷거나 달리는 하체운동과 건전한 생활 태도에서 오는 생활리듬의 회복과 마음의 부담을 벗어난 자유로운 자신감이 훨씬 부부생활에 정력적가 될 수 있다.

40대 이전에 정력이상을 느낀다면 특별한 질환이 없는한 생활의 절제가 필요하며 40대 이후일 경우는 매일 1~2시간씩 걷고 운동하면 거의 회복이된다.

여성의 생식기능은 복잡하고 중요하다.

월경은 10~12세 정도 성장된 여성의 배란된 난자가 임신되지 않고 시간이 경과하면 황체 호르몬의 증가로 자궁내막이 벗겨지며 일어나는 정상적 주기적 출혈이다. 그러므로 임신이 아닌 가임여성의 무월경은 거의 질환으로 보아 정확한 진료를 해야 한다. 많은 여성들이 월경통으로 고생을 한다. 대부분은 자궁내막의 염증이나 상처에서 발생하는데 체질이나 병적으로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 경우에 더욱 심한 통증을 호소한다. 그외에 자궁이 기형적으로 넘어져 있어 월경혈

알려진 임신중의 오식증(incorrect eating)은 '임신중복약=기형아발생'이라는 기우 때문에 많은 산모들을 불필요한 영양부족과 산후증에 시달리게 만든다.

산후풍은 산후에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근육, 관절의 조기사용으로 인한 일종의 근육, 관절염 증상이다. 충분한 영양섭취와 근육, 관절을 보하는 처방으로 다스려야 한다.

불감증은 기질적으로는 성장미숙이나 성감세포의 분포부전 또는 호르몬 장애 등으로, 기능적으로는 충분한 애무의 부족이나 심한 스트레스에서 온다고 본다. 그러므로 성생활의 종교적 죄의식이나 악취혼인으로 인한 상대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도 올 수 있다. 그밖에 상대남성의 약한 정력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기능이나 정서적인 경우에는 원만한 부부간의 인간관계와 애정이 회복되어야 한다. 존경과 사랑이 합치되어야만 보다 고차원적인 사랑의 극치를 맛볼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을 상 〈한의학 박사〉

조건없이 사는 삶 ②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

〈특별상〉



그림 · 이준석

"일에 너무 집착말고 즐겁게 살아라"
말기암이라 수술도 못받은 아버지는
교수가 되려는 딸에게 유언을…

무사히 논문 1차심사를 마치고 병원으로 갔더니 아버지는 입원실에 계시지 않았다. 간호사에게 물어보니 다른 병동으로 옮기셨다고 한다. 내가 찾아간 곳은 암센터였다. 이미 아버지의 암은 말기까지 진행이 되어 수술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였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슴통증을 느끼면서도 아버지 앞에서는 눈물을 감출 수 밖에 없었다.

여러차례의 방사선치료를 받는 와중에서도 아버지는 내가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항상 웃는 모습을 보여주시며 "네가 힘들 때에는 항상 아버지를 생각하라"고 하셨다. "아버지가 힘드신 때는 어떻게 하시는데요?"묻는 내게 아버지는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위해 하신 고행에 비하면 나의 고행은 아무것도 아니다"고 하시며 "나는 내몸 위한 것인데 그게 두슨 고생이냐"고 하였다. 그렇게 아침이면 학교에, 저녁이면 병원으로 다녔다. 집으로 돌아 오는 길에는 마음에다 절을 짓고 기도하는 것이 내생활의 전부였다.

논문은 그런대로 수월하게 진행이 되어 남들보다 빠른 4년 반만에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었다. 아버지의 병세는 병원에서도 의심할 정도로 호전이 되어 통원치료가 가능하게 되셨다. 마음이 급해지신 부모님은 그해 5월과 11월 그리고 다음해 6월까지 만 13개월동안 오빠, 나 그리고 동생을 모두 결혼을 시키셨다. 나는 결혼을 해서도 친정에서 한동안 살았다. 갑자기 부모님이 너무 외로우실 것 같았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자식을 다 출가시키고도 걱정이 남으셨다. 나의 취직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병세는 다시 심해지셨고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교수가 되는 것이었다. 교수공채 공고에 원서를 내보았으나 마지막에서 나는 늘 낙방했다. 제일 속상했던 것은 학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출신지역을 따지고 종교를 따지는 것이었다. 그래서 왜 불교대학은 이렇게 적을까, 불교대학에서는 왜 종교를 따지지 않을까? 하며 원망을 많이 하였다.

어머니의 지극정성과 간호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3년을 못 넘기고 우리와 하직을 하셨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가족모임을 많이 만드셨다. 며느리의 생일이니 모여라, 사위가 승진했으니 모여라, 손주가 백일이 되었으니 모여라 등등. 결혼한 7남매에게 거의 한달에 한 번이상 모두 모일 것을 요구하셨다. 당신이 함께 하고 살어 했던 짧지만 많은 시간 중에 나는 논문을 쓴다는 이유로, 또 번역한다는 이유로 빠진 적이 몇 번 있었다. 아마도 아버지는 섭섭하셨던 모양이다.

아버지는 생전에 무실력행(務實力行)을 강조했던 분이었으나 돌아가시기 얼마 전부터는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뭔가를 위해 애를 쓰고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한 가지에만 너무 집착하지 말고 중도를 지키고 생활을 즐기면서 살도록 하라"는 말씀이었다. 스트레스를 받으며 사는 막내딸의 모습에 은근히 일침을 가하셨던 것이다.

사실 그때는 어떻게 해서라도 연구실적을 올려 하루라도 빨리 아버지께 교수가 된 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이었지만 그것이 나의 좁은 소견이었음을 이제와서야 깨달을 수 있었으니…

결국 나는 교수가 되지 못한 채 아버지를 여의어야 했고 돌아가신 후에야 나는 손주도 안겨드리지 못했음을 인식했다. 사실 그동안 교수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과 매해 논문을 써야 한다는 생각에 아이를 가지려고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다. 아버지의 별세와 함께 나는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다.

아버지의 유언대로 어머니는 일년상을 치르기로 하고 아침 저녁으로 생전과 같이 상을 올리고 초하루와 보름이면 삭망(朔望)제사를 지내고 49재와 100재는 각각 조계사와 신흥사에서 불교식으로 지냈다. 아버지는 사후에도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시아버님의 병원입원소식이 날아왔다. 입원한지 3일만에 돌아가신 시아버님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을 찾는 시어머님을 달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나는 망연자실 할 수밖에 없었다. 시아버님의 장례는 교회식으로 치렀다. 너무 손쉽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는 아쉬움이 많았다.

이 무 애 심 〈서울 은평구 신사2동〉

영어로 배우는 경전 숫타니파타 ⑭

♦ The excellent one who knows what is excellent, who gives what is excellent, and who brings what is excellent the incomparable one taught the excellent Damma.

뛰어난 것을 알고, 뛰어난 것을 주고, 뛰어난 것을 가져오는 위없는 이가 으뜸가는 법을 설했다.

♦ The old is destroyed, the new has not arisen those whose minds are disgusted with a future existenxe the wise who have destroyed their seeds whose desires do not increase, go out like this lamp.

묵은 업이 사라졌고 새로운 업이 생기지 않는다. 그 마음은 미래의 삶에 집착하지 않는다. 자손의 씨앗을 없앤 현자들은 자손이 늘어나는 것을 원치 않고 등불처럼 꺼져 열반에 든다.

♦ Whatever spirits have come together here, either belonging to the earth or living in the air let us worship the perfect Dhamma, revered by gods and men; may there be salvation

여기 모인 귀신들이여, 지상의 것이건 공중의 것이건 신과 인간이 다 같이 섬기는 완성된 진리를 경외하라.

♦ Destroying living beings, killing, cutting, binding, stealing, speaking falsehood, fraud and deception-this is Amagandha, but not the eating of flesh

산 것을 죽이는 일, 때리고 자르고 묶는 일, 훔치고 거짓말하는 일, 사기와 속이는 일, 그릇된 것을 배우는 일, 이것이 바로 비린 것이지 육식이 비린 것은 아니다.

♦ Those persons who in this world are unrestrained in sensual pleasures, greedy of sweet things associated with what is impure, skeptics-this is Amagandha, but not the eating of flesh

이 세상에서 욕망을 억제하지 않고, 맛있는 것을 탐내고 부정한 생활에 어울리며, 허무론을 가지고 바르지 못한 행을 하는 사람들, 이것이 비린 것이지 육식이 비린 것은 아니다.

*disgust (v) 반감을 갖게 하다, 넌더리나게 하다
*revere (v) (경건한 마음으로) 경외하다, 존경하다
*bind (v) 묶다, 동이다
*deception (n) 사기, 현혹 ('fraud'와 동일)
*amagandha (빠알리어) 비린
*unrestrain (a) 억제되지 않은, 제어되지 않은
*greedy (a) 탐욕스러운, 몹시 탐내는
*skeptic (n) 회의론자, 의심 많은 사람